

재성원령기 1권

지은이 : 암향

편집자 : 김예지

ISBN : 979-11-6903-090-8[05820]

비매품

전자책 발행일 : 2022-05-20

발행처 : (주)엠젯패밀리(비엘리)

주소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0길 19 상록빌딩 4층

투고 및 문의 : mznovel@mzfamily.co.kr

이 책은 (주)엠젯패밀리가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자책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본 저작물의 내용을 무단복제 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1화 한 번 꿈에 십 년 인생

원흥(元興) 이십육 년, 상경(上京).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었다.

그러나 왕성의 고문실에서는 봄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어두운 불빛이 벽을 비추자, 얼룩덜룩한 벽면 위로 가냘픈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방 가운데에는 돌 평상이 하나 놓여 있다. 평상 모서리에 달린 족쇄와 수갑은 한 여인을 꽉 움아매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섬세하고 흰 피부에는 섬뜩한 청자줄빛 흔적이 가득 남아 있다.

돌 평상 옆에서 붉은 옷차림의 여인이 허리를 살짝 굽히고 석상 위에 누운 사람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듯한 음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분명 웃고 있는데 그 예쁜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마치 독사가 헛바닥을 날름거리며 먹잇감을 노리는 모습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정말 너라는 딸을 원해서 너처럼 천한 잡종을 데려온 줄 알았니? 너도 참 순진하구나. 삼황자를 대신해 돈을 모아야 하지만 앓았어도 넌 부씨 가문 대문 안으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했을 거야. 그러게, 누가 돈만 갖고 태어나라던.

그 약혼도 정말 널 위해서 한 건 줄 알았어? 그냥 잠깐 나 대신 그 자리를 맡고 있으라는 것뿐이었어.”

미인은 말을 마치고, 물을 적신 종이 한 장을 누운 여자의 얼굴 위에 붙였다. 종이 위로 고와서 처연한 얼굴선이 맥연히 드러났다.

돌침상 위에 묶인 여자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입을 벌렸지만 젖은 종이는 더욱 달라붙어 숨구멍을 틀어막고 제대로 헉헉대지조차 못했다. 미인은 그 광경을 보고 있으려니 점점 입꼬리가 올라갔다. 기분이 좋아진 듯, 모종의 야릇한 쾌감까지 느꼈다.

“삼황자께서 이 사실을 아느냐고 묻고 싶겠지? 삼황자와 나는 소꿉친구야. 당연히 알고 계셔. 어차피 삼황자의 약혼녀랍시고 그동안 네가 해친 사람도 한둘이 아니잖아. 그분이 내게 어찌 그런 일을 시키겠어?”

여자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지는 것을 보며, 미인의 웃음소리는 점점 득의양양해졌다.

“이젠 모든 게 끝났어. 삼황자께서는 곧 황태자가 되실 거야. 태자

비 자리에 너 같은 잡종이 어울리거나 하니?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어.

부씨 가문 장녀는 중병에 걸려 사망한 거야. 삼황자는 혼약을 버리지 않고 예전과 똑같이 부씨 가문의 딸을 골라 태자비로 삼으실 거고.

나야말로 부씨 가문의 적방(嫡房 – 적자 일가) 출신 적녀(嫡女)니까, 태자비 감으로는 당연히 내가 가장 어울리지 않겠어? 나는 네 어마어마한 혼수를 가지고서 당당하게 태자비 자리에 올라,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할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부원령(傅元令),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부원령, 넌 진짜 죽었어야 했어!”

부드러운 흰 손가락이 물을 잔뜩 먹은 마지막 종이를 부원령의 얼굴 위에 붙였다. 이제 경국지색의 미모를 자랑하는 그 얼굴이 더는 보이지 않았다.

미인은 부원령이 사지가 뭉뚱 묶인 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기폐형(氣斃形 – 숨이 막혀 죽게 만드는 형벌)으로 질식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고스란히 눈에 담고 나서야, 부선의(傅宣禧)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문을 열고 나갔다.

‘죽었으니 됐어.’

오랜 세월 마음속에 쌓여 있던 울분이 드디어 한순간에 싹 사라졌

다.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자, 문밖을 지키던 사람이 문을 밀고 들어왔다.

“죽었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멍석으로 말아다 난장강(亂葬崗 – 무연고자의 공동묘지)에 버려라.”

“네.”

짙은색 옷을 입은 젊은 태감이詹 손놀림으로 움직임 없는 사람을 멍석에 말아 어깨에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는 문가까지 갔을 때 곡(曲) 공공(公公)의 흔들리는 옷자락을 곁눈으로 슬쩍 훑었다. 곡 공공은 느릿하게 한숨을 쉬더니 혼잣말하듯 입을 열었다.

“이분도 참 아깝게 됐어. 다음 생에는 좋은 팔자로 태어나시길. 마음씨 고운 사람은 이런 세상에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니까.”

젊은 태감 전통(展通)은 듣지 말아야 할 말은 듣지 못한 척, 조용히 바깥으로 나갔다.

예전에 그는 부 소저에게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다. 오늘 그녀의 목숨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특별히 새로 짠 멍석을 골랐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난장강에 버리는 대신 밤의 어둠을 틈타 직접 소달구지를 몰고 나가 서산(西山)의 깊은 산골짜기에 묻어 주었다.

청암사(靑岩寺)의 원청(元淸)대사가 술에 취해 바로 여기가 명당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남들은 이 술과 고기를 먹는 땡추종이 헛소리를 했다고 여겼을 뿐이다. 그러나 전통은 뒷자리를 봐 줄 지관을 모실 돈도 없었고, 은인에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용기도 없었다. 그녀의 목숨을 구할 능력은 더더욱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땡추종의 말을 사실이라 여기고 이곳에 묻어 주는 것뿐이었다.

‘은인이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팔자로 태어나길.’

전통은 마지막으로 흠을 뿌리고 절을 세 번 했다. 그리고 나서는 고개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하늬바람이 띄워 올린 낙엽이 허공에서 맴돌다 새로 만들어진 봉분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다. 마치 새로운 옷이라도 입혀주려는 듯.

* * *

바로 그때.

깊은 밤 단잠에 빠져 있던 구황자(九皇子)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관자놀이에 송골송골 배어 나온 식은땀이 날카로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목으로 떨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키고 맨발로 불 켜진 등 앞으로 다가갔다. 마디가 분명하고 길쭉한 손가락이 동으로 만든 부젓가락을 집더니 촛불을 조금 더 밝게 만들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는 바람에 조금 싱숭생숭해졌다. 사람을 부르려는 순간, 문이 가볍게 열렸다. 배수(裴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으며 보고했다.

“전하, 부씨 가문의 대소저가 급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초구기(肖九岐)의 온몸이 뻣뻣해졌다. 멍한 얼굴에서는 아무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손에 쥐고 있던 등불용 부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며 낸 날카로운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세차게 때리는 것만 같았다.

배수는 숨도 헐떡이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전하의 살기 어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조사해라!”

‘부씨 가문 놈들이 감히?’

그것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 * *

드넓은 세상에는 온갖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부원령은 경서(經書)에 통달했고, 풍부한 학식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황량몽(黃梁夢 – 노생이란 사람이 도사의 베개를 빌려 잠 들었다가 꿈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깨어나 보니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인생과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비유함)이라는 신기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

한 번 꿈에 십 년 인생을 살았다.

꿈속의 일은 너무나 사실적이었다. 기폐형으로 숨이 막혀 절망적으로 몸부림쳤던 일은 지금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모골이 송연해지고 온몸이 덜덜 떨렸다.

“아가씨,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새벽이라 아직 춥습니다. 몸을 잘 챙겨야지요.”

두씨 어머니가 휘장을 걷어 올렸다. 아가씨가 홑옷만 걸치고 창앞에서 있는 모습을 보자, 속상해서 미간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잔소리하며 숨을 두둑하게 채운 명주 피풍의를 아가씨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그 일은 어찌실 겁니까? 정말 상경으로 가시게요? 하지만 신중하셔야 해요. 그 커다란 부씨 가문에 좋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아가씨는 너무 착하세요. 남이 와서 우는소리 한번 하니 바로 마음이 물러지셨잖아요.”

원래 담담하던 부원령의 표정이 확 굳어졌다. 그녀는 머리를 획 돌리며 두씨 어머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두씨 어머는 아가씨의 창백한 얼굴색을 보자 점점 더 속이 상했다.

“분명 원레 그 계집애가 어젯밤 게으름을 피웠군요. 얼굴이 어쩔 이렇게 창백하담? 안 되겠어요. 의원을 불러와서 보여야.....”

“난 괜찮아. 유모. 방금 뭐라 그랬지? 다시 한번 말해 봐.”

부원령의 안색이 매우 나빠졌다. 그녀는 꿈일 뿐이라고, 황량몽이었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두씨 어머가 하는 말을 듣자, 등골부터 꼬리뼈까지 소름이 짹 끼쳤다.

‘꿈속의 일이 어떻게 눈앞에 똑같이 벌어질 수 있지?’

두씨 어머는 하얗게 질린 아가씨의 모습에 놀라 무의식적으로 방금 했던 이야기를 되풀이했다.

부원령은 얼떨떨했다. 꿈속의 자신은 두씨 어머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어쨌든 내 생부인데, 날 데려가겠다고 하시잖아. 예전에는 확실히 사정이 있기도 했고, 나도 부녀간의 천륜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부원령의 입에서 고스란히 흘러나왔다. 손 바닥에는 땀이 축축이 났다.

머릿속이 뒹뒹 울렸다. 귓가에는 다시 두씨 어母的 말이 울렸다.

“말이야 그렇지요. 하지만 떠난 지 십 년이 넘도록 소식 한 통 없었잖아요. 정말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한번 와서 볼 줄도 모른답니다. 인제 와서 새삼스럽게 아가씨를 상경으로 데려가겠다니요.

그 이번에 온 하인도 입을 열자마자 마님이 어찌고 하는 걸 보니 서방님이 또 장가를 든 게 분명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주인아씨 처지가 뭐가 됩니까? 이걸 분명히 사기 결혼으로 속이려 드는 거예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짓이라고요.

아가씨처럼 똑똑한 분이 왜 그걸 못 알아보실까. 왜 그러세요?”

또 꿈속에서 들었던 것과 똑같은 말이었다. 꿈속의 두씨 어母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부원령이 고집을 부렸다. 늘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보고 싶었다.

부원령은 다리가 조금 후들거려 하얀 손으로 창틀을 꼭 쥐고 두씨 어머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두씨 어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까지도 꿈속과 똑같았다.

너무나 현실적인 황량몽이었다. 부원령은 마음속의 떨림을 억눌렀다.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쓰며 두씨 어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시험이라도 해 보듯 꿈속에서와 똑같은 말을 했다.

“유모도 더는 말리지 마. 결심했어. 어쨌든 생부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라도 해야지. 왜 어머니를 버렸는지 물어보기라도 해야 하잖아.”

그녀는 목이 짹 막히는 느낌으로 두씨 어머를 뚫어지라 바라보았다.

‘만약 유모가 또 꿈속에서와 똑같은 말을 한다면?’

두씨 어머는 아가씨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미간에 서린 근심을 감추지 못하며 탄식했다.

“아가씨가 그리 결정하셨다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안심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집안사람들이 아가씨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역시 꿈속과 똑같은 말이었다.

부원령은 조금 아득해져서 몸이 휘청거렸다. 가슴속에 억눌러 두었던 온갖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다. 그래도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며 입을 열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너무 일찍 일어났으니까 조금 더 자야겠어.”

결심이 누그러진 듯한 아가씨의 모습에 두씨 어母的 얼굴에도 기쁨이 떠올랐다. 서둘러 그녀를 침상으로 부축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다.

“눈 밑에 그늘이 생긴 걸 보니 잘 쉬셔야겠어요. 좀 쉬고 나서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 상경의 부씨 가문에서 왔다는 사람들을 하루 이틀 더 기다리게 한들 이쪽이 아쉬울 게 없었다.

두씨 어母이 살그머니 물러갔다. 부원령은 금실을 수놓아 만든 침상의 휘장 꼭대기를 응시했다. 두꺼운 비단 이불을 덮었지만 뼈사이로 한기가 흘러나오는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2화 한 걸음씩 신중하게

부원령이 어찌 잠들 수 있겠는가. 머릿속에는 전부 꿈속의 광경뿐이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서 거대한 가업을 유지해 왔다. 두렵지 않다

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이 많은 사람이 그녀에게 의지해 먹고 살고 있었으니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의지할 곳 없는 아이가 어느 날 생부가 자신을 찾고 있고, 데려가서 함께 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아무리 떠난 뒤 감감무소식이었다고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약간은 기대가 일었다.

그녀는 꿈속의 자신이 부푼 기대를 안고 상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은 상경 부씨 가문 사람들에게 깜빡 속았다. 그들은 거짓된 가족의 정으로 그녀를 얹맸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녀를 죽음의 길로 서서히 밀어 넣었다.

말로는 그녀가 부씨 가문의 장녀라고 인정했지만, 외부에는 그녀가 적출이라고 제대로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또한 남들에게 그녀의 어머니는 부가염(傅嘉琰)이 정식으로 맞이한 아내라고 말한 적도 없었다.

부씨 가문은 그간의 세월을 보상한다며 삼황자와의 약혼을 그녀에게 들이밀었다.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녀는 승낙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식적이었던 일은 여동생 부선익이 그녀와 사이좋은 척하며, 자신 몰래 삼황자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다. 꿈속의 자신은 눈이 멀었던 게 아닐까?

나중에는 그녀도 이상하다는 점을 눈치챘지만, 두 발이 늪 속에 깊이 빠진 뒤였다. 그곳에서 벗어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

다. 그녀는 자신을 지킬 방법을 생각해 내기도 전에 부씨 가문 사람들 손에 죽고 말았다.

한바탕 꿈이었지만 한평생을 산 듯했다. 터무니없고 황망할 뿐 아니라 조금 무섭기까지 했다.

‘무엇보다도..... 꿈속의 일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어.’

순간 아찔해졌다. 자신은 정말로 한평생을 살았던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저 한바탕 꿈이었을까.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꿈속의 나처럼 살아서는 절대 안 돼.’

꿈속의 그녀는 아버지의 사랑에 너무 목말랐다. 그래서 참을 수 있는 건 전부 참았고, 참을 수 없는 것도 억지로 견뎠다.

하지만 만약 꿈속의 일이 실제 앞으로 모두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녀는 이미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셈이다. 절대 꿈속에서처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는 없었다.

산 모양을 조각한 향로 박산로에서는 수면을 돕는 향의 연기가 가늘게 흘러나왔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잠에 빠져들었을 테지만, 오늘은 섬뜩해진 나머지 전혀 잠이 오지 않았다.

상경 부씨 가문에서는 벌써 그녀를 찾아왔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었다. 그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았다.

이번엔 상경에 가더라도 상경 부씨 가문에서 온 사람을 따라갈 수는 없었다. 그 집안의 저택에 들어가서 살아서도 안 됐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이 오늘 꿈과 똑같다면, 그녀는 자신을 위해 계획을 더욱 잘 세워야 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 지금 당장은 상경으로 갈 때가 아니었다. 연말이 곧 다가오고 있었다. 수금하고, 장부를 맞춰보고, 사업상 처리해야 할 일도 있었다.

‘침착하자. 조금해서는 안 돼.’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내디뎌야 한다. 상경 부씨 가문에 휘둘러서는 안 되었다.

사실 그녀 외가의 성도 부씨였고, 친가의 성도 부씨였다.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더라도, 성을 바꾸는 일 때문에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이다.

문득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부원령은 모처럼 가볍게 소리 내어 웃었다.

그렇다. 애초에 외할아버지가 부가염을 친자식처럼 대한 것도 그의 성이 부씨였기 때문이다. 태어난 아이의 성도 부씨가 될 테니, 딸을 시집보낸 게 아니라 데릴사위를 들인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분도 이 늑대가 외손녀의 목숨뿐 아니라 부씨 가문의 재산까지 노린다는 사실은 모르셨으리라.

이번에 그들은 시커먼 속셈을 품고 왔다. 그러나 그녀는 갈팡질팡 하느라 선수 칠 기회를 잃지도 않을 것이고, 두 눈이 가려지지도 않을 것이다.

한 걸음씩 신중하게 내디녀야지. 그리고 눈을 깨끗이 씻고 사람의 마음을 똑똑히 들여다볼 것이다.

만약 꿈속의 일이 정말로 벌어진다면, 상경 부씨 가문도 절대 가만두지 않을 생각이다.

* * *

노양부(潞陽府), 부씨 저택.

푸른 벽돌과 검은 기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세 구획짜리 저택에 새벽안개가 가볍게 드리웠다. 흰 안개에 덮인 저택의 모습은 고풍스러우면서도 빼어난 자태를 자랑했다.

저택 안에서는 일찌감치 하인들이 정원을 조용히 청소하고 주방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때때로 뒷문으로 누군가가 들락날락하며, 다들 한창 분주했다.

이문(二門 – 집의 바깥쪽과 안쪽을 구분하는 문) 안 주원(主院 – 저택에서 주가 되는 구역)은 조용했다. 허드렛일을 맡은 하녀는 청소하면서도 까치발을 들고 다녔다. 처마 아래에는 세숫대야, 수건, 비누 등과 뜨거운 물이 담긴 구리 주전자를 든 하녀들이 조용

히 서 있었다.

방문을 열리자 다들 등을 똑바로 펴고 줄줄이 들어갔다. 문을 열어 준 시녀는 짙푸른 색깔의 치마를 입고, 하품하느라 벌어진 입을 가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것들 내려놓고 물러가. 나중에 정리하러 오렴.”

“네.”

다들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가져온 것들을 내려놓고 줄줄이 나갔다. 조용하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이었다.

“중춘(仲春) 언니, 아가씨는 일어나셨어요?”

도홍색 긴 조끼를 입은 소녀가 연홍빛 발을 걸어 올리고 들어왔다. 그녀는 청록색 옷을 입은 여자를 보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물었다.

중춘은 고개를 저었다.

“중하(中夏), 주방에 가서 송씨 아주머니에게 조반은 좀 늦게 들이라고 말하렴. 아가씨가 오늘도 깊이 잠드셨어.”

“네, 지금 갈게요.”

밖으로 나가는 중하의 미간에는 근심이 서려 있었다.

아가씨는 반달 전 병을 한차례 앓은 뒤로는 매일 일어나는 시간이 반 시진 정도 늦어졌다. 의원도 딱히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많은 집안사람이 아가씨 하나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 생각만으로

도 마음이 무거워졌다.

이 무렵, 방금 눈을 뜬 부원령은 서둘러 일어나 앉았다. 몸에 걸친 새하얀 중의(中衣 – 겉옷 아래 받쳐 입는 옷) 덕에 까마귀 깃털처럼 윤이 나는 새카만 머리채가 돋보였다. 이렇게 곱 좋은 머리를 관리하느라 얼마나 돈이 들었는지 모른다.

흰옷과 검은 머리의 대비 때문에 얼굴빛은 희다 못해 푸른 기가 감돌았다. 제대로 자지 못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부원령은 침대 머리에 몸을 천천히 기댔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만져보았다. 따뜻한 숨결이 손끝을 스치자 긴장했던 표정이 천천히 누그러졌다.

그렇다. 그녀는 기폐형을 당해 숨 막혀 죽은 꿈속의 부원령이 아니었다.

“유모.”

“여기 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침실의 발이 걷히고 두씨 어머님이 재빠른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기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한발 앞으로 나와 일어난 아가씨를 부축했다.

“아가씨 안색이 어제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부원령은 젊고 활기찬 유모를 보자 머릿속이 조금 아득해졌다. 꿈속에서 자신을 지키느라 몽둥이에 맞아 죽어 피 웅덩이 속에 누운 유모의 모습을 보았던 것 같다.

코끝이 조금 시큰해졌다. 평소와 다른 기색을 억누르느라 유모의 손을 힘껏 쥐었다.

“음, 이젠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럼 정말 다행이에요. 아가씨가 결정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집에서는 한시라도 아가씨가 없으면 안 돼요.”

두씨 어멈은 정말 기뻐했다. 그녀는 아가씨의 세수 시중을 들라며 큰 목소리로 사람들을 부르더니 요 며칠 집안의 대소사를 느긋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 잠시 말이 끊겼다. 약간 곤란하다는 듯 표정도 조금 언짢아졌다.

부원령은 상경 부씨 가문에서 온 사람 때문임을 알고 있다. 그녀도 지금 당장 그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바로 말했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만 하지. 일단 급한 일부터 처리하고, 나머지는 잠시 미뤄 뒀.”

두씨 어멈은 이 말을 듣자 안심이 된 모양이었다. 명랑한 웃음을 띠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관사(일반 하인보다 높은 관리직)들은 서쪽 화청(화원이나 내원에 있는 응접실)에서 기다리라고 할까요?”

“반 시진 뒤에 갈게.”

부원령은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다.

“관사들에게 차를 마시면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으라고 해. 장부 검사는 예전 방식대로 할 거야.”

“네.”

두씨 어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원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더니 바로 말했다.

“애가 왜 이제야 오니. 아가씨 조반 시중을 들어야지.”

두씨 어멈이 하는 소리에 원례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 인기척을 듣고 당장 주방으로 달려갔지요. 송씨 아주머니에게 지금 달걀찜을 불에 올리라고 했거든요. 너무 일찍 끓여버리면 달걀찜이 질겨질 텐데, 아가씨가 어떻게 드시겠어요.”

두씨 어멈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나갔다.

부원령도 채비를 마쳤다. 눈앞의 생기발랄한 시녀들을 보자 꿈속의 일이 아득하게 생각났다. 그녀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생각하자 가슴속이 조금 먹먹해졌다.

시녀들은 하나같이 총성스럽고 착한 소녀들이었다. 안타깝게도 꿈속의 그녀는 스스로 판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꽃다운 나이의 시녀들까지 모두 끔찍한 결말을 맞게 했다.

그 꿈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다. 꿈속의 일이 모두 현실과 겹치는 것을 보고 있으려니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부원령의 곁에는 큰 시녀인 원례, 원지(元智), 원신(元信)과 작은 시녀인 중춘, 중하, 중추(仲秋)가 있었다. 다들 사내아이 같은 이

름이었지만, 이는 그녀의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직접 지어준 것이었다. 이 집안 주인이 여자이다 보니 음기가 강해, 강한 이름으로 그 기세를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그 바람에 집안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걸까. 모두 그 황량몽에서 함께 죽음을 맞이했다.

‘원’ 자 돌림의 시녀들은 그녀의 어머니가 인신매매범 손에서 구해낸 아이들이었다. 그녀들은 하마터면 더러운 곳으로 팔려 갈 뻔했기 때문에 충성심이 대단히 강했다. 부원령도 그녀들을 시녀로 대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녀들은 자신을 버리지 않았는데, 자신은 그녀들을 저버린 꼴이었다.

자기 때문에 아까운 목숨을 잃게 만들다니, 생각만으로도 정말 한스러웠다.

방금 만들어진 달걀찜은 입자가 곱고 부드러웠다. 참기름을 살짝 두르고 고수를 뿌린 것을 한 입 먹자 바로 새우살이 씹히며 입안에 신선함이 가득 퍼졌다.

기억 속의 그 맛이었다. 부원령은 심각하게 한 입 한 입 삼켜가며 비웠다. 옆에서 시중을 드는 시녀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하면서 속으로 안절부절못했다.

‘오늘따라 아가씨가 왜 저러시지. 조금 겁을 내시는 거 같아.’

부원령은 달걀찜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쓱 훑어보았다.

“원례와 원지는 나랑 서쪽 화청으로 가자. 나머지는 고방(庫房-창

고)의 장부를 정리해서 오늘 저녁에 다오.”

시녀들은 조금 어리둥절했다.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걸까?’

3화 노비 계약

원신이 앞으로 나서 이해가 안 된다는 듯 입을 열었다.

“아가씨, 왜 갑자기 고방의 장부를 정리하려고 하세요? 겨우 석 달 전에 정리했는데요.”

주인아씨가 석 달 전에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바람에 모녀 단둘이 지켜온 재산을 노리고 집 안팎으로 시시비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다행히 그녀들의 아가씨는 대단했다. 그녀는 부씨 가문에서 새로 찾아낸 광산을 내놓고 지부(知府 – 부의 행정 장관) 대인을 불러 와서 이들을 제압하고 나서야 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데 멀쩡한 고방의 장부를 정리해야겠다니. 무엇이 불안하신 걸까?’

* * *

서쪽 화청에는 관사 십여 명이 앉아 있었다.

문에 드리워진 발이 흔들리더니 날씬한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다.
뒤에 거느린 시녀들과 어멈들도 그 기세가 당당했다.

그 광경을 본 모두는 가슴이 떨려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예를 행했다.

“아가씨를 뵙습니다.”

눈앞의 이 아가씨는 고작 열네 살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주인
아씨가 세상을 떠난 뒤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혔다. 이제는 아무도 그녀를 얹볼 수 없었다.

나이를 믿고 어린 주인의 머리 위에 기어오르려던 몇몇 관사는 일
찌감치 쫓겨났다. 부씨 가문에서 쓰지 않는 관사는 노양부의 어느
집에서도 감히 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서 더는 발붙이고
살 수가 없어 식구들을 데리고 타향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가 나이는 어리지만 속은 단호했다.

“다들 앓게.”

부원령은 상석에 앉았다. 맑고 날카로운 눈빛이 모두를 훑었다. 그제야 입꼬리에 서서히 웃음기가 떠올랐다.

“여기까지 또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하지만 이제 곧 연말이고, 장부도 곧 인계해야 하니 더는 미룰 수가 없었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일 년에 장부를 두 번 인계하는 건 원래 정해진 규칙이니 따라야지요.”

“마땅히 그리해야지요.”

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각자의 옆에는 녹나무를 투각해서 만든 탁자가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씩 놓여 있었다. 관사들은 하나둘 보따리를 풀어 장부 한 무더기를 꺼내 보았다.

“올해 남방에는 비가 적게 내려 가뭄이 좀 심했습니다. 덕분에 소출이 작년보다 삼 할이 줄었습니다.

우리 부씨 가문 소유의 전장(田莊 - 밭과 장원)에서는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저수지를 파고 도랑을 냈습니다. 소작인들도 오랫동안 주인아씨와 아가씨의 은혜를 입었으니, 가뭄 때 서로 돌아가며 밤을 새워서 물을 퍼다 밭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이 작년보다 줄기는 했지만, 전장 열세 곳에서 소작료로 총 구천팔백십칠 냥을 거뒀습니다.”

전장과 경작지를 총괄하는 대관사 하평(賀平)이 여유롭게 보고했

다. 자기 공을 내세우지도,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은 태도로 몸을 꼴꼴이 세우고 있었다.

다들 가뭄 피해를 보았다. 그나마 그들의 손실이 제일 적어, 작년보다 일천여 냥이 적을 뿐이었다.

하평은 조심스럽게 아가씨의 안색을 살폈으나, 아가씨의 표정은 평소처럼 태연해서 아무 감정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바람에 그도 자신감이 없어져 말을 마친 뒤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다.

계속해서 각지의 포목점, 차 도매점, 약재상, 미곡상 등을 관리하는 관사들이 하나하나 보고했다. 하지만 이건 모두 큰돈이 되는 장사가 아니라, 전부 합쳐도 십여만 냥 정도였다.

사실 부씨 가문의 가장 큰 수입원은 그들이 소유한 옥 광산, 석탄 광산, 금광 세 군데였다.

이 세 군데 사업은 모두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남들은 부씨 가문이 전장이나 점포를 운영하는 줄로만 알았을 뿐,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줄은 몰랐다.

이 세 광산을 맡은 관사들은 다른 관사들과 함께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루 늦게 왔다.

부원령은 여러 관사의 보고를 듣고 난 뒤 미간에 희미한 웃음기가 떠올랐다.

“어쨌든 올해 수입은 작년보다 이 할이 늘었군. 전부 여러분의 공로일세. 모두 수고 많았네.”

다들 서둘러 검양의 말을 했다. 이 아가씨를 우습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예전에 주인아씨가 장관할 적에는 조금 느슨한 편이라서 스리슬쩍 넘어가기도 했었다. 그러나 새로 주인이 된 분은 친척에게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는 포공(包公 – 중국 북송 시대의 관리 포증을 가리키며 청렴함의 대명사)이 따로 없었다.

찾아내지 못하면 모를까, 일단 장부에서 이상한 부분이 밝혀지면 그날로 끝장이었다. 과거 몇몇 관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생각하면, 그들 중 허튼수작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부원령은 인사치레를 마치고 화제를 돌렸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며 여전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장부를 회계에게 넘겨 검사하게 하게. 그리고 여러분과 상의할 일이 있으니 잠시 남아 주게.”

관사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가씨에게 무슨 용건이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았지만, 누구도 안 된다는 말은 선불리 말할 수 없었다.

장부를 검사할 회계는 일찌감치 편전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원례가 데려온 허드렛일 하는 할멈들이 재빠르게 장부를 들고 갔다. 눈 깜짝할 사이에 화청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원지가 어린 하녀들을 데리고 와서 관사들의 식은 차를 새로 우린 차로 바꾸어 주었다. 그리곤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 문 앞을 지켰다.

그 기세에 열몇 명이나 되는 관사들은 점점 불안해졌다. 서로 얼

굴만 바라보다가 또 상석에 앉은 아가씨의 진중한 모습을 보았다. 연꽃 줄기 모양이 그려진 찻잔을 든 고급 도자기 같은 섬섬옥수는 백자보다 더욱 희었다.

모두는 그녀를 흘끔 보았을 뿐, 더는 볼 엄두를 못 내고 당장 고개를 돌렸다. 이제 모두의 눈빛은 하평과 척약중에게 향했다. 어쨌든 이 둘이야말로 이들의 우두머리 격이었기 때문이다.

하평과 척약중의 시선이 마주쳤다. 척약중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더니 아가씨를 보며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아가씨, 분부가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이 늙은이들은 절대 두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두말했다가는 당장 쫓겨나 의지할 곳도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으니 당연히 경거망동할 수 없었다.

부원령은 이 말을 듣자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다. 꿈속의 자신은 관사들에게도 당연히 섭섭지 않게 대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던가? 이들은 상경 부씨 가문에 매수되어 당장 그녀를 배신하고 그녀의 재산을 암암리에 팔아 치워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이들 중 매수되지 않은 사람은 단둘, 하평과 척약중뿐이었다. 그러나 이 둘도 상경 부씨 가문에서 배척을 받아 더는 견디지 못했다. 마지막에는 몸이 불편해 은퇴한다는 구실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가엾게도 그녀는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진상을 알았다. 그러나 그때의 그녀는 자기 몸도 제대로 보전하기 힘든 처지였으니,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노릇이었다.

“큰일을 상의하려 하니 잘 들어주시게.”

부원령의 눈에 떠오른 싸늘함이 점점 사라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상을 치르느라 관사들 사이에서도 소동이 있었지. 이 몇 달 동안 줄곧 생각해 오던 일일세.”

이 말을 들은 모두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그들 모두 그 일과 무관하지 않았다. 순간 얼굴에도 조금씩 무안함이 떠올랐다. 다들 아가씨가 그때의 일을 보복하려는 거라 여기고,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부씨 가문에서 주는 월급은 매우 후했다. 보통 부씨 가문에서 관사 노릇을 해 보면 자연히 다른 곳으로 쉽게 옮겨갈 생각을 못 했다. 저번에는 그들도 남들에게 총동질 당하자 순간 판단력이 사라졌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들 중 하평과 척약중만이 그때도 흔들림이 없었고, 참여하지 않았다.

“부씨 가문은 외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 어머니까지, 관사들에게 달마다 급료를 주고 연말에는 상급을 주었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자 소란이 벌어졌으니, 나도 돌이켜 볼 때마다 불안해지네. 계속 악몽을 꾸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해서 반달 넘게 누워 지냈지.....”

부원령은 말하면서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모습이었다.

모두의 주름 잡힌 미간에는 슬그머니 불안함이 떠올랐다.

‘아가씨가 도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

“몇 달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으니 말해 보겠네. 예전 부씨 가문에서 관사들에게 월마다 급료를 주고 연말에 상급을 주던 규칙을 오늘부터 바꾸려고 하네.

만약 예전과 같은 일이 벌어지면 연약한 여자 혼자서는 그 근심을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뒷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지.”

여기까지 말한 부원령은 모두의 표정을 자세히 살펴본 다음 말을 이었다.

“나는 부씨 가문 점포와 전장의 관사들이 월급뿐만 아니라 연말에 이윤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네. 매 점포, 전장마다 난 수익 중 일 할을 관사들에게 나눠주겠네.”

이 말이 나오자 모두의 반응은 뜨거운 기름에 찬물이 떨어진 듯 불꽃이 튀어 올랐다. 다들 자기가 환청을 들은 줄 알았다.

‘수익의 일 할이라니?’

전장만 가지고 따져 보더라도, 올해 거진 이만 냥의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의 일 할이라면 이천 냥이나 됐다.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었다.

모두는 호흡마저 가빠지기 시작했다. 올해 각 점포에서 올린 수익을 합쳐 보면 십몇 만 냥이나 되는데, 이 수익의 일 할이면 이만

냥에 가까웠다.

‘여기서 얼마나 나누어 줄까?’

‘여기에 월급까지 합하면 한 해의 수익은.....’

더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다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다.

“단, 조건이 있네. 이 이윤을 나누어 받으려면 우리 부씨 가문과 종신 노비 계약서를 써야 하네. 삼대가 지난 뒤에는 노비 문서를 돌려받고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네.”

모두의 얼굴은 웃음이 사라지기도 전에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다.

‘노비 문서?’

‘노비 계약?’

‘그게 말이나 되나!’

부원령은 모두의 표정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못 본 듯 가볍게 탄식했다.

“이것도 어쩔 수 없네. 어쨌든 모두가 날 해친 적이 있잖은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라는 법이지. 지금 나는 천애고아다 보니 내 몸을 지킬 방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네. 모두 양해해 주기 바라네.”

양해는 그렇다 치자. 다들 자기가 예전에 저질렀던 불성실한 짓거

리를 뻗히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노비 계약을 맺는 건 아예 수준이 다른,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몇몇은 참지 못하고 폭발하려고 했다. 부원령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했다.

‘오늘 이대로 놔주면, 나중에 분명 배신할 테지?’

그녀는 꿈속의 어리석은 자신이 갔던 길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다. 새로 살길을 마련해야 했다.

마음이 무른 사람은 끝맺음이 좋지 못한 법이다.

그러니 나중에 너 죽고 나 살자고 하느니, 차라리 각자 제 갈 길 가는 게 나았다.

그녀는 상경에 가기 전에 반드시 노양부의 터전을 닦아 놓기로 했다. 남에게 독하다고 욕을 먹더라도 남의 손에 죽는 것보다야 나았다.

“말은 노비 계약서이지만, 나도 그렇게 독한 사람은 아니네. 자네들 가족 전부와 노비 계약을 하자는 게 아닐세. 한 세대에서 한 사람하고만 하면 되네. 그러면 다음 세대에는 자네들의 아들이나 손자 중에서 후계자를 골라 관사 자리를 물려줄 수 있네.”

4화 정말 상경에 가시게요?

모두는 또 어리둥절했다.

‘아가씨의 말이 무슨 뜻일까?’

다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다가 또 하평과 척약중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하평이 먼저 나서 고개를 들었다가 아가씨의 태연자약한 새카만 눈과 마주쳤다. 그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심호흡하고 겨우 입을 열었다.

“아가씨, 그럼 관사 자리는 앞으로 각 집안의 후계자가 이어받는다는 뜻입니까?”

“당연하네. 기왕 노비 계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자네들의 충심을 저버리지 않을 거야. 단, 자네들이 고른 후계자도 마찬가지로 노비 계약을 해야 인정해 줄 걸세.

하지만 일단 계약하면 부씨 가문에서는 당연히 그들이 훌륭한 대관사가 되도록 교육하는 데 전력으로 뒷받침하겠네.”

하평은 마음이 동했다. 슬그머니 척약중을 보자, 둘이 눈이 마주쳤다.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들 같은 사람이 관사 노릇을 해서 받는 급료는 한 달에 고작 몇 십 냥, 만약 일을 잘하면 연말에 상급을 받을 수는 있었다. 부씨 가문은 후한 편이었지만 그래도 일백 냥 정도였다. 일 할의 이윤에 비하면 형편없는 금액이었다.

그들 같은 출신이라면 집에서 선비를 내서 신분 상승을 꾀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으나, 집에서 과거 급제자 하나를 내는 게 어디 그리 쉽겠는가. 훌륭한 스승을 모실 연줄도 없거니와, 돈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수업료도 내기 힘들고, 공부하는 동안 소모되는 지필묵을 사기도 벅찼다. 과거 급제의 길은 온갖 어려움이 가득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이다.

장래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기 위해 아버지가 관사라면 자식들도 관사가 되는 방향으로 교육하기 마련이었다.

사실 따져 보면 이 노비 계약서라는 게, 그들에게는 아들의 장래를 위한 길과 다를 게 없었다.

노비 계약서를 쓰면 주인의 사업을 신경 써서 경영하게 되고, 매년 이윤을 받게 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몇 년 뒤엔 선비 하나 정도는..... 아니, 셋이든 다섯이든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때쯤 되면 후손들은 정말로 신분 상승할 가망성이 생긴 것이다.

부원령은 하평과 척약중의 눈빛에 담긴 감정을 읽었다. 속으로 한 시름을 놓고 몸을 일으켰다.

“다들 서두를 것 없네. 오늘 잘 생각해 보고 내일 대답해 주면 되네. 여러분이 승낙하지 않으면 나도 새로운 관사를 물색해야 하니까 사전에 준비해야 하거든.”

‘저게 무슨 말인가?’

‘승낙하지 않으면 당장 사람을 갈아치우겠다고?’

부원령이 자리를 뜨자마자 화청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어느 집 관사가 노비가 된다던가? 이게 가당키나 한가?”

약재상을 관리하는 관사가 잔뜩 화난 얼굴로 말했다.

“금시초문일세. 이걸 말도 안 돼. 가족과 상의를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을 걸세.”

미곡상의 지배인도 말을 이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이대로 계약할 건가? 이게 소문이 라도 나면 앞으로 남들 얼굴을 어찌 보고 다니나? 관사가 노비가 되다니, 이게..... 세상천지에 이런 우스꽝스러운 노릇이 어딤 나!”

다들 기본적으로는 그다지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쿵저러 쿡하면서도 결국 뭐라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자기 나름 대로 계산하느라 바빴다.

마지막에는 다들 찌뽀하게 헤어졌다. 하평과 척약중은 마지막으로 일어나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하평이 척약중에게 물었다.

“척씨, 자네 생각은 어떤가?”

척약중은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거 사람 떠볼 생각 말게. 내가 자네를 모르나? 자넨 그럴 생각이

있는 게지?”

“한잔하겠나?”

“가세.”

두 사람은 부씨 저택을 나서 자주 가는 술집으로 갔다. 요리 두세 가지에 오래 묵은 술 한 주전자도 주문했다. 술이 두어 잔 들어가고 나서야 아까 이야기가 이어졌다.

하평은 고개를 떨어트리고 척약종을 보지 않으며 혼잣말하듯 입을 열었다.

“내 아들 대에는 인물이 없어. 잘해 봐야 날 따라 장부 관리하는 법이나 배우겠지. 대관사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도 몰라.”

척약종은 하평의 아들을 본 적이 있었다. 아이가 성실하기는 했으나 제 아버지만 한 재간은 없는 게 사실이었다.

“자네도 내 손자 만월주(滿月酒 –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음을 축하하며 마시는 술)를 마시러 왔었지? 그 애는 이제 고작 서너 살인데도 아주 똑똑해. 잘 가르치면 나보다 훨씬 나을지도 몰라. 우리 조손 삼대가 잘 헤쳐나가면, 증손자 때쯤에는 아가씨가 주신 이윤을 모아 한밑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척약종은 그 말을 이해했다. 삼대에 걸쳐 재산을 모아 두었다가 때가 왔을 때 쓰는 것이다. 만약 그때까지도 부씨 가문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면, 몇 대에 걸친 충성심을 보아서라도 그들 집안을 어느 정도 돌보아 줄 것이다. 만약 증손자가 정말로 과거를 보고 합격이라도 하면, 정말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신분 상승을, 가문을 빛내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척약중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가씨가 이런 방법을 내놓을 줄 정말 몰랐네. 확실히 좀 놀랍긴 했어.”

하평이 그 말을 듣고 싸늘한 웃음소리를 냈다.

“주인아씨께서 그리 가시고 아가씨 혼자 남았네. 그 정도 수원이 없었으면 진작 뺏골까지 발라 먹혔겠지.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저번에 관사들이 그 난리를 쳤는데도 이런 조건을 내놓은 건 정말 관대한 처사가 아닌가.”

“자네는 결정했나?”

척약중은 조금 놀랐다. 하평이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다.

“음, 나도 내 아들이 될성부른 놈은 아니란 걸 생각해야지. 아가씨 말대로 하면 관사 자리는 내 아들놈 것일세. 그런데 거절하면 내가 늙고 난 다음에는 그놈 능력 가지고는 식구들 부양도 못 할 걸세.....”

하평이 쓴웃음을 지었다.

척약중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이 대관사 노릇이란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 * *

그 무렵 부원령은 고방으로 가서 장부를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다. 몇 대에 걸쳐 쌓은 재산이다 보니 매우 풍요로워서, 고방에 도대체 뭐가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꺼운 장부를 열 몇 권이나 보고 있으려니 눈이 조금 어질해졌다.

‘고작 고방에만 해도 이렇게 많았나?’

또다시 꿈속의 그녀가 어머니를 잃고 매우 상심했던 모습이 떠올랐다. 때마침 부씨 가문에서 그녀를 찾아오더니, 온갖 감언이설로 꼬드쳐 상경 부씨 가문으로 데려갔다. 상경 부씨 가문에서는 가족의 정이라는 구실을 갖다 붙여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당시 그녀는 비통하게 눈물을 흘리며 후회를 토로하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의 ‘진정한 사랑’에 감동해서 좋은 물건을 적지 않게 내놓았다.

상경 부씨 가문 사람들의 연기는 매우 뛰어났다. 그녀는 자신이 똑똑하다고 자부했지만, 어릴 적 결핍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눈이 흐려졌다. 따뜻한 애정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속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 남자는..... 구역질이 나!’

아무래도 상경 부씨 가문에서 왔다는 사람을 만나야 할 모양이었다. 만약 꿈에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상경으로 가는 일은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했다.

상경은 반드시 가야 했다. 제 발로 가든 등쌀에 못 이겨 가든,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상경 부씨 가문에서 먼저 손을 쓰기 전에 자신이 먼저 기선을 제압하는 게 나았다. 이번 생에 아비인지 뭔지를 인정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기에 방법을 생각해 내야 했다.

부원령의 큰 시녀 셋은 맡은 일이 각자 달랐다. 그중 원신은 주로 아가씨 신변을 정리 정돈하고 바깥출입 하는 일을 맡고 있었으나, 조금 전 아가씨가 원래 이 일을 맡았던 원례를 다른 곳으로 보냈다. 원래 고방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원신은 잠깐 대신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

아가씨가 미간을 찡그리자, 원신은 자기가 무언가 잘못했나 싶어 앞으로 나가 말했다.

“아가씨, 원례를 불러올까요? 이런 일은 원례가 잘 아니까요.”

그 말을 듣자 부원령은 그제야 원신이 원래 이쪽 일을 맡지 않았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시녀에게 자신의 이상함을 들킬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원례를 불러와. 난 머리가 좀 아프구나. 이것들을 보고 있으려니 눈이 좀 어지러워. 원례가 본 다음에 말해 주면 돼.”

그 황량몽 속에서 십 년의 세월을 보냈다. 꿈에서 깨어난 뒤에는 정말로 십 년이라는 세월을 산 기분이었다. 사소한 일들은 조금씩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원신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몸을 돌려 원례를 부르러 나갔다.

원례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던 중에 아가씨가 고방 일을 묻는다고 듣자, 최근에 정리한 참이라 따로 준비할 필요도 없어서 바로 대답하러 들어왔다.

“아가씨.”

그녀는 아가씨를 부르더니 탁자 위에 한가득 쌓인 장부를 보고는 바로 웃었다.

“원신이는 어쩔 이걸 다 들고 왔담. 결산한 것들도 섞여 있어요.”

원례가 하는 말을 듣자, 부원령도 생각나는 게 있어 웃으며 말했다.

“그렇구나. 얼마 전에 크게 돈 쓸 일이 있어서 고방에 있던 물건을 돈으로 바꿨었지.”

원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얇은 장부 서너 권을 빼고 나머지는 한데 쌓아 두 무더기로 나누면서 설명했다.

“이 몇 권은 결산한 거예요. 이것들은 석 달 전에 새로 만든 장부이고요.”

원례는 말도 시원시원했고 일 처리도 야무졌다. 장부에 관한 일을 전부 확실하게 보고했다.

“올해 각 점포에서 보낸 새로운 무늬의 비단과 차 도매상에서 보낸 새 차, 약재상에서 보낸 약재는 전부 장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것들 말고도 광산에서 오는 것들은 며칠 뒤에 도착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고방에 있는 물건들도 몇십만 냥은 되니까, 급전이 필요하시더라도 걱정할 건 없어요.”

원례는 아가씨의 씹씹이가 큰 걸 잘 알았다. 한 번 썼다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만 냥은 기본이었기에 장부에 관련된 일은 똑똑히 기억해 두었다.

부원령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어쨌든 상경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가지 않는다 해도 노양부에서 편히 지내기는 힘들 것이다.

단, 그녀가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상경 부씨 가문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상경으로 이주하게 된다면, 이 고방의 물건만 해도 너무 눈에 띄었다.

“원례야.”

“네, 아가씨.”

“고방에서 어머니가 남긴 물건 말고, 요 몇 년 동안 각지에서 보낸

귀중품과 나머지는 전부 금으로 바꿔 뒀.”

“전부요?”

원례는 깜짝 놀란 나머지 목소리마저 조금 떨렸다.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보름이면 충분할까?”

“서두르면 될 거예요.”

원례가 살짝 미간을 찡그렸다.

“하지만 아가씨, 이렇게 많은 물건을 한꺼번에 내놓으면 바깥사람들이 분명 의심할 거예요. 나중에는.....”

“괜찮아. 누가 묻거든 우리 가문 사업을 상경으로 확장할 거라고 해. 그쪽에 전장과 상점을 차릴 거라고 하면 돼.”

“상경요? 아가씨, 정말 상경에 가시게요?”

원례는 조금 불안해졌다.

‘멀쩡한 집을 놔두고 상경에 뭐 하러 가시는 거지? 그냥 노양부에 계시면 얼마나 좋아.’

“응. 가서 일 보렴.”

부원령은 더는 말할 생각이 없었다. 지금은 말을 많이 해 봤자 득 될 게 없었다.

꿈속의 일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겠는가. 게다가 자기가 그렇게 어리석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

5화 데릴사위를 들어도 되지요

원례가 나간 뒤, 부원령은 원신을 보며 말했다.

“부의(傅義) 아저씨를 모셔와.”

부원령의 외할아버지인 부 어른신이 살아있을 적에 곁에 두고 부리던 능력 있는 수하들은 모두 성을 부씨로 바꾸었다. 부현(傅賢), 부의(傅義), 부정박(傅丁博) 덕분에 어머니의 상을 치를 때도 다른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었다.

“아가씨,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부의가 당장 건너왔다. 그들은 언제든 아가씨를 지키기 위해 부씨 저택에 머물고 있었다.

“아저씨, 앉으세요.”

부원령은 의자를 권하며 말했다.

부의도 아가씨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었다. 사양하지 않고 공수를 하더니 바로 자리에 앉았다.

“아저씨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모셨어요.”

부원령은 웃음소리를 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전 상경으로 가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러니 아저씨가 먼저 상경으로 가서 살 만한 집 좀 구해 주세요. 그다음 우리가 인수할 만한 적당한 점포나 전장이 있는지도 봐 주세요.”

부의는 깜짝 놀랐다.

“아가씨,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상경으로 가시게요?”

부원령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양부 일은 아저씨도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고아인 저 혼자 남아 봤자 좋은 일이 없을 거예요. 남들이 우리 집안 사정을 살살이 다 아는 마당에, 나쁜 마음이라도 품으면 솔직히 막으려야 막을 수도 없어요.”

이 말을 들을 부의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아가씨의 걱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요 몇 달 동안 토박이 건달이며 무뢰한들이 사방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이게 아가씨에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도 경성처럼 낯선 곳에 꼭 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아가씨 나이도 찼고,

데릴사위를 들어도 되지요.”

“데릴사위요?”

부원령은 깜짝 놀라 부의를 바라보았다. 부의 아저씨가 이런 건의를 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꿈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다. 이 무렵 상경 부씨 가문에서는 가족과 상봉해야 한다는 구실로 그녀를 상경으로 데려가 버렸기 때문에 자연히 부의 아저씨도 이런 말을 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 꿈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네, 부씨 가문의 이 큰 사업을 계속하지 않으실 겁니까? 데릴사위를 들이는 게 무슨 남부끄러운 일도 일도 아니고, 게다가 부씨 가문 정도면 거인(擧人 - 향시 급제자) 정도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부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큰소리를 쳤다. 아가씨가 고아라고 해서 남편감으로 아무나 데려올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반면 부원령의 생각은 달랐다. 부씨 가문은 어쨌든 상인 집안이었다. 돈이 좀 있기는 하지만, 절개가 있는 선비 중 이런 환경을 마음에 들어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게다가 상인 집안 여식을 정처로 맞이했다가 나중에 높은 관직에라도 오르면 남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부의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는 건 부씨 가문을 너무 대단하게 평가한 셈이었다.

꿈속의 자신이 만약 상경 부씨 가문으로 돌아가서 그 집안 딸이 되지 않았더라면, 다른 사람들도 그녀를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런 높은 평가가 죽음이라는 재앙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때로는 신분이란 것이 정말 중요하기도 했다.

단,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꿈속의 그 어리석었던 일을 되풀이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더욱 쓸 만한 신분을 얻을 수 있게 꼼꼼히 계획을 세워야 했다.

“아저씨, 상인 집안의 딸을 처로 맞이하는 건 선비들에게는, 특히 장래 관리가 되려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아닐 거예요.”

아가씨의 말을 듣자 부의는 순간 멍해졌다. 사실 그라고 해서 몰랐던 건 아니지만, 단지 약간의 요행을 바랐을 뿐이다.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훌륭하니, 아가씨가 더욱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저씨, 그런 일은 저도 생각해 둔 게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이 더욱 중요해요. 아저씨께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부현 아저씨와 부정박 아저씨는 가지 못하니까요.”

아가씨의 강경한 어조를 들어 보니 마음을 정했음을 알 수 있어, 부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가서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지요.”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수고해 주세요. 회계에게 이야기해서 은자는 많이 챙겨 가시고요. 적당한 곳을 찾거든 저한테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직접

결정해 주시면 돼요.”

부익은 문득 자기 어깨에 놓인 짐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알겠습니다. 아가씨께서 절 믿어 주시니 내일 출발하지요.”

그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아가씨께 여쭙 일이 있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인데요?”

부원령이 물었다.

부익은 선뜻 입을 열지 못하다가, 아가씨의 맑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정했다.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지요. 상경 부씨 가문에서 온 사람 말입니다.”

“아, 아저씨도 아셨군요. 부헌 아저씨와 부정박 아저씨가 이야기한 모양이네요.”

부원령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부익은 며칠 전 나가서 일을 처리하느라 상경 부씨 가문에서 왔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돌아오자마자 부헌과 부정박이 그를 잡아 끌고 이 일을 알려 주었고, 마음속으로 걱정이 일었다.

‘아가씨가 갑자기 이렇게 저들을 따라가 버리면 어쩌나. 그 상경

의 부씨 가문이 어떤 곳인 줄 누가 아는가.’

부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모두 걱정이 됩니다. 아가씨께서 어찌하실 생각인지 제가 첩판을 깔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저씨,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저씨들을 모두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 한마디 묻는 게 뭐 별일이라고요. 저도 터놓고 말씀드릴게요.

그 상경에서 왔다는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 제가 누구의 딸이라고 하는데, 말 몇 마디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입을 열자마자 자기네 마님이 어찌고 들먹였어요. 우리 어머니는 애초 아버지와 혼인할 적에 종매인을 두고, 삼서육례(三書六禮 – 옛 중국 혼인에서 치러야 하는 여섯 가지 과정과 그에 필요한 세 가지 문서)도 전부 갖추어 정식으로 혼인했어요.

만약 제 아버지가 따로 장가를 들 거였다면 먼저 휴처(休妻 -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장을 써 주고 헤어지는 일)라도 했어야죠. 그러니 저들이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거예요.”

부원령의 얼굴에는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나오는 말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고 말고요. 증거 하나 없이 이렇게 가족이랍시고 우기다니. 우리 부씨 가문을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부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바로 콧방

귀를 끼고 말했다.

“둘 다 성이 부씨라고 해서 그쪽 부씨 가문 사람이라는 법이 어딴 겁니까? 분명 주인아씨께서 세상을 떠나신 걸 알고, 부씨 가문 재산을 노리고 온 게지요.”

부원령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굴리더니 바로 웃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기왕 상경에 갈 거라면 우리도 그쪽 부씨 가문에서 하자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가면 되지요. 그러니 이번 상경 행은 전부 부의 아저씨께 달렸어요.”

부의는 갑자기 어깨에 진 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당장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상경 부씨 가문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 아가씨도 얼굴을 내밀 필요가 없습니다. 부현을 보내서 그들과 교섭하라 하면 됩니다. 어디 아가씨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나 만날 수 있는 분이랍니다.”

부의가 가고 나자 부원령은 의자에 한참 앉아 있다가 가볍게 소리 내어 웃었다. 어쩌면 하늘이 고아가 된 그녀를 가없이 여겨 그런 꿈을 꾸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 비열한 수단을 품은 뻔뻔한 사람들을 더욱 철저히 막을 수 있도록.

솔직히 말해 상경 부씨 가문에서 사람을 보내 그녀를 친자로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꿈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심 기대를 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가 정신을 더욱 바짝 차리게 했다. 그 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어쩌면 귀신 이

야기나 거리의 뜬소문에 나오는 기연(機緣)에 더욱 가까울지도 몰랐다.

기왕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기연을 얻었는데도 또다시 꿈처럼 살아가는 정말 바보가 되는 꼴이었다.

* * *

다음 날이 되자 광산의 관사들도 부씨 저택 편원(偏院 – 저택에서 옆쪽에 위치한 구역)에 도착해 부원령의 부름을 기다렸다.

그와 동시에 다른 관사들도 하룻밤 내내 상의를 거쳐 결정을 내렸다.

부원령은 시녀들을 거느리고 예전처럼 똑같이 서쪽 화청에 앉았다. 관사들이 쪽지를 올리면, 그걸 한 번 훑어보고는 원례에게 주었다.

원례는 쪽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한 후 어제의 요청을 승낙하는 쪽과 거절하는 쪽 둘로 나누었다. 그리고 둘로 나뉜 쪽지 무더기를 아가씨의 손 닿는 곳에 살그머니 놔두고서 자신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시립했다. 이 모든 과정이 잡음 없이 조용하게 처리되었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소리 없는 위압감을 느꼈

다.

부원령은 대강 살펴본 뒤 웃으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결정을 내렸으니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세.”

열몇 명이 넘는 관사 중 하평과 척약중,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있는 두 소관사(小管事)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원령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를 보건대 이들은 무리를 지어 그녀에게 대항하고, 머릿수로 위협해 자신이 굴복하게 만들 셈이었다.

“부현 아저씨.”

“네.”

화청 밖에 있던 부현은 부름을 듣자 당장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와 포권(抱拳) 했다. 듄직한 체구의 소유자가 화청 한가운데 위풍당당하게 서 있으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하평 일파를 제외한 관사들의 표정이 흐려졌다.

“모두 두려워하지 말게. 부현 아저씨를 모신 건 자네들과 인수인계를 하려는 것뿐이니까. 다들 결정을 내렸으니 부씨 가문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일세.

하지만 오랜 세월 함께 일했으니 기분 좋게 헤어져야지. 약소하지만 사례를 준비했으니 부디 받아 주시게. 앞으로 여러분의 앞날이 더욱 창창하기를 바라네.”

부원령은 이 관사들과 함께하기 어려울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어젯밤 부현에게 말해 준비해 두고 오늘 부현은 부씨 저택의 호위대를 한데 모아 화청 바깥을 지키게 했다. 만약 일이 조용히 끝나면 상관없지만, 정말로 소동이 벌어진다 해도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소란을 피우려던 관사들뿐만 아니라, 하평 일파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을 줄은 몰랐다.

부씨 가문의 호위들이 있는 상황에서 닭 잡을 힘도 없는 관사들이 감히 소란을 피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살기등등하고 신체 건장한 호위들과 사무를 보던 이들을 어찌 비교할 수 있겠는가.

부원령도 과유불급을 잘 알고 있었기에 모두에게 두 달 치 급료를 나눠 주었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후한 대우였다. 나중에 누가 이 일을 거론하더라도 부씨 가문에서 인정머리 없이 굴었다는 말은 못 할 것이다.

아가씨가 깔끔하고 과감하게 일을 처리하자, 하평과 척약중은 저도 모르게 한시름 놓았다. 다행히 그들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었다. 확실히 아가씨를 따르는 편이 전도유망했다.

6화 하늘에서 떨어진 떡

부현이 거느린 호위들은 일을 그만두기로 한 관사들을 데리고 나

갔다. 이제 부원령은 하평, 척약중과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제 우리 상점과 전장에 일을 볼 사람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네. 이 일은 두 사람이 신경 써서 처리해 주어야겠네. 부씨 가문에서 내놓은 조건이 조금 독특하기는 하지만 대우는 가장 좋으니까, 분명 사람을 구하는 게 힘들지는 않을 걸세.”

지금 부원령은 이 일에 따로 신경 쓸 겨를이 없기에 하평과 척약중, 두 사람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기왕 중용하기로 했으니 당연히 공짜로 부릴 수는 없었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두 사람이 총관사(總管事)가 되어 주게. 한 명은 장원과 밭을 관리하고, 한 명은 상점을 관리하게. 매년 배당은 다른 관사들보다 절반 이상을 더 받게 될 걸세.”

이 말이 나오자 하평과 척약중은 깜짝 놀라며 바로 얼굴에 기쁨이 떠올랐다. 아가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을 발탁하겠단 뜻이었다.

이번에 여러 곳의 관사를 뽑는 건, 그들을 시험하려는 게 분명했다.

둘은 아무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절반이 넘는 배당은 매년 몇백 냥이나 되는 큰돈이었고 만약 제대로 하기만 하면 나중에는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충심을 보였다. 마음속으로는 따를 사람을 제대로 골랐다고 기뻐하고 있었다.

‘아가씨는 정말 후덕하고 정과 의리가 있는 분이었어.’

두 사람이 떠나자 부원령은 이마를 문질렀다. 원지가 당장 차를 올렸다.

“아가씨, 목이라도 좀 축이세요.”

부원령은 차를 받아들고 살짝 머금었다.

“다른 관사 세 분은?”

“편원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오후에 만나는 게 어떠세요?”

원지는 아가씨의 몸이 걱정되어 넋지시 권유했다.

“괜찮다. 한 사람씩 불러오렴.”

부원령은 입을 열었다. 요즘 할 일이 너무 많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잘 정리해야 했다. 이제 상경으로 가야 하는데, 노양부 쪽에서 조금이라도 차질이 빚어지면 곤란했다.

게다가 상경에서 온 부씨 가문 사람과도 한판 붙어야 했다.

부씨 가문은 늘 신중하게 사업을 했다. 특히 부원령 대에 이르러서는 자손이라고는 그녀 하나뿐이었기에 그녀는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사업을 배웠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자연히 부씨 가문의 사업 방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았다.

이런 내공이 있었기 때문에 대관사든 소관사든 그녀를 무시하지 못했고, 약간 수작을 부리더라도 지나친 짓은 하지 못했다.

이제 대세를 굳히고 나니 그녀의 마음도 조금 홀가분해졌다.

사람들은 부씨 가문에서 겉으로 드러난 사업 말고도 광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게다가 광산을 관리하는 관사들조차 서로를 몰랐으니 왕래하는 일도 없었다.

이러한 신중함 덕분에 부씨 가문은 오늘날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부원령은 그들을 한 사람씩 불러들여 장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옥석 광산의 관리자는 나유성(羅有聲), 석탄 광산의 관리자는 전사해(田四海), 금광 관리자는 구행(仇行)이었다. 세 사람은 각자 엇갈려서 왔다. 부원령은 올해의 장부를 작년과 비교해 가며 직접 검사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세 관사를 시험해 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서 탄마음을 품은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장부의 항목도 조목 조목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 당장 이상한 점을 찾아낼 수 없었다.

결산을 해 보자, 올해 광산 세 군데에서 올린 수입은 몇백만 냥이 나 되었다. 게다가 아직 금괴로 바꾸지 못한 몫도 있었다.

이 장부는 전부 그녀의 개인 고방에 넣어 두었다. 부씨 가문의 겉으로 드러나는 장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옛날부터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도 이렇게 처리했다. 부씨 가문의 재산은 다른 사람들의 상상보다 훨씬 많았다.

부원령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얼굴의 웃음도 조금 더 진실해졌다. 이 정도 수입이 있으니 상경으로 가는 길도 자연히 더욱 수월해질 것이다.

나유성과 전사해는 과묵했고, 오지랖이 넓지 않았다. 반면 구행은 주도면밀하고 멀리 내다보는 성미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장부 대조가 끝나고도 서둘러 나가려는 대신 오히려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구행은 눈앞의 아가씨를 보았다.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일 처리는 노련한 걸 보니 속으로 절로 한숨이 나와 차로 목을 축이고 입을 열었다.

“아가씨,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아저씨, 광산 쪽에 일이 생겼나요?”

부원령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이 대관사 셋은 그녀도 아저씨라고 부를 정도로 비교적 존중했다. 그들은 부씨 가문에서 나고 자란 노비의 자식이었고, 부씨 가문을 위해 몇십 년은 수고한 사람들이라 믿을 만했다.

꿈속에서도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녀를 배반하지 않았기에 지금의 그녀 더욱 함부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닙니다. 광산이 개발된 지 오래되다 보니 앞으로 몇 년 뒤면 끝물인 건 알고 계시겠지요.”

부원령은 조금 놀랐다.

“벌써요?”

“네, 원래 이 광맥은 반만 팠는데, 광산의 기술자가 조사해 본 결과 이제 남은 광맥에서는 금이 별로 나오지 않을 거랍니다. 한 삼사 년 파면 끝물이라더군요.”

“그럼 아저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부원령은 그가 아무 생각 없이는 쉽게 입을 열지 않았으리란 것을 알았다.

“가만히 앉아서 가진 걸 까먹기만 하느니 다른 산을 몇 개 더 사는데 낫겠습니다. 또 이런 행운이 있을지 살펴보는 게 어떻습니까.”

구행이 말했다.

“제가 봐 둔 산맥이 있습니다. 산 세 개가 이어져 있는 삼련산(三連山)인데, 사들이려면 가격이 싸지는 않을 겁니다.

부원령은 그의 말을 이해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저씨, 자신 있으세요?”

“사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 확률이면 낮은 편은 아니었다. 부원령도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얼마를 달라던가요? 산 세 개가 이어진 곳이면 분명 유서 깊은 대가문이 소유하고 있을 텐데요. 혹시 귀찮은 일이 생기지는 않을

까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그 집안의 주인이 상경에서 죄를 지었답니다. 사람을 빼내려고 집안에서 돈을 모으려다 보니 산을 파는 거라서요. 확실히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백은으로 오십만 냥에다 상등 논 백 묘(畝 – 토지 면적 단위, 1묘는 약 200평)를 주어야 할 겁니다.”

구행이 말했다.

부원령도 순간 아득해져서 구행을 보며 말했다.

“아저씨, 제가 아저씨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은 우리 가문에서 해 본 적이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곳을 눈여겨 보셨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십만 냥 정도는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부원령의 머릿속에서는 문득 꿈에서 겪었던 중요한 사건이 떠올랐다.

꿈속의 부원령은 이 무렵 부씨 가문 사람과 함께 상경으로 떠나 버렸다. 그 바람에 광산을 관리하는 관사 셋은 노양부에서 그녀와 얼굴을 마주하고 장부를 인계하지 않았다. 그녀는 상경으로 간 뒤 친자 인정을 받고, 부씨 가문 사람들과도 얼굴을 익혀야 해서 한 동안 이런 일들을 돌볼 틈이 없었다.

자연히 구행이 그녀에게 광산을 사라고 건의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년이 지난 뒤, 그 삼련산에서 커다란 광산이 발견되는 바람에 당시 온 상경이 떠들썩했다. 그 삼련산의 광맥에서 채굴된

게 어마어마했던 것이다.

자세히 생각을 더듬어 보니 금광이 아니라 석탄 광산이었던 것 같다. 석탄 광산은 금광만 못하지만, 삼련산의 석탄 광산은 매우 큰 이익을 거두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부원령은 가슴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꿈속의 자기가 서둘러 상경으로 가는 바람에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을 줄은 몰랐다.

‘사야지! 당연히 사야 하고말고!’

만약 다른 광산이었더라면 그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 삼련산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었다.

구행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심하고 있던 터였으나, 아까까지 질문만 던지던 아가씨가 서둘러 한마디 했다.

“저는 물론 아저씨의 안목을 믿어요. 기왕 아저씨가 눈여겨본 곳이니 사는 거로 하죠!”

구행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가씨가 이렇게까지 날 믿는다고?’

갑자기 부담이 느껴졌다.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구행이 떠보듯 물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백은으로 오십만 냥이라고 했죠? 바로 은표를 내어 드릴게요. 그리고 상등 논 백 묘에 해당하는 금액도 드릴게요.

일단 논을 사들여서 준비해 두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은자를 들고 가서 산을 파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좋은지, 땅이 좋은지요.”

부원령은 크게 흥분했다.

‘이게 혹시 꿈은 아닐까? 이런 운수 대통한 일이 벌어지다니.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나 다름없잖아!’

주저하며 들어왔던 구행은 얼떨떨한 얼굴로 나갔다.

‘이래도 되는 건가?’

구행이 나간 뒤에도 부원령은 여전히 조금 흥분한 상태였다. 그렇다. 꿈속에서 벌어진 그 일들. 결국 그녀가 남들보다 어떤 정보를 먼저 알 수 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 그녀는 남들보다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었다. 마치 이 삼련산 일처럼 말이다.

그렇다면 상경 부씨 가문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호락호락 당하지도, 휘둘리지도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다시 꿈속에서 본 상황을 자세히 돌이켜 보았다. 이때쯤이면 그녀는 상경으로 가는 마차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길을 서두르느라 멀미를 심하게 한 탓에 몸이 불편한 데다가 감기까지 걸렸다. 결국 상경 부씨 가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

아 병이 나 버렸다.

한바탕 병을 앓은 바람에 그 석(石)씨는 그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그녀의 재산에 손을 뻗었다.

인제 와서 자세히 생각해 보니 애초에 상경으로 길에 감기에 걸린 것도 그 석씨가 미리 손을 썼던 게 분명했다. 만약 자기가 상경 부씨 가문에 들어가서도 멀쩡했더라면, 석씨가 어떻게 그녀를 도와준다는 구실로 사업을 ‘관리’할 수 있었겠는가?

그때의 그녀는 경계심이 전혀 없어서 소인배에게 당하고 말았다.

아버지라는 단어와 가족이라는 위선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총명함과 기민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지금 자세히 돌이켜 보니, 할 수만 있다면 꿈속의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며 뺨이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행히 하늘이 그녀를 가엾게 여겨 그 황량몽을 꾸게 해 준 것이리라. 이러한 기연을 얻은 덕분에 나쁜 일을 미리 알게 되었다. 나중에 절에 가서 시주도 하고, 불상에 금박을 입혀드려 그분께서 이런 기연을 내려 주신 데에 감사해야 할 판이었다.

절을 떠올리자 또 노양부 주변에 있는 절 몇 군데가 생각이 났다. 과연 어느 절에 시주하면 좋을지 순간 망설여졌다.

‘기왕 하는 거, 전부 다 해 버릴까?’

이러면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 남의 눈에 띄어 좋을 게 없었다.

마침 꿈속에서 보았던 청암사가 생각이 났다. 그곳은 술과 고기를

먹는 땡추중이 지키는 낚아빠진 절이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동했다.

부원령이 이러한 자질구레한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구황자 초구기도 고양현(固陽縣) 삼련산 소재지에 사람을 보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상경 부씨 가문에서 보낸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7화 제까짓 것들이 뭐라고!

한편, 상경 부씨 가문에서 온 사람들은 객잔 안에서 심각한 얼굴로 의논하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노양부까지 왔는데도 부씨 가문의 그 아가씨를 만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

형(邢)씨 어멈은 부원령의 생부 부가염이 나중에 맞이한 처, 석(石)씨 측근의 관사 어멈이었다. 이번에 그녀는 석씨의 명령을 받고 왔다. 부원령이 석씨와 친해질 수 있도록 부씨 가문에 도착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구슬려 놓아야 했다.

그런데 아직 사람도 보지 못했으니, 이래서야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기에는 형씨 어멈 말고도 관사 두 명이 더 있었다. 한 명은 부가

염이 거느린 이관사(二官事) 염구(閼丘)였고, 한 명은 노백야(老伯爺 – 예전에 백작 작위를 지녔던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가 거느린 장 관사였다.

이 두 사람의 표정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두 사람은 평녕백부(平寧伯府)에서도 제법 위세가 있는 관사였으니, 언제 이런 문전박대를 당해 보았겠는가.

“고작해야 외실(外室 – 바깥에 둔 첩)이 키운 서녀 주제에 이렇게까지 허세를 부리다니. 그러게 직접 찾아가자니까. 지금 그 집에 혼자 남았다는데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는가?”

형씨 어母的 입꼬리에 차갑고 위험한 미소가 떠올랐다.

“안 되네. 노백야께서 당부하셨네. 예의로 대하라고 말이야. 게다가 자네들, 노백야의 일을 망치면 안 되네. 그랬다간 돌아가서 드릴 말씀이 없네.”

장 관사가 인상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는 형씨 어母이 석씨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모양새가 사실 보기 좋지는 않았다. 아직 집에 들이지도 않은 사람한테 벌써 정실이랍시고 위세를 부리는 꼴이 아닌가?

세 사람 중에서는 당연히 장 관사가 우두머리였다. 형씨 어母은 그 말을 듣자 표정이 흐려졌지만 반대할 엄두는 못 내고 눈살을 찌푸리며 염구를 바라보았다.

“염 관사는 어떻게 생각하오?”

염구는 소리 내어 웃었다.

“내가 볼 때 형씨 어머도 서두를 필요 없소. 장 관사도 너무 걱정 하지 마시구려. 지금 부 낭자의 외조부와 모친이 세상을 떠나 어린 아가씨 혼자 남아 있다니 우리더러 며칠 기다리라고 한 거지요. 나중에 얼굴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만 저자세로 나가면 크게 의심하지는 않을 거요. 그러면 우리 일도 쉽게 풀리지 않겠소.”

형씨 어머는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다른 뽀족한 수가 없었다. 설마 노양부 부씨 가문 저택에 호위가 그렇게 많아서 빈틈 하나 없이 지키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도 못했다. 그들이 억지로 밀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형씨 어머는 조금 질투가 날 지경이었다.

‘고작 상인 집안인데.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 많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을까?’

장 관사는 노백야 대신 일을 처리하는 데만 신경을 썼다. 설령 형씨 어머의 꿑꿑이를 알았다 하더라도 그다지 상관하지는 않을 터였다. 도와줄 만한 상황이 된다면 자연히 인심을 써서 도울 수는 있었지만, 노백야의 일을 망치게 된다면 양보할 수 없었다.

“지금 배첩(拜帖 – 남을 방문할 때 쓰는 명함)도 보냈고, 사정도 확실히 이야기했네. 그쪽 부씨 가문에서 하는 소리가 요 며칠은 연말 장부 제출을 하는 중이라 바빠서 틈이 없다잖나. 한 너 닷새 지났으니 다시 한번 재촉해 보지.”

장 관사는 서둘러 상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이렇게 계속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다.

“누가 갑니까?”

염구가 대놓고 물었다.

장 관사가 웃으며 형씨 어머를 보았다.

“그래도 여인인데 형씨 어머가 가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는가? 어떨
가?”

형씨 어머는 바라 마지않았던 터라 당장 승낙했다.

“그럼 내가 직접 가 보겠소.”

그녀는 자기가 어린 아가씨 하나를 구워삶지 못하리라고는 생각
지도 않았다.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에 마님 얼굴을 무
슨 낯으로 보겠는가.

형씨 어머는 몇몇 심복을 거느리고 위풍당당하게 부씨 저택으로
갔다.

염구는 객잔에서 나오더니 장 관사의 방을 돌아보며 속으로 비웃
었다.

‘약삭빠른 분이야. 형씨 어머의 화를 돋워서 선봉으로 보내 버리
다니, 참 악랄하군!’

* * *

부원령은 며칠 동안 바빠서 몸을 뺄 수 없었다. 게다가 반달 동안 날마다 악몽을 꾸 바람에 정신적으로도 꽤 피곤했다.

며칠 동안 장부를 맞추고 나자 하평과 척약중이 새로 뽑은 관사의 일로 찾아왔다. 부원령은 새 관사들과 하나하나 계약을 하고, 하평과 척약중을 대관사로 임명했다. 또한 광산 세 곳의 일도 있었다.

마침내 모든 일을 적절히 처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 무렵, 두씨 어머님이 와서 형씨 어머님이 방문했다고 알렸다.

아가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두씨 어머님은 걱정이 되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아가씨, 저기..... 정말로 저들과 상경으로 가실 건가요?”

부원령은 살짝 넋을 놓고 있다가 두씨 어머님의 이 말에 정신이 돌아왔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올려다보자 가슴속이 따뜻해졌다.

꿈속의 자신은 정말로 바보였다. 유모도 이렇게 꿰뚫어 볼 수 있었는데, 자신은 고집을 부렸다.

“유모, 걱정하지 마. 다 생각해 뒀어. 유모 말도 일리가 있어.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어디 그리 쉬운 일이라고. 어쨌든 상경 부씨가문의 모두가 그 사람을 내 아버지라고 우긴다고 해서, 내가 바로 인정할 수는 없어.”

두씨 어멈은 순간 멍해졌다. 아가씨가 무슨 뜻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두씨 어멈은 그녀를 충성스럽게 지켰지만, 아쉽게도 그다지 총명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처량한 최후를 맞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부원령의 어리석음이 불러온 결과이기는 했지만, 두씨 어멈 역시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었던 탓도 있었다.

그래서 지금 부원령은 일부러 상세히 설명하여 천천히 일깨워 주었다.

“유모, 내 아버지를 본 적이 있어?”

두씨 어멈은 고개를 저었다.

“빈 적은 없습니다. 주인아씨께 듣기는 했지요. 주인아씨께서 임신한 지 몇 달 안 되어서 서방님이 훌쩍 떠나 버리셨다고요. 집에 일이 생겼으니 나중에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다지요.

그런데 그렇게 훌쩍 가서 소식이 뚝 끊겼는지 뭘니까. 저는 주인아씨께서 해산하실 때야 이 집에 왔으니 빈 적이 없지요.”

두씨 어멈은 여기까지 말하고 아가씨를 보았다.

“저야 빈 적이 없지만 부씨 관사 분들은 빈 적이 있겠지요.”

만약 꿈속의 일을 겪지 않았더라면 부원령도 조금 주저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며칠 동안 꿈속에서 본 일이 눈앞에서 하나하나 벌어지고 있었기에, 이제 그녀는 침착하게 생각할 수 있었다.

“유모, 걱정하지 마. 나도 아버지를 보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은 상봉하고 싶지 않아.”

두씨 어멈은 아가씨의 상경행을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생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니 또 마음이 불안해졌다.

“아가씨, 그럼 어찌실 생각이세요?”

“유모, 어머니는 아버지와 혼인을 증명하는 혼서(婚書)를 쓴 정식 부부잖아. 그런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

부원령이 차근차근 유도했다.

그 말에 두씨 어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더니 일순간 뭐라고 해야 좋을지 몰라 하다가 갑자기 살기등등하게 욕을 내뱉었다. 눈시울도 붉어졌다.

“아가씨, 정말 서러운 노릇이 아닙니까.”

“서러울 게 뭐가 있어. 그들이 날 가족으로 대한다면 나도 자연히 인정할 거야. 하지만 나를 무시하겠다면 나도 인정하지 않는 수가 있어.”

부원령은 유모를 가까이 불러 차근차근 당부했다.

두씨 어멈은 눈을 번뜩이고 자신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아이고, 제가 정말 어리석었네요. 그런 걸 생각도 못 하다니. 아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장 가겠습니다.”

“원례와 원신을 데려가.”

이 두 소녀는 말솜씨가 매서웠고 눈치도 빨랐다. 두씨 어머님과 장단을 맞추기에는 딱 알맞았다.

“네, 알겠습니다.”

두씨 어머님은 당장 몸을 돌려 바깥으로 나갔다. 그 작자들의 얼굴이 벌게지도록 후려갈겨 아가씨의 분풀이를 해 주리라.

‘제까짓 것들이 뭐라고!’

* * *

형씨 어머님은 거만하게 화청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부씨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보면 볼수록 질투심이 일었다. 역시 거상 집안답게 이 정원의 꽃이며 나무며 연못이며 풍경까지, 막대한 돈을 써서 조경했음을 알아볼 수 있었다.

특히 연못에 있는 거대한 태호석(太湖石 – 조경, 장식용으로 쓰이는 태호에서 나는 돌)이 그랬다. 저만한 크기의 돌을 남쪽에서 북쪽까지 운반하느라 든 비용만 해도 보통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일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들은 나중에 모조리 부씨 가문 차지가 되어 마님의 손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만족스러워졌다.

‘이 노양부 부씨 가문 사람들이 돈을 잘 번들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박복한 것들인데. 나중에는 우리 마님 좋은 일만 하게 될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 화청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처음에는 부원령이 오는 줄 알고 당장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고개를 들자 두씨 어머님이 시녀 둘을 데리고 온 게 보였다.

형씨 어머님은 그들의 뒤쪽을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러나 그녀들 뒤로 아무도 없는 걸 보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게다가 지금 그녀의 앞에 서 있는 두씨 어머님과 뒤를 따르는 시녀 둘은 모두 고급스러운 비단옷을 걸치고 있었다.

‘고작 노비 주제에 저런 사치스러운 차림이라고?’

형씨 어머님은 마음속으로 큰일 날 뻔했다고 중얼거렸다. 상자 깊숙이 간수해 놓은 좋은 옷을 꺼내 입고 왔기에 망정이지, 저들 차림새와 너무 비교될 뻔했다. 그랬다가는 자기 마님을 망신시키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두씨 어머님은 겁먹은 기색 없이 태도가 대단히 당당했다. 자기가 모시는 아가씨를 딱하게 여기고 있던 참에 상경 부씨 가문에서 왔다는 사람을 보자, 당장 몽둥이찜질을 해서 내쫓지 못하는 게 한스러웠다.

두씨 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선수를 쳐 바로 상석으로 가서 뒤에 거느린 원례와 원신의 시중을 받으며 기선을 제압했다. 그리고 형씨 어머님의 난처한 얼굴색을 보면서, 그녀가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지

도 않고 먼저 말했다.

“요 며칠 우리 아가씨 몸이 불편하셔서 당장 손님을 맞이하기 곤란합니다. 양해하세요.”

형씨 어멈은 당연히 양해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오기 전 마님의 당부를 떠올리고는 마음속의 분노를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일단 이번 당한 수모는 잘 기억해 두었다가 나중에 갚아 줄 요량이었다.

“아가씨께서 불편하시다니 제가 마님을 대신해서 들여다보는 게 당연하지요. 번거롭겠지만 안내 좀 해 주세요.”

형씨 어멈은 얼굴에 걱정스러운 기색을 떠올리더니, 몸을 일으켜 바깥으로 나가려고 했다.

두씨 어멈이 살짝 웃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가씨가 댁 부인과는 아는 사이도 아니고 왕래도 없는데 들여다보다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뭐라고요?”

이번에는 형씨 어멈의 표정이 정말로 변했다. 그녀는 몸을 똑바로 세우고 두씨 어멈을 가늠해 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나니요? 아가씨께서는 가족 상봉을 하실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런 법이 어딴답니까?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딸이 신경 하나 안 쓰고 안부 한번 묻지를 앓는다니, 이건 예의에 어긋나지요.”

“예의? 기왕 예의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럼 가족이라고 주장할 만한 증거는 있소? 왕년 우리 서방님과 주인아씨가 쓴 혼서는 가지고 왔소? 아무 증거도 없이 우리 아가씨가 그쪽 부씨 가문 사람이라니. 혹시 하도 구차한 처지라 남을 등쳐 먹으려고 온 건 아니오?”

8화 누가 삼련산을 샀느냐?

두씨 어멈은 예전부터 묵히고 있던 울화를 이제야 완전히 터트렸다. 얼굴에는 웃음이 떠올라 있었지만 하는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인정사정이 없었다.

“혼서라니?”

형씨 어멈이 어리둥절했다.

“혼서가 어딴습니까? 이쪽은 백야(伯爺 – 백작 작위를 가진 사람에 대한 존칭)께서 예전에 들인 외실이 아닙니까?”

두씨 어멈은 처음부터 아가씨의 생부가 박정하고 의리가 없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형씨 어멈의 말까지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고 말았다. 그녀는 당장 눈썹을 치켜세우며 사나운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외실? 간이 부었구나. 감히 우리 주인아씨더러 외실이라니. 당시 우리 서방님께서 친필로 쓰신 훈서가 있고, 분명 정처로서 맞았소. 외실이라 하는 걸 보니 사람을 잘못 찾아오셨군. 그렇다면 썩 돌아가시오!”

형씨 어멈은 정말 놀라고 말았다. 여기 오기 전, 마님은 분명 이 아가씨가 외실에게서 본 서녀라고 했었다. 그런데 어떻게 훈서를 가진 정처의 적녀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두씨 어멈이 더는 예의를 차리지 않고 원례와 원신에게 눈짓했다. 둘은 당장 형씨 어멈을 양쪽으로 붙들고 밖으로 끌어냈다.

원례가 형씨 어멈을 끌어내며 말했다.

“나이도 지긋하신 분이 일하러 나오면서 미리 잘 알아보고 올 줄도 모르세요? 댁처럼 남의 집에 찾아와서는 그 집 주인을 외실이라고 욕하는 사람이 어딴어요? 흠씬 때려서 내쫓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 아가씨 마음씨가 곱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 문밖으로 나가지도 못했을걸요.”

“맞아요. 우리 아가씨는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어르신과 주인아씨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데요. 어디 이런 모욕을 당해 보셨겠어요. 이 노양부 전역에 어디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나 우리 부씨 가문은 인의가 후덕하고, 덕을 쌓은 집이라고 할걸요.

그리고 우리 주인아씨께서 시집가실 적에 훈수 행렬만 십 리를 이어진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어느 집안 외실이 그런 호사를 부릴 수 있대요?”

“댁도 점잖은 집안에서 잔뼈가 굵은 분일 텐데, 어째 말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이렇게 믿음직하지 못해요? 설마 사기 치러 온 건가요?”

“감히 우리 부씨 가문에 와서 사기를 치려 하다니, 우리 노양부 지부가 허수아비인 줄 알아요? 우리가 고소하면 댁들은 감옥살이해야 할걸요!”

형씨 어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밖으로 쫓겨났다. 그녀와 함께 온 사람들도 어리둥절했다. 자기네 관사 어멈이 남의 집 어린 시녀들에게 욕을 한바탕 먹고도 대꾸 한마디 제대로 못 했다. 심지어 그들을 감옥으로 싣 보내 버리겠다고까지 했는데도 말이다.

형씨 어멈들이 그 말에 겁을 먹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쪽에서는 당시 혼수 행렬이 십 리 길에 걸쳤고 혼서까지 있는, 정식으로 시집간 부인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절대 외실일 리가 없었다.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부씨 저택의 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형씨 어멈은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빠져나갔던 혼이 천천히 돌아오자, 그제야 야단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이건.....! 노양부의 이 사람이 정처라고 하면, 우리 마님은 뭐가 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못 찾아왔나?’

형씨 어멈은 안절부절못했다. 부씨 가문의 박대를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 그저 당장 상경으로 가서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봐

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형씨 어멈은 당장 객잔으로 돌아가 장 관사, 염 관사와 얼굴을 마주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두 사람의 표정도 어두워졌다.

특히 염 관사의 표정은 사실을 외면하듯, 관사와 형씨 어멈의 뒤로 숨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돌아가야겠다고 하자 따라서 돌아가겠다고 했다. 단지 부씨 가문에 혼자 남은 어린 아가씨가 이렇게 까다로운 상대일 줄은 몰랐다.

‘백야께서 아시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군.’

* * *

형씨 어멈이 당장 상경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을 무렵, 부원령은 두씨 어멈과 시녀 둘의 대답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비웃음이 절로 나왔다.

‘외실? 서녀?’

그러니까 그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사람이 애초에 지금 부인이라는 사람을 속였다는 건가?

꿈속의 일을 자세히 돌이켜 보자 절로 섬뜩했다. 친아버지랍시고 나선 사람이 딸을 친자로 인정하겠다면 서출이라는 신분을 뒤 집어씌우려고 하다니. 당연히 처음부터 좋은 의도로 왔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꿈속의 나는 도대체 얼마나 눈이 어두웠던 걸까? 이런 진상마저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다니?’

두씨 어멈은 아가씨의 언짢은 표정을 보자 속이 상했다.

“아가씨, 화내지 마세요. 그까짓 아비라는 작자는 인정 안 하면 그만이지요. 아가씨는 지금도 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부씨 가문의 재산을 노리고 온 게 분명했다.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있겠는가?

단, 부원령은 일이 눈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씨 어멈을 보며 말했다.

“유모, 나는 그런 아버지는 없는 셈 칠 수 있어. 하지만 일이 우리 생각대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해.”

부원령은 형씨 어멈 일행이 돌아가는 길에 시간을 제법 허비할 것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곧 연말이었다. 아마 설 전까지는 그녀를 방해할 틈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 딱 적당한 때였다.

게다가 근심거리도 있었다. 상경에 도착하면 부가염은 억지로 그녀를 친자로 인정하려 들 것이다. 그녀도 그의 딸인 게 확실하다 보니, 친자 인정을 거부하는 건 불가능했다.

저들이 노리는 건 자신의 재산이었다. 그러니 사전에 그녀 몫의 재산을 돌려놔야 했다.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부씨 가문에 가서 친자로 인정받으면 곤란했다. 그랬다가는 꿈속에서처럼 남들의 구슬림에 넘어가 소위 아비라는 작자와 계모의 손에 재산을 하나하나 넘기게 될지도 몰랐다. 결국 자신이 어떻게 되었더라?

심지어 그녀는 아직 미혼이라, 법률적으로 그녀의 재산도 그녀의 부친의 것이었다. 만약 그들이 그녀를 구슬려서 재산을 빼내지 못하면,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 듯 강제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으려 들 가능성도 있었다. 정말 관아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그녀도 법률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했다.

‘날 친자로 인정하겠다면, 좋아, 정말 빈손으로 들어갔는데도 이 빈털터리를 집으로 들이려고 하는지 어디 두고 보자!’

생각만 해도 짜릿한 흥분이 느껴졌다. 어쨌든 마음속에 억누른 이 울분을 풀어야 했다.

단, 재산을 어떻게 숨길지는 자세히 생각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됐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기에, 부원령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도 이 일은 서둘러서는 안 됐다.

어쨌든 이 많은 것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 명의에서 남의 명의로 돌렸다가, 나중에 남이 장부를 떼어먹거나 정말로 꿀꺽해 버리면 그녀도 별수가 없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했다. 꿈속의 일을 자세히 생각해 보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부원령 대에 이르러 노양부 부씨 가문에는 정말 그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사실상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었다.

숨겨진 사업은 그나마 괜찮았다. 하지만 부씨 가문의 명의로 된 것들은 숨기기 곤란했다.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 * *

부원령이 재산을 돌릴 공리를 하고 무렵, 고양현에 도착한 초구기는 어리둥절했다.

“누가 삼련산을 샀느냐?”

“구행이라는 사람입니다. 십여 년간 광산을 채굴한 인물인데, 이 쪽 방면에서는 제법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사람들이 산을 팔려고 하니 그자부터 찾아갔답니다.”

창가에는 적흑색 옷을 입은 남자가 뒷짐을 지고 서 있었다. 그 말

에 곧게 뻗은 헌칠한 몸이 살짝 움찔했다.

‘구행?’

이름이 조금 귀에 익은 듯했지만,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는 게 확실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손을 뻗어 관자놀이를 문지르고는 말했다.

“그 구행이라는 자의 정체를 알아봐라.”

“네.”

배수가 대답하고 몸을 돌려 물러갔다.

반나절 만에 돌아온 배수는 고개를 숙이고 보고했다.

“전하, 알아보았습니다. 그 구행이라는 자는 노양부 부씨 가문의 관사입니다.”

“노양부?”

초구기의 미간이 또 찌푸려졌다. 이 지방 이름이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노양부에는 가 본 적이 없었다.

“그 부씨 가문의 가세가 제법인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삼련

산을 한입에 꿀꺽할 수는 없었겠지.”

배수는 전하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낼 줄 몰랐다. 마치 노양부 부씨 가문에 매우 관심이 있는 듯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입을 열었다.

“제가 조사해 보다가 재미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노양부 부씨가문이 상경 평녕백부 부씨 가문과 관계가 있습니다.”

“평녕백부?”

그 이름을 언급하자 초구기는 조금 언짢은 기색을 보였다.

“그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이나?”

평녕백은 아무 능력도 없는 작자였다. 그나마 아침하고 알랑거리는 재주가 남에게 뒤지지 않았다. 위의 노백야는 왕년에 제법 이름을 날렸지만, 그 아들은 구제 불능이었다.

“정말 관계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도 보통 관계가 아니더군요. 제가 알아본 소식에 의하면 평녕백이 최근 바깥에 방치해 둔 큰딸을 찾는다던데, 이 아가씨를 상경에 데려가 친자로 인정할 거랍니다. 게다가 그 데려간다는 아가씨가 바로 노양부 부씨 가문 아가씨라지요.”

배수는 막상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자 이 일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도 상경에서 오래 살았지만, 평녕백부에서 누군가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이 말을 듣자 초구기의 머릿속에 여러 화면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차리기도 전에 사라져

버렸다.

이런 일을 벌써 몇 번이나 겪었다. 그리고 전부 평녕백부와 관련이 있었다. 이 때문에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던 언짢은 기색이 더욱 강렬해졌다.

덩달아 이 노양부의 부 낭자라는 사람도 조금 싫어질 지경이었다.

“전부 제대로 조사했느냐? 그럼 노양부의 그 낭자는 평녕백부에 들어간다더냐?”

배수는 그 말을 듣자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그렇진 않습니다.”

초구기는 그제야 조금 흥이 났다. 몸을 돌려 거들먹거리며 반원형의 팔걸이 의자로 앉더니 섬세한 선의 턱을 끄덕였다.

“자세히 말해 보라.”

배수는 마치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처럼 부원령이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실감 나게 묘사했다. 사실 그도 마음속으로는 이 부 낭자에게 조금 호기심이 생긴 터였다.

그녀는 친자 확인을 거절한 건 둘째치고, 일부러 소문을 내서 노양부 사람 모두가 이 사실을 알게 했다. 다들 이 아가씨의 친부인 백작이 그녀를 친자로 인정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부씨 저택을 호시탐탐 노리던 사람들은 몸을 사리기 시작했다. 상경에서도 외실의 딸을 거둔다는 태도로 왔었는데, 부 낭자가 혼서가 있다고 하며 그녀의 어머니가 삼서육례를 갖추고, 중매

인을 두어 혼인한 정처라고 주장하니 전만큼 당당할 수가 없었다.

‘이거 정말 재미있게 돌아가는데.’

그러나 배수도 이 사건이 자신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정말 공교롭게도 전하가 갑자기 사들이겠다고 한 산이 부씨 가문의 그 아가씨와 얽여 있을 줄이야.

9화 사람부터 구해라!

“그래? 그 부 낭자가 제법 대단하구나. 그렇게 쫓아내면서 사람을 착각한 거라고 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마 착각한 게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씨 가문에서 평녕백부와 혈연관계라는 소문을 낼 리가 없지요. 이건 분명 평녕백부의 기세를 빌리려는 겁니다.”

배수도 이 아가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혈연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기세를 빌려 자신의 처지를 안정시켰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수완이 좋고 결단성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여인인 게 안타깝군. 만약 사내였다면 전하의 휘하로 끌어들여서 썼을 텐데.’

초구기가 눈길을 돌리더니 배수를 쳐다보았다.

“삼련산은 벌써 구행에게 팔린 거냐?”

“네, 행동이 빠르더군요. 돈도 선뜻 냈다고 합니다.”

배수가 대답했다. 어쩐지 판매자가 구행부터 찾아갔다 했더니, 이런 구매자라면 누구나 거래하고 싶을 만했다.

“그 구행은 부씨 가문에서 일한다고 했지. 여기 사람들이 모두 아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지 사람들은 이 관사가 관록이 있는 걸 알기는 하지만, 다들 상경에서 온 큰 물주가 배후에 있겠거니 하고 여깁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 배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구행이라는 사람은 정체를 감추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다. 여기서 그 오랜 세월을 보냈는데도 아무도 그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배수도 구황자의 명의를 동원해서 관아의 서류를 들춰 보지 않았더라면 당장 밝혀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초구기는 노양부의 부 낭자에 대해 약간 흥미가 일었다. 상경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기분 전환하러 나온 김에 산이나 살까 했더니, 도중에 남에게 가로채였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행선지를 바꾸자. 노양부로 간다.”

배수는 잠깐 어리둥절했지만, 곧 물었다.

“전하,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반 시진 뒤에.”

그 말인즉슨 당장 출발하는 뜻이었다.

‘뭐가 이리 급해?’

* * *

곧 설달그믐이라 부씨 저택뿐만 아니라, 온 노양부가 떠들썩했다. 부원령은 모친상을 치른 지 백 일도 되지 않았다는 구실로 모든 방문객을 사절했다.

본격적으로 눈이 내릴 시기가 되어 올해 겨울 첫눈이 내렸다. 새벽녘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나뭇가지 위로 옥처럼 흰 눈이 잔뜩 쌓여 있었다. 싱그러운 찬바람이 뺨을 스치자, 꽉 막혀 있던 머릿속도 조금 맑아졌다.

하지만 어젯밤의 가랑눈이 하룻밤 사이 거위 깃털만큼 커다란 함

박눈으로 변해 지붕에 가득 쌓일 줄은 몰랐다. 부원령의 기억에 따르면 꿈속의 상경에는 이만큼 큰 눈이 내리지 않았으니, 노양부에만 폭설이 내리는 모양이다.

이만한 폭설이 계속되다 보면 피해가 생기기 마련이라 자못 걱정이 되었다.

곧 거리에서 징 소리가 들렸다. 원례가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처마 밑에서 몸에 쌓인 눈을 털어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산을 작은 시녀 중춘에게 건네준 뒤 발을 걷고 들어왔다.

“아가씨, 지부 대인께서 징을 쳐서 경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성안의 젊은이들과 각 저택의 호위들도 힘을 보태라며 소집하셨고요. 부현 아저씨 말씀으로는 성문 바깥에는 눈 피해가 더욱 심하다네요. 사람이 나가려고 해도 발이 눈에 푹푹 빠지는 바람에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래요.”

원례는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이었다. 이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생기면 골치 아팠다.

부씨 가문은 늘 선행을 베풀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외할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돈과 사람을 풀었다. 당연히 그녀 역시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지부 대인에게 도움을 받은 적도 있었다. 비록 그 대가로 광산 하나를 내놓아야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이익으로 맺어진 관계라도 때로는 베풀 줄 알아야 했다.

“부씨 가문의 호위들은 성문으로 가서 명령에 따르라고 해라. 나머지 하인들도 길가에 눈 치우는 걸 돕게 하고.”

부원령은 어른들을 따라 이러한 일을 몇 번 처리해 보았으므로,

침착한 표정으로 차근차근 분부했다.

“네. 제가 지금 부현 아저씨와 부정박 아저씨에게 말할게요.”

원례가 당장 일어나서 밖으로 달려 나갔다.

“아가씨, 그럼 죽 배급소와 식량을 준비할까요?”

두씨 어머님이 그 뒤를 이어 물었다. 이러한 재해가 닥치면 부씨 가문에서는 죽 배급소를 설치해 이재민들을 도왔다.

“일단 준비해 두되, 지부 대인의 명령을 기다리자.”

부원령이 말했다. 죽 배급소를 설치하는 일은 큰일이라고도, 작은 일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노양부에도 부호가 제법 있었지만, 돈에 눈이 어두운 집안도 몇 있었다. 그녀가 나서서 죽 배급소를 설치했다가는 남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었다.

지부 대인이 명령하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타당했다.

“그럼 작년에 만들어 두었던 솜옷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밖에 나가게 되면 단단히 끼입어야 하니까요.”

“가 봐. 그리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장원에도 솜을 좀 더 준비하라고 해.”

“네.”

부원령은 차근차근 분부했다. 저택 사람들은 당장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신이 눈바람을 무릅쓰고 나갔다가 재빨리 돌아왔다.

“아가씨, 장원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별채가 무너졌고, 두 사람이 다쳤답니다.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의원을 불러다 진료를 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사람이 다쳤다고?”

부원령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촌 동네에 있는 돌팔이 의원은 그저 간단한 병세만 치료할 수 있었다. 만약 상처가 심각하다면 치료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네, 한 명이 심하게 다쳤는데 의원이 와서 진료할 때까지 버티지 못할 수도 있대요.”

“당장 저택의 의원을 보내라. 내가 직접 가겠다.”

“아가씨, 안 돼요. 이런 날씨에 나가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제가 직접 다녀오면 됩니다.”

“부의 아저씨가 자리를 비웠고, 부현 아저씨와 부정박 아저씨도 몸을 뺄 틈이 없잖아. 전장의 소작인은 모두 우리를 오래 따랐던 사람들이야. 게다가 누군가가 이 틈을 타서 소란을 피울지도 모르니까 내가 직접 가는 편이 낫겠어.”

부원령이 당장 일어났다.

“채비를 해라. 망설일 필요 없다.”

특히 이런 때일수록 실수가 나오기 쉽다. 원신은 여인인데, 장원에서 소작하는 사내들이 정말로 소란을 피우면 그녀가 제압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부원령도 소란은 피하고 싶었다. 부씨 가문은 이런 때일수록 몸을 낮추는 게 좋았다.

부원령은 눈처럼 흰 여우털로 안을 댄 갓옷을 입고, 깊고 두꺼운 방한모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원례의 부축을 받으며 마차에 올랐다.

마차 뒤로는 노새 세 마리가 끄는 수레 두 대가 따랐다. 수레에는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보다 더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서, 의원과 호위대는 모두 수레에 탔다.

마차가 출발하고 부원령이 마차 안의 가림막을 젖히자 곳곳에 철갑과 빗자루를 들고 있는 백성들이 보였다. 성 중앙의 큰길은 이미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큰 눈이 계속 내리는 바람에 또다시 눈이 한층 얇게 쌓였다.

성문 바깥으로 나갔지만 길 상태는 더욱 낙관적이지 못했다. 관도로는 갈 수 있었지만, 사방이 모두 새하얀 눈밭으로 변해 상황이 좀 심각했다.

부원령은 모란, 석류, 국화, 매화의 사계화 문양으로 투각한 구리 손난로를 들고 마차 안에 있었다. 횡횡 부는 북풍이 가림막을 뚫고 들어오자, 원신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당장 베개로 틈을 막았다.

‘이 곳은 날씨에 아가씨가 직접 나가는 건 정말 위험한데.’

여기서부터 전장까지 가려면 녹명산도(鹿鳴山道)를 지나야 했다. 그리고 녹명산도의 상태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길이 전부 눈으로 잔뜩 뒤덮여 있어 마차가 지나가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비록 백여 장(丈)밖에 안 되는 거리였지만, 쌓인 눈을 치우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부원령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당장 따라온 하인들에게 길을 내라고 명령한 뒤 자신도 마차에서 내렸다.

원례와 원신도 따라서 마차에서 내렸다. 날카로운 찬 바람이 불어 눈도 제대로 뜯 수 없었지만, 아가씨가 바람을 무릅쓰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하자 둘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손난로 안에 탄을 조금 더 넣었지만, 발까지 마비될 정도로 추웠다. 그럼에도 부원령이 마차로 돌아가지 않은 것은, 그녀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만 부씨 가문 사람들도 자신감과 힘이 생기기 때문이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서둘러! 여기 눈 밑에 깔린 사람이 있어!”

부원령은 깜짝 놀라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장 다가갔다. 과연 저 멀리 눈 더미 속에 얼어 죽은 말 두 마리가 보였다. 말의 배 밑에 두 사람이 깔려있었고 부씨 가문 사람들이 구해냈을 무렵에는 이미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다.

“아가씨가 오셨어!”

누가 소리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당장 길을 터 주었다. 부원령이 다가가서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질척해진 눈 속에서 드러난 얼굴을 본 순간, 갑자기 심장이 덜컥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 물론 지금의 그녀가 아닌, 꿈속의 그녀가 아는 사람이었다.

늘 거침없는 오만한 기색이 서려 있던 눈이 단단히 감겨 있다. 그러나 그의 몸에서 풍기는 그 날카로운 기세는 조금도 가려지지 않았다.

날카로운 선으로 빚어진 이목구비는 언제든 검집에서 뽑혀 나올 수 있는 날카로운 칼 같았다.

괴팍한 성정의 소유자로 늘 제멋대로 행동하고, 황자임에도 예법에 전혀 구속받지 않아 황제와 황후마저 골머리를 썩는 아들. 이 사람은 꿈속에서 자신을 한 번 구해 준 적이 있었다.

“사람부터 구해라!”

부원령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들은 일단 마차에 태워라. 서둘러 길을 치워 전장으로 가야 한다.”

다른 한 사람도 본 적이 있었다. 바로 구황자 옆에 늘 붙어 다니는 시위 배수였다. 이 사람은 경성에서도 유난히 유명했다.

구황자 초구기가 사나운 용이라면, 배수는 초구기 옆의 가장 충성스러운 사나운 개였다.

이 주종 둘의 악명은 워낙 자자하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나중의 일이다. 지금의 초구기는 제멋대로인

황자일 뿐이었다.

그런데 꿈에서 깨어난 뒤 그를 먼저 만나게 될 줄은 몰랐다.

꿈속의 그가 자신을 한 번 구해 주었으니, 이번에는 자신이 그를 구해 줄 차례였다. 이러한 인과에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다.

비록 의원이 있기는 했지만, 이 주종은 모두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여기는 약을 달일 만한 곳도 없었다.

다행히 반 시진 뒤, 마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이 정리되었다. 일행은 서둘러 전장으로 달려갔다.

초구기는 술독에 빠진 기분이었다. 몸이 등실등실 뜬 채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느낌이 계속되자 가슴속이 너무 답답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몸을 뒤집자마자 바로 토해 버리고 말았다.

하필 그때 부원령이 쪼그리고 앉아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닦아주고 있었다. 미처 막을 틈도 없이 그녀의 옷에 온통 토사물이 얼룩졌다.

원례의 눈이 벌게졌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좁은 마차 안에 가득 찬 냄새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게다가 하필 아가씨 몸에 토하다니.

‘이..... 이 사람은 어쩔 이렇게 얄밟담!’

부원령도 이런 소동이 벌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이 냄새에 비위가 상했지만, 꿈속에서 이 사람이 베푼 은혜를 떠올리고는 가까스로 참았다.

“난 괜찮아. 일단 닦아 줘야겠어.”

“닦기는 뭘요? 이 사람 정말 너무 무례해요.”

“원레야, 그러지 마. 이 사람은 지금 정신을 잃었잖아.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10화 고작 담요 하나

원레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입술을 깨물며 말을 삼켰다. 그래도 손놀림은 결코 느긋하지 않았다. 일단 아가씨의 옷에 묻은 오물을 수습한 뒤, 예비용으로 가져온 창의(擎衣 – 고대의 방한용 외투)를 그녀의 어깨에 둘러 주었다. 또 바닥에 뿌려진 남자의 토사물을 재빠르게 치웠다.

부원령은 원레에게 초구기를 부축하게 한 뒤, 차를 한 잔 따라 그

의 입가에 조금씩 흘러 넣어 주었다.

원레가 창을 살짝 열어 환기시키고 고개를 돌리자, 아가씨가 자기의 얇은 양털 담요를 그 사람에게 덮어주는 모습이 보였다.

“아가씨, 왜 이 사람한테 그걸 덮어주세요. 문을 아주 살짝만 열었으니까 찬바람 맞지도 않을 텐데요. 또 제가 바람도 막고 있고요.”

원레는 아가씨가 이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잘해 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고작 담요 하나 가지고 그럴 것까진 없어.”

부원령은 조금 난처하기도, 민망하기도 했다. 원레를 비롯한 시녀들이 그녀를 싸고도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물건 하나조차 남이 쓰는 걸 못 볼 줄은 몰랐다.

원레는 입술을 깨물면서 결국 투덜댔다.

“이 담요를 저놈에게 흘랑 쥐 버리면 아가씨는 뭘 쓰시라고요. 아가씨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떡해요?”

게다가 이 담요는 평범한 물건도 아니었다. 이만한 작은 담요라도 노련한 수공업자를 구해서 가는 양털을 실로 만든 다음 짠 것이라, 이 작은 담요에 돈을 얼마나 들었는지 모른다.

“손난로가 있잖니.”

“길에서 오래 지체하는 바람에 손난로 안의 불도 진작 꺼졌는걸요.”

부원령도 뭐라고 하는 대신 웃으면서 원례를 보았다. 결국 원례의 얼굴이 빨개지고 나서야 시선을 거두었다.

“다들 좀 쉬자. 조금 더 가야 도착할 거야.”

다들 바쁘게 일한 바람에 모두 지쳐 있었다.

바닥에 누운 초구기의 눈꺼풀이 떨렸지만 들어 올리지는 못했다. 그는 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부원령과 원례는 그 작은 움직임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마침내 마차가 눈바람을 뚫고 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다들 한숨을 놓았다.

마름은 아가씨가 직접 사람을 거느리고 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지라 당장 관사에게 소식을 알렸다. 한편 장원의 무너진 건물을 정리하는 데 동원된 소작인들도 소식을 듣고 그녀를 만나러 왔다.

부원령은 초구기와 배수를 치료하게 한 뒤, 자신은 창의를 여미고 관사를 따라 무너진 곳을 살펴보러 갔다. 다친 소작인들을 위문하고 상황을 자세히 물어보며, 또 같이 온 의원에게 상처를 치료하게 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고 나서야 겨우 조금 마음이 놓였다.

장원 사람들은 원래 불만이 조금 있었다. 그러나 아가씨가 본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의원을 데려오자, 소란을 피우는 대신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머리를 조아렸다.

그러나 부원령은 쉬지 않았다. 당장 관사를 불러서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았다. 장원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되기는 했지만, 작년에도 돈을 내어 보강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원의 관사는 고대용(古大勇)이었는데, 부씨 가문에서도 일한 지 십여 년이나 되어 늘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부원령은 일단 그를 불러와서 어찌 된 영문인지 물었다.

고대용은 관사였지만 평소에도 마름을 따라서 밭을 돌아다녔고, 고생을 마다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난처함이 가득한 찌푸린 얼굴로 아가씨 앞에 섰다.

부원령은 참을성이 강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커다란 사업을 이어받을 엄두도 못 낼 것이다. 꿈속의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갈망하지만 앓았다면 아무 거리낌도 없었을 것이고, 몇 번이나 양보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때의 어리석은 부원령이 아니었다. 따뜻한 찻잔으로 손바닥을 데우며, 정당의 상석에 있는 빗살등받이 의자에 우아하게 앉은 자세에서는 조급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안정적인 모습에 고대용의 조급하던 마음도 천천히 진정되었다.

“작년 건물을 수리한 건 장원의 마름이 시킨 일입니다. 원래는 별일 아니었습니다. 장원 건물은 대부분 흙벽돌을 써서 나무 들보를 고정해 놓았는데, 작년에 빗물 때문에 나무 들보가 몇 개 썩어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지붕을 뜯고 새 들보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들보를 판상인에게 속는 바람에 품질이 나쁜 거로 바꾸게 되었지 뭐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 관사, 목재를 사는 일이라면 자네가 한 번 더 확인하지 않는가?”

고대용의 얼굴이 더욱 찌푸려졌다.

“네,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 상인의 사기 수법이 정말 대단해서 저도 깜빡 속고 말았습니다.”

이 말을 하느라 고대용의 늙은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했으니 보통 망신이 아니었다.

부원령은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한 바였다. 누군가가 걱정하고 재물을 착복했다고 생각했던 터라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다.

“어느 상점에서 샀지?”

큰일은 아니었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고대용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마침 지나가던 떠돌이 상인이었습니다.”

부원령은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알 수 없었다.

“그때는 목재가 굵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상인 말로는 고향에 일이 생겨서 서둘러 돌아가야 하니, 염가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정도 금액을 부른다면 우리도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목재는 젊은이 몇이 달라붙어도 운반하기 힘들 정도였습죠.

저는 마름과 상의해서 열 개를 샀습니다. 그런데 눈이 쌓이자마자 들보가 모조리 부러져 버렸습니다. 제가 마름과 함께 가서 직접 봤는데, 그 들보는..... 들보는 목재 몇 개를 장부맞춤으로 연결한 거라서, 평소에는 괜찮지만 무게가 무거워지면 버티지 못합니다. 이걸 만든 자의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목재가 부러지지 않았더라면 눈치채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부원령은 자세히 돌이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보니 작년 장부를 받았을 때 건물을 수리하는 데 비용이 크게 들지 않아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다. 당시에는 고 관사가 수완이 좋았겠거니 생각했었다.

그런데 작은 걸 아끼느라 하마터면 큰 사고를 낼 뻔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정직했다. 절약한 돈으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대신 장부에 고스란히 적어 놓았다.

그녀는 고대용을 보았다.

“이 일은 자네가 무심결에 한 실수지만 다친 사람이 나왔으니 이대로 넘길 수는 없네. 자네와 마름의 두 달 치 급료로 다친 소작인에게 보상해 주면 어떨겠나?”

고대용은 어리둥절했다. 이런 사고를 쳤으니 관사 자리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는데 고작 두 달 치 급료를 감봉한다니?

그는 당장 감격해서 고개를 조아렸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와 마름이 더욱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친 소작인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 살펴보겠네. 그리고 이번에 큰 눈이 왔으니 장원에서도 사전에 대비하게. 눈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 준비해 두는 편이 좋을 거야.”

“아가씨,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원에는 양식이 넉넉하니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자네가 한번 나갔다 와야겠어. 날씨가 춥다고 얼어 죽는 사람이 나오면 안 돼. 곳간에 숨이 좀 남아 있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칠 할은 저택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자네들이 여기서 쓰게.”

“네, 부씨 가문 규칙대로라면 곳간에 하루라도 양식이 비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게 참 공교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달 전 서북의 대행상 교씨 가문에서 조금 사들였습니다. 원래 연말에 물건을 드리러 저택으로 갈 때 아가씨께 보고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 이야기가 나오자 고대용은 매우 만족스러웠다. 올해 겨울 눈 피해에 이 숨이 크게 도움이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그 말에 부원령은 가슴이 일렁이며 눈앞이 확 밝아졌다.

서북의 교씨 가문도 유명한 상업 가문이었다. 평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 왕래가 적기는 했지만, 부씨 가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 어느 정도의 접촉은 있었다.

“어떻게 교씨 가문 상인이 여기까지 왔지?”

부원령이 호기심에 차서 물었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교씨 가문의 상단이 조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입은 무겁더군요. 아마 급전이 필요해서 숨을 팔았겠지요.

그때 저도 공교롭다고 생각했지만, 가격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조금 사들였습니다. 우리 부씨 가문 이름으로 팔면 돈이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런 눈 피해를 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대용은 여기에서 말을 잠시 끊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제가 보기에는 그때 교씨 가문에서 누군가의 성미를 거스른 모양입니다. 상단 호위들이 제법 다쳤더군요. 숨을 싸게 팔아 줬으니, 저도 사적으로 약을 조금 보내 주었습니다.”

“상행을 하다 보면 도적을 만나더라도 이상할 게 없지. 잘했네. 사적으로 도와준 것쯤이야 문제 될 게 없어.”

부원령도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처럼 동서남북을 누비는 상인 중 이런 일을 당해 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앞으로 그들도 서북으로 갔을 때 도움을 청하느라 교씨 가문의 대문을 두드릴지도 모른다.

“그럼 그 숨은 일단 꺼내지 말게. 내가 연락하거든 다시 이야기하지.”

“네.”

고대용도 한숨 돌렸다. 이 일로 자신의 실수를 만회한 셈이었다.

부원령은 방으로 돌아갔다. 방 안에는 이미 화로가 지펴져 있어서 그녀의 손발을 녹여 주기 시작했다. 그때 원신이 제비집 죽을 들고 들어왔다.

“아가씨, 우선 요기부터 좀 하세요.”

“응, 객방의 그 두 사람은 깨어났느냐?”

“아직이에요. 의원이 이미 치료는 했는데 상처가 좀 심하답니다. 다행히 제때 구출한 덕에 목숨을 건졌지요.”

원신이 말했다.

“고열이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의원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누가 곁에서 좀 지켜보래요.”

“너와 원례가 갈 필요는 없어. 고 관사가 지키라고 해.”

부원령이 말했다.

“네, 그럼 고 관사에게 전하고 올게요.”

원신이 막 나가자마자 원례가 따뜻한 물을 채운 탕파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재빠르게 아가씨의 침상을 정리하고, 비단 이불 속에 탕파를 넣어 따뜻하게 데웠다. 침상 정리가 끝나자마자 또 더운물을 들고 와서 아가씨의 세수 시중을 들고, 아가씨가 자리에 눕고 나서야 원례도 자그맣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원령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가볍게 웃었다.

“됐어. 너도 얼른 가서 쉬고, 원신한테 번을 서라고 하렴. 내일도 할 일이 있어.”

“그냥 제가 있을게요. 원신이는 깊게 잠들거든요. 여기는 저택이 아니니까 조심하는 게 좋아요.”

“네 말대로 하자.”

부원령은 정말로 피곤해서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원례는 원신의 발소리가 들리자, 살금살금 밖으로 나가서 그녀에게 몇 마디 일렀다. 그러자 원신은 원례에게 이불을 주고는 방으로 돌아갔다.

이날 밤, 부원령은 편안히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것은 전부 초구기의 얼굴이었다. 꿈속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본 그도 유달리 낯설게만 느껴졌다.

특히 언제나 멸시하는 기색을 띠고 있는 그 눈빛이 꿈속의 안개를 뚫고 느껴져 오한이 들 지경이었다.

11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게 좋겠지

부원령은 아침에 일어나자 머리가 어지럽고 무거웠다. 하룻밤 내내 꿈에 시달렸더니 제정신이 아니었다.

원례가 그녀의 기척을 듣고 발을 걷고 들어왔다가, 순간 아가씨 눈 밑에 드리운 거무스름한 그늘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제가 얼굴을 문지를 달걀을 좀 삶아 올게요. 이런 얼굴로 어떻게 남들 앞에 나가요.”

원례는 정말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다. 아가씨가 이제 겨우 몸을 좀 추슬렀나 싶었는데, 이렇게 또 아파 버리면 도로 아미타불이다.

원례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재빨리 나갔다. 부원령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원례를 막지는 않았다. 몇 년이나 된 성격을 하루아침에 고치지는 못할 테니까.

밖에서 총총히 들어오던 원신이 귀신에 쫓기기라도 하듯 달려 나가는 원례를 미처 불러 세우기도 전에 그녀의 뒷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원신도 중요한 일을 보고해야 하다 보니 원례를 신경 쓰기보다 서둘러 문 안으로 들어섰다.

“아가씨, 왜 직접 옷을 입으세요? 원례는 뭘 하러 가기에 귀신에 쫓기듯 나간담.”

원신이 서둘러 다가와 아가씨의 옷시중을 들었다. 옷궤에 든 옷은 어젯밤에 미리 준비해 두어, 화로 위에서 녹눅한 기운을 살짝 날리기만 하면 바로 입을 수 있었다.

원신은 아가씨에게 옷을 입히며 말했다.

“오늘 아침 일찍 고 관사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어제 구한 두 사람은 아직도 열이 난대요. 의원이 가져온 약이 부족하니 노양부로 보내야 할 것 같대요.”

부원령은 그 말을 듣자 미간을 살짝 찡그렸다.

“어쩌다 하룻밤 사이에 병세가 더 심해졌지?”

“그건 모르겠어요. 의원 말로는 두 사람이 눈 더미에 깔리는 바람에 다치기는 했지만, 원래부터 몸에 다른 상처도 있었다요. 상처는 다 치료했어도 상태가 그다지 좋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원신이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다.

부원령은 꿈속의 상황을 자세히 돌이켜 보았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중에 부씨 가문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했던 것 같다. 구황자가 남쪽으로 갔다가 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위험을 겪었는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그게 설마 이 일인가?’

만약 그렇다면 도저히 흘러버릴 수는 없었다.

처음에는 사람을 구하려던 것뿐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귀찮은 일

이 될 줄은 몰랐다.

부원령은 원신을 보며 말했다.

“당장 둘을 노양부로 돌려보내.”

“하지만 길이 나빠서 가기 힘들 거예요.”

원신이 한숨을 쉬었다.

부원령도 녹명산도를 떠올리고는 또 말했다.

“그럼 의원에게 무슨 약재가 부족한지 물어봐. 나중에 고 관사한테 사람을 데리고 가서 사 오게 해. 돈이 많이 들어도 상관없어. 일단 사람부터 구하고 보자.”

“네.”

원신이 총총걸음으로 나갔다. 부원령도 한순간 조금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조반을 들고 달갈로 눈 밑의 그늘을 없앤 뒤, 원례를 데리고 초구기 주종을 들여다보러 갔다.

여기에는 그들의 진짜 신분을 아는 사람이 없었고, 부원령도 당연히 모르는 척했다. 객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열이 들끓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게 확실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이대로 두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나 싶었다.

의원을 불러다 자세히 물어보니, 고 관사가 벌써 사람을 데리고 약을 사러 간 뒤였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부원령은 다친 소작인의 병문안도 갔다. 사람들을 다독이고 난 다

음에는 초구기가 머무는 처소의 외실(外室)을 지켰다. 꿈속의 상황을 떠올리자 순간 조금 까마득해졌다.

초구기라는 인물과는 어떤 식으로든 엮이고 싶지 않았다. 어쨌든 이분이 사고뭉치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꿈속에서 알게 된 일들만 보더라도, 그와 그녀는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황자였고, 그녀는 고작 상인 가문 딸이었다. 두 사람의 신분과 지위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다. 앞으로도 두 사람은 다시 만날 기회 자체가 없을 것이니, 이번에 그를 구하는 것은 꿈속에서 입은 은혜를 갚는 셈이었다.

‘앞으로는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게 좋겠지.’

부원령도 여기까지 생각하고 더는 앉아 있지 않았다. 마름을 불러서 황자의 처소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직접 창고를 돌아보며 검사했다.

또 노양부로 돌아간 다음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이번 폭설로 입은 피해 처리에 관해서는 지부 대인 쪽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니, 그에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해야 했다. 일이 복잡하여 당분간은 초구기의 일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기왕 그와는 엮이지 않기로 했기에, 부원령은 초구기 주종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노양부로 떠나고자 했다. 고 관사는 그녀의 결정을 알고 일부러 소작인들을 불러 모아 녹명산도의 눈을 치우게 했다. 부원령이 상을 주자, 자연히 다들 의욕이 솟았다.

* * *

초구기가 깨어났을 무렵, 부원령은 이미 부씨 저택 정당(正堂 – 집의 중심이 되는 방)에 앉아서 지부 대인이 보낸 관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사람, 돈, 양식을 내놓는 것쯤이야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인께서 말씀만 하시면 당연히 부씨 가문에서는 대인을 지원해 드릴 겁니다.”

부원령은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담담한 표정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조금 서려 있었다.

“단지, 저희더러 제일 먼저 죽 배급소를 열라고 하셨는데, 이건 좀 어렵겠습니다.”

부씨 가문에서 제일 먼저 죽 배급소를 열었다가는 남들의 눈엣가시가 되지 않겠는가?

만약 어머니나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라면 제일 먼저 죽 배급소를 열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고아인 그녀 혼자만 남아 있는데, 이런 일을 다시 했다가는 무례하게 잘난 척 나선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었다.

신분이든 지위든, 노양부의 상인 서열로 따지든, 그녀처럼 어린 후배가 먼저 나서기는 좋지 않았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해서는 안 되었다.

게다가 그녀도 이게 정말로 지부 대인의 뜻인지 조금 의심스러웠다. 이 사람이 지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은 있으나 잘 알지는 못했다. 그런데 오늘 집으로 찾아와서 압력을 넣는다니..... 지금 폭설을 구실로 누군가가 부씨 가문을 노리는 것일지도 몰랐다.

“부 낭자, 너무 겸손하신 것 아니오. 애초 자당(慈堂 – 남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과 왕대인(王大人 – 남의 할아버지를 부르는 말)께서 살아 계실 적에 이런 일이 생기면, 부씨 가문에서는 제일 먼저 대인의 근심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 낭자가 부씨 가문의 명성을 떨어트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말로 협박하겠다는 건가?’

부원령은 곤란하다는 기색을 떠올리며 상대방을 보았다.

“도(塗) 대인의 호의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상중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불경을 베껴서 부처님께 바치려고 하다 보니, 사실상 남들 앞에 얼굴을 내밀기 곤란합니다.

하지만 도 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양식을 내놓는 만큼, 저희 부씨 가문에서도 절대 그보다 적게 내놓지는 않을 겁니다.”

도목달(塗木達)의 얼굴에 언짢음이 떠오르고 눈빛도 날카로워졌다. 부원령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가 두렵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인배는 끈질긴 법이다. 그래서 그녀는 짐짓 공손한 체하면서 서둘러 한 마디 토로했다.

“물론, 이 일로 도 대인을 난처하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부 대인께는 제가 직접 가서 사죄하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목달은 어리둥절했다. 설마하니 부원령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정말로 그를 걱정한다는 뜻일까, 아니면 이 일을 지부 대인에게 낱낱이 고하러 가겠다고 경고하는 걸까?

도목달은 부원령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생각하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변하고 또 변했다. 결국 그는 몸을 일으켜 작별 인사를 했다.

“부 남자의 호심을 방해할 수는 없지요. 그럼 대인께 그렇게 아뢰겠습니다.”

부원령은 그 황량몽을 끈 뒤로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다. 일 처리도 더욱 원만해진 데다가 예리함마저 더해졌다.

만약 선량함을 베풀고 싶다면 본인이 먼저 갑옷을 입어야만 한다. 소인배의 발판이 되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도목달이 한발 물러서는 것으로, 자신의 경고가 효과를 발휘했음을 알았다. 이 사람은 역시 지부 대인을 속이고 사사로이 일을 벌인 거였다.

“도 대인께서 양해해 주시니 소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원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배웅했다. 바깥을 지키고 있던 가

문의 하인 진원(陳元)에게 눈짓하자 진원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더니 살그머니 따라왔다.

부원령이 도목달을 주원의 끝까지 배웅하고, 뒤이어 진원이 계속 그를 배웅했다. 대문을 나서기 전, 진원은 짙은 푸른색 비단으로 만든 조롱박 모양 주머니를 도목달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리고 공손한 태도로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입을 열었다.

“도 대인, 이건 우리 아가씨의 성의입니다. 이런 날씨에 직접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으니, 댁의 아이들과 어르신께 탄이라도 조금 더 때어 드리십시오.”

도목달은 원래 거절하려고 했다. 그러나 탄이라는 말을 듣자 순간 손이 멈칫했다.

그도 돈이 부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석탄은 구하기 힘들었다. 그의 봉록에 탄경(炭敬 - 원래 지방관이 수도의 관리에게 겨울에 탄을 사는데 쓰라고 보내는 돈으로, 뇌물의 성격이 강함)이라는 항목이 있어도, 그 만으로 온 가족이 따뜻하게 날 수 없었다. 다른 곳에서 사고 싶더라도 이런 폭설이 내렸으니, 석탄은 더욱 귀할 터였다.

그런데 부 낭자가 이렇게 세심하게 마음을 써 오자, 자신은 남의 지시를 받고 그녀를 난처하게 만든 게 떠올랐다. 그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겨우 진원을 보면서 입을 열었다.

“부 낭자의 효심이야말로 대의(大義)이니 이 일은 대인께서도 칭찬하실 것이네. 단지 지금 노양부가 편안하지 않군. 내 듣기로는 상회에서 새 회장을 추천하려 한다는데 지금 폭설이 내렸으니 딱 알맞은 핑계가 있지 않은가.”

도목달은 이 말을 하고 바로 몸을 돌려 가 버렸다. 진원은 미간을 찡그리더니 내원으로 돌아갔다.

부원령은 진원이 전달한 내용을 들었다. 이 도목달도 제법 재미있는 인물로, 보아하니 그가 여기까지 온 데에도 나름 고충이 있는 모양이었다. 비록 소인배 같은 짓을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런 큰 정보까지 주었다.

진원은 줄곧 부현 밑에 있으면서 부씨 저택의 호위들을 관리했는데, 일 처리가 침착했다. 지금 그가 입을 열었다.

“부의 어르신은 상경에 가셨고, 부현 어르신도 몸을 빼실 수 없습니다. 이번 일은 제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 없네.”

부원령은 이 일을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어차피 노양부에서 부씨 가문은 납작 엎드려 지낼 작정이고, 상회의 일 때문에 남들과 다투지는 않을 예정이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부씨 가문의 적수가 그 자리에 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진원, 자네가 노(盧)씨 가문에 한번 가 보게. 내가 노 백부님께 안부 여쭙는다고 하고, 상중이다 보니 만사를 노 백부님께서 많이 돌보아 주셨으면 한다고 전해주게.”

진원은 깜짝 놀랐다.

“아가씨, 노씨 가문이 회장 자리에 앉게 밀어주실 겁니까?”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 백부님은 믿을 만한 분이야. 그분이 하시는 게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나아. 게다가 이제 우리는 상경으로 가야 하는데, 회장 자리를 놓고 싸울 필요가 없어.”

진원은 아가씨가 왜 꼭 상경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몰랐다. 하지만 그는 부씨 가문과 아가씨에게 줄곧 충성해 왔기에, 더는 캐묻지 않고 당장 일을 처리하러 갔다.

12화 돈 많네!

부원령은 양식과 관련된 일을 처리할 사람을 뽑고, 죽 배급소를 열어 이재민을 돌볼 준비를 해야 했다. 솜에 관한 일도 있었다. 이 솜은 지부 유송근(劉松謹)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니, 이제는 이것 어떻게 눈에 띄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다.

꿈속의 부원령은 서둘러 상경에 가서 생부를 만나느라 눈 피해에 관한 일은 몰랐다. 그래서 유송근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없었고, 둘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지기에 이르렀다. 그녀가 나중에 상경에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것도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 이 줄을 잘 잡고 있어야 했다. 나중에 이게 퇴로가 되어 줄

지도 몰랐다.

“유모, 부정박 아저씨께 와 달라고 해. 그분께 맡길 일이 있어.”

부원령은 부정박에게 직접 유송근을 만나 솜에 관한 일을 알리도록 했다. 일단 눈 피해가 가중되면 솜옷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동사자가 많이 나오면 유송근도 반드시 문책을 당하게 된다.

그러니 지금 그녀는 눈 오는 날 탄을 보내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설중송탄(雪中送炭)이라는 말 그대로, 그의 어려움을 돕는 셈이었다.

‘조용히 처리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유송근은 크게 기뻐했다. 그는 요 며칠 뒷짐을 지고 청당(廳堂 - 모임, 손님 접대를 위해 쓰는 큰 공간) 안만 맴돌며 초조해진 나머지 머리까지 빠질 지경이었다. 노양부의 상인들에게 이재민을 돕도록 솜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들은 각자 이익을 도모하느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피하고 있었다.

며칠 전 부원령이 장원에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그녀 또한 자기를 피하느라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하게 이 아가씨는 의리가 있어, 어쩌다 보니 장원에서 솜을 조금 더 거두었다며 이걸 모조리 이재민을 구호하는 데 쓰도록 내놓았다.

갑자기 부원령의 모친이 사망했을 때가 떠올랐다. 부원령은 부씨가문을 안정시키기 위해 아무 망설임 없이 부씨 가문이 새로 발견한 철광산을 내놓았다. 남자들에게서도 보기 드문, 박력 있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또 그가 눈 피해를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

다. 이 두 가지 일을 조정에 보고하면, 그도 반드시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것들은 그가 지방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을 잘 교화했다는, 실질적인 공적이었다.

이렇게 된 이상, 그도 양심을 외면하고 이 공로들을 자신이 독차지할 수는 없었다. 이 아가씨의 공로를 인정해 달라고 상부에 요청해야 했다.

만약 조정에서 정말로 상을 받게 된다면, 이것도 나중에 그녀의 호신부(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몸에 지니는 부적)가 될 것이다.

단, 이 일이 성사될지 말지는 알 수 없으니 당분간은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만일 성사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체면도 깎일 뿐만 아니라 부 낭자에게 헛된 기쁨만 안겨주는 꼴이었다.

그도 이 일은 아직 마음속에 담아 두기만 했다. 눈 피해를 수습한 다음에 상주문을 올릴 생각이었다.

부원령은 그녀의 결정 때문에 유송근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지금 조금 골치가 아팠다. 초구기와 배수가 그녀를 찾아왔다.

부원령은 모든 일을 처리하고 나자 마음이 편해졌다. 그녀도 노수의(盧守義)의 답변을 받았고, 부씨 가문과 노씨 가문이 동맹을 맺은 셈이었다. 노수의는 부원령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었다.

전씨 가문의 삼부인(三夫人)은 이미 상경으로 갔다고 했다. 아마

전씨 가문의 수장인 전중합(田仲合)이 회장 자리를 차지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 간 모양이었다.

노수익은 삼부인의 친정 쪽 사촌 오라버니가 상경 평녕백부와 인척 관계라고 했다.

이 말을 듣자 부원령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평녕백부 노백야의 첩인 수씨의 사돈이 육씨였다. 그리고 전씨 가문의 삼부인도 육씨로 둘이 사촌 남매지간이니 매우 친할 것이었다.

꿈속의 그녀는 평녕백부의 드넓은 관계망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다. 부씨 가문 사람들은 그녀를 구슬려 돈을 빼낼 생각에 삼황자와 약혼했다는 구실로 그녀가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했고, 그녀가 평녕백부의 일에는 거의 손대지 못하게 했다.

그녀는 심지어 평녕백부 사람도 다 알지 못했다. 노백야는 정처 말고도 첩실을 셋 두었는데 이 네 여인에게서 본 자식들에다가 손자 손녀까지 합해 거대한 가족을 이루어, 세세하게 따져보면 주인 가족은 적어도 삼사십 명이나 되었다.

부원령의 기억에 따르면 그녀와 같은 항렬의 사람만 해도 이십여 명이나 되었다. 모두의 얼굴과 이름을 완전히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느닷없이 전씨 가문의 삼부인 이야기가 나오자,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야 꿈속의 정보에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었다.

만약 전씨 가문이 정말로 육씨 가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거기에다 육씨 가문이 평녕백부의 이름을 빌린다면, 노수익이 전중합과 겨루는 건 조금 위험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부원령으로서는 뽕족한 방법이 없었다. 지금은 평녕백부와 무슨 관계로든 얹히고 싶지 않았기에 평녕백부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무언가를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전씨 가문이 노씨 가문을 누르게 된다면, 그들 부씨 가문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초구기가 여봐란듯이 부씨 저택을 찾아온 것이다. 두 사람의 차림새가 범상치 않은 데다가, 아가씨가 그들의 목숨을 구해주었다고 하니 문간방에서도 막기가 뒤틀렸다. 그래서 사람을 화청으로 안내한 다음, 내원으로 들어가서 보고했다.

부원령은 평녕백부의 일을 생각하는 중에 초구기가 찾아올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터라, 처음에는 얼떨떨했다가 곧 물었다.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돌아다닐 수 있다고?”

며칠 전 장원에 있을 때만 해도 여전히 기절한 상태였다.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단지 문간방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말 하던데요. 아가씨, 직접 만나 보시겠습니까?”

두씨 어멈은 그렇게 묻기는 했지만, 잠시 망설이다가 슬그머니 말했다.

“어쨌든 외간 남자 아닙니까. 우리가 상인 집안이라지만 그래도 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부원령도 두씨 어멈의 뜻을 알았다. 집에 웃어른이 없다 보니 그녀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 외부 손님, 그것도 젊은 남자를 만났다고 소문이 나면 그녀의 명성에도 좋지 못했다.

게다가 부원령도 베푼 은혜를 보답받으려는 생각이 없었다. 초구기와 어떤 방식으로든 얹히고 싶은 생각도 그다지 없어서 이렇게만 말했다.

“그럼 부헌 아저씨를 보내서 내가 손님을 맞이하기 곤란하다고 해. 그리고 그들을 도운 건 별일이 아니니 마음에 두지 마시라고도 하고.”

* * *

이때 초구기는 팔걸이 의자에 앉아 부씨 가문의 화청을 가늠하고 있었다. 평소 손님을 접대할 때 쓰는 곳이라 그런지 대단히 신경을 써서 꾸며 놓은 걸 알아볼 수 있었고, 바닥에 깔 낙타색 깔개는 부드럽고 폭신했다.

창가에는 높은 탁자 몇 개가 고즈넉이 자리하고, 탁자 위에는 매화 중 음력 선달에 꽃이 피는 납매 분재가 짙은 향기를 뿜으며 놓여 있었다. 이러한 납매는 노련한 정원사가 공들여 길러내도 일년에 몇 그루나 키울 수 있을지 몰랐기에,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부씨 저택의 화청에는 이런 분재가 네 그루나 있는데다 심지어 꽃의 색깔도 모조리 달랐다.

초구기의 눈썹이 살짝 일그러졌다. 그의 감상은 딱 세 글자였다.

‘돈 많네!’

배수는 자기 주인이 이렇게 실내를 어슬렁거리면서 때때로 혀를 차는 모습을 보고 있으려니 속으로는 절로 눈이 흘겨졌다.

그의 황자께서 부럽고 질투가 나다 못해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게 뻔히 보였다. 그러게 누가 저 상전더러 돈 줄줄 새는 팔자를 타고 나겠을까.

청암사의 땡추중이 예전에 주인의 운명을 점쳐 준 적이 있었는데, 하는 소리가 주인님은 평생 돈이 줄줄 새는 팔자를 타고나셨단다. 손에 돈이 들어와도 절대 두 달을 못 넘긴다나.

반달 내에 자기가 써서 없애지 않으면 온갖 사건 사고가 터져서 반드시 돈 나갈 일이 생기곤 했다.

요 몇 년간 당한 일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속이 쓰려 눈물이 앞을 가렸다.

그런데 이 부씨 가문은 그가 아는 것보다 훨씬 부유한 모양이었다. 벽에 걸린 대가의 그림만 보더라도 진품이었다.

화청 안에 가득한 황화리(黃花梨 – 고급 목재의 일종)으로 만든 탁자와 의자는 모두 아교 칠을 해서 관리했는데, 이 광택만 보아도 이 가구가 모두 유서 깊은 물건이며 대단히 잘 관리했음을 알 수 있었다. 화청 안의 가구만 가지고도 평범한 저택을 열 몇 채는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실내 장식 좀 보라지.’

배수마저도 질투심이 조금 날 정도였다.

바로 그때 시녀가 차를 들고 들어왔다. 정교한 인물화가 들어간 선명한 오색 찻잔은 매우 얇아 투명해 보일 정도였다. 찻잔 안에 든 엷은 녹색 차물은 색깔과 향을 보건대 상등급 녹차인 벽라춘임을 바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호강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배수는 다시 자신의 주인을 쳐다보았다. 어쩔 저렇게 처량함이 흐를까.

“너 눈빛이 그게 뭐냐?”

초구기의 시선이 그 분재에서 서서히 떨어지더니 배수를 향했다. 이놈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자기를 조롱하는 듯했다.

“주인님, 차라도 드시지요. 반나절 길을 왔으니 목이 마르시겠지요? 상등급 벽라춘입니다. 수색이 맑고 향도 짙군요. 주인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겁니다.”

배수는 당장 찻잔을 가지고 오면서 알랑거리듯 말했다.

“하.”

초구기가 거만하게 앉았다.

“말해봐. 방금 무슨 생각을 했어? 네 상전 속일 생각은 하지도 마라.”

초구기는 찻잔을 입에 가져다 대더니, 눈썹 끝을 살짝 치켜올렸다.

“좋은 차로군.”

“부씨 가문이 역시 집안도 크고 재산도 많다더니, 손님을 접대하는 데도 이렇게 좋은 차를 쓰는군요. 돈이 많은가 봅니다.”

배수는 한숨을 쉬었다. 만약 여기가 상경이었더라면 상전에게 대접한 차가 변변치 않다는 구실로 탁자를 뒤엎고 가더라도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여기는 노양부였다. 게다가 주인의 신분을 모르면서도 이런 좋은 차로 접대를 했다. 돈이 많고 통이 크다는 말 말고는 뭐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초구기의 눈꼬리가 살짝 치켜 올라갔다. 그 섬세함 속에 날카로움을 품은 결눈으로 배수를 싹 훑어보았다.

“왜, 네 주인님 따라다니느라 억울하냐?”

배수는 당장 정색하며 말했다.

“주인님을 위해 일하는 건 제 복입니다.”

초구기는 피식 웃음소리를 냈다.

‘이 망할 녀석아. 입에 침이나 좀 바르고 말해라.’

“가서 좀 보라. 왜 아직 아무도 안 온단 말이나.”

초구기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이 부씨 가문은 손님 접대가 영 산만하군.’

다행히 구황자는 오늘 기분이 좋았다. 그래서 이런 거로 따지지는 않기로 했다.

배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서둘러 몸을 돌려 바깥으로 가려 하는데, 입구에서 낯선 이와 딱 마주쳤다. 본 적 없는 얼굴.

다른 사람이 아닌 진원이었다.

진원은 부현이 늘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지금 부현은 눈 피해 때문에 아가씨를 대신해 바깥을 돌아다니느라 도저히 몸을 뺄 수 없어, 진원이 저택 안의 일을 도맡고 있었다.

오늘은 손님이 방문한 데다가 남자 손님이었기에 진원은 내원에 있는 아가씨의 분부를 받고 총총히 달려왔다.

“손님, 죄송합니다. 저희 아가씨께서는 현재 상중이라 외부 손님을 뵙기가 곤란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진원은 이 둘이 아가씨가 구해준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을 슬쩍 훑어보자마자 내심 철렁했다.

13화 뭐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다 있담

두 사람이 입고 있는 거친 천의 옷은 시골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산 게 분명했지만, 온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 진원이 문가에서 맞닥뜨린 사람은 물론이고,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번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느낌이 들었다.

뺨속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그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다. 진원은 서둘러 인사를 하면서도 괜히 아가씨에게 불뚱이 튈까 두려워 절로 조심스러운 마음이 일었다.

진원이 그렇게 말하자 초구기도 그제야 떠올랐다.

‘참, 이 집안 아가씨가 아직 상중이었구나.’

초구기라는 이 인물은 보지 못하게 하면 꼭 보고 싶어 하는 괴팍한 성미의 소유자였다.

하나, 이 아가씨는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었다. 만약 억지로 만나려고 하면, 자기가 배은망덕한 놈이 되지 않겠는가?

‘쯧쯧, 이거 곤란하게 됐는데.’

배수는 주인의 미간에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걸 보자 가슴이 떨렸다. 자기 상전의 성질머리를 가장 잘 아는 터라 서둘러 앞으로 다

가갔다.

“주인님, 이 댁 아가씨가 아직 상중이랍니다.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다음에 찾아와 감사드려도 괜찮을 겁니다. 벌써 연말이 되었으니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셔서 설을 쇠어야지요.”

설인데도 구황자가 상경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황제 폐하께서 불호령이라도 떨어트려 보라. 댄 사람은 몰라도 그의 엉덩이에서는 불이 날 게 뻔했다.

게다가 주인의 심사가 꼬이기 시작하면 답이 없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면서 결국 은인과 척졌다가는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겠는가?

초구기는 그날 자신을 구해준 아가씨가 꼭 보고 싶었던 터라 김이 팍 새 버렸다. 그때는 상처가 심한 나머지 혼수상태에 빠지는 바람에 사람을 보지 못했지만, 구슬처럼 맑은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고운 목소리는 청량하기도 부드러운 비단 같기도 해서 내심 그에 연상된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깝네.’

“좋다. 그럼 너희 아가씨께 목숨을 구해준 은혜는 다음에 갚겠다고 전해라. 이건 증표이니, 나중에 상경에 올 일이 있다면 이걸 가지고 날 찾아오면 된다.”

초구기가 막돼먹은 구석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혜와 원한은 확실히 갚을 줄 알았다.

아가씨의 얼굴이 궁금하더라도 자신을 구해준 은혜를 잊을 수는 없었다.

그는 꿈틀대는 용이 새겨진 반룡(蟠龍) 옥패를 풀어 탁자 위에 두었다.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비싼 물건인지라, 조금 속이 쓰리기는 했다.

게다가 이 옥패는 아버지가 준 물건이었기에, 만약 딴 사람에게 준 걸 아는 날에는 또 반나절 동안 욕을 먹어야 할 게 뻔했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났다.

‘하지만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남았는걸.’

그는 후회할까 봐 이를 악물고 성큼성큼 밖으로 나갔다.

진원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 두 주종은 바람처럼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이 옥패를 아가씨가 받을지 말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던져두고 가 버리면 그가 일 처리를 제대로 못 한 꼴이 되지 않나?

진원은 이 옥패를 움켜쥐고 당장 쫓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문밖으로 따라 나가자 말 두 필의 꿈무늬만 보였을 뿐, 사람은 벌써 멀리 떠난 뒤였다.

진원은 어두운 얼굴로 돌아왔다. 지금 아는 것이라고는 생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러 왔다는 사람들이 어째서인지 죽기살기로 도망쳐 버렸다는 것뿐이다.

진원은 하는 수 없이 옥패를 꼭 움켜쥐고 후원으로 가서 두씨 어머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전할 때가

되어서야 또 생각이 났다.

‘이 사람은 옥패 하나만 달랑 남겼잖아. 심지어 어디 사는지, 이름이 무엇지도 말 안 했는데, 어떻게 찾으라고?’

뭐 이런 대책 없는 사람이 다 있담!’

천하에 구황자 초구기가 대책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초구기 역시, 자신을 못 찾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 * *

부원령은 손안의 반룡 옥패를 쥐고 미묘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 옥패가 어쩌다 또 내 손에 들어왔을까.’

꿈속의 그도 그녀에게 이 옥패를 주었다. 그녀는 이 옥패를 가지고 곤경을 헤쳐나갔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와 목숨을 한 번 건졌다.

그런데 지금, 그가 목숨을 구해준 은혜에 감사한다며 이 옥패를 또 내놓을 줄은 몰랐다.

‘이 세상에 이렇게 공교로운 일이 있을까? 정말 인과라는 게 있는 건가?’

생각할수록 이상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상경에 간 다음, 기회를 찾아 돌려주는 수밖에 없었다.

이 옥패는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 함부로 받을 수는 없었다.

부원령은 초구기에 관한 일은 어차피 상경에 간 다음에야 처리할 수 있는 일이었기에 일단 제쳐 놓기로 했다.

당장은 눈앞에 닥친 일이 급했다. 이번 눈 피해는 꿈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점점 심각해졌다. 지부 유송근은 온 성 사람을 동원해 재난에 대처하고 있었고, 노양부의 상회도 이 틈을 타서 새로운 회장 후보를 추천받고 있었다. 명목상으로는 새 회장에게 노양부 상인들의 힘을 모아 재난을 대처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길 거라고 했다.

상회의 전임 회장은 부원령의 어머니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고 회장을 새로 선출해야 했으나 이 자리를 넘보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줄곧 각자 사사로이 힘을 겨루며 각축전을 벌이느라 시간을 끄는 사이 지금의 큰 재해가 닥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부원령이라는 어린 아가씨는 안중에 두지도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살아 있을 적에는 조금이나마 조심하는 기색이

있었으나 지금은 달랐다.

어린 아가씨 혼자서, 설령 경영에 재능을 조금 타고 났다고 하더라도 그 어린 나이로 누구를 제압하겠는가?

상업계의 수많은 선배가 버티고 있으니 그녀도 그 자리에 앉을 생각은 못 할 것이다.

다들 마음속으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부씨 가문이라 마음에 걸리는 점도 있었다.

특히 부원령이 어린 나이에든 불구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단 몇 달 만에 부씨가문의 모든 사업을 완전히 장악한 것과 부씨가문에서 관사를 대폭 갈아치운 사건도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이런 상태에서 회장을 새로 뽑게 되었으니, 부원령 어린 아가씨가 나선다면 그녀의 모친이 전임 회장임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는 체면을 보아줄 요량이었다.

하지만 부원령은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었다. 어머니의 상을 치른다는 구실로 모든 요청을 거절하고, 부씨 가문의 추천권으로 직접 노수의를 다음 회장으로 추천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더라면 어느 정도 밀고 당기기를 했지,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한쪽으로 힘을 몰아주는 일은 절대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비웃었다.

“어린 아가씨는 역시 어린 아가씨로군. 경영에 재능이 조금 있다

한들 세상 물정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건 어쩔 수 없어. 일을 너무 경솔하게 처리했어.”

“이제 부씨 가문은 예전의 그 부씨 가문이 아니야.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처녀가 좀 똑똑하다 한들 어쩔 건가?”

부씨 가문의 거대한 재산을 몰래 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심지어 부씨 가문의 구역을 어떻게 나누어 먹을지 궁리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때 부원령은 은밀한 다관(茶館)에서 노수익과 만나고 있었다. 노씨 가문이 경영하는 곳이었으므로 남에게 들킬 염려는 없었다.

“조카, 이번에는 자네가 준 소식 덕에 큰 덕을 봤다네.”

노수익은 복스러운 얼굴을 타고나서, 웃으면 미륵불처럼 보였다.

“백부님,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모친상을 치를 적에 백부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때 신세 진 걸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답니다.”

부원령이 눈매를 휘며 웃을 때는 맞은편에 있는 미륵불과 마찬가지로, 전혀 공격성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모습만 보면 매우 말이 잘 통할 것 같은 성격처럼 보였다.

노수익은 크게 웃음을 터트렸다.

“그렇지, 우리 두 집안 교분에 이렇게 걸치레하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겠지. 그런데 나도 참 궁금하구먼. 어떻게 전씨 가문 삼부인의 사촌 오라비, 그 육 대인이 몰래 외실을 두고 서장자(庶長子)를 낳은 일을 알았는가?”

당연히 그 황량몽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었지만 사실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부원령은 그저 웃기만 하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집안이 오강(吳江) 근처에서 벌인 사업이 조금 있어서, 어쩌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평녕백부의 사위인 육탄(陸坦)은 오강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관직도 제법 높아서 군사를 지휘하는 도지휘사의 부관 정삼품(正三品) 도지휘첨사였는데, 이는 꽤 실권을 손에 쥔 직책이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육탄이 평녕백부를 믿고 관리 노릇을 하는 만큼, 부인에게 자신이 밖에 외실을 둔 데다가 서장자까지 보았음을 밝힐 수는 없었다.

이는 어마어마한 약점이었다.

노수의는 부원령의 말을 듣고 더는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안목이 훌륭하다고 여겼다.

처음에 다른 사람들은 부씨 가문이 부원령의 손에 넘어가자, 조만간 남에게 먹힐 거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힘들이지 않고 얻어냈다.

이로 보건대 그녀는 이미 부씨 가문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았다. 자신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전씨 가문이 육씨 가문과 평녕백부의 위세를 빌리지 못하게 했다. 이것만 해도 놀라웠다.

이렇게 되자 노수의가 부원령을 대하는 태도에도 약간 변화가 생

겼다. 후배를 대하는 태도에 비해 조금 더 신중히, 높이 평가하면서 은연중에는 그녀를 자신과 동급으로 대하고 있었다.

노수의는 부원령을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자기 아들 녀석들은 부원령의 눈에는 차지도 않을 것이었다.

“전중합이 육씨 가문과 평녕백부의 위세를 빌리지 못한다면, 나와 회장 자리를 놓고 다툴 실력이 안 되겠지.”

노수의가 말했다.

그 말에 부원령이 살짝 웃었다.

“백부님께서는 의리가 있고 사람을 선의로 대하시잖아요. 백부님 처럼 덕망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앉아야 뒷말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전씨 가문에서는 늘 인정사정이라고는 없죠. 다른 상인이 보기에 그들의 수완은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게 못 돼요. 만약 그런 인물이 회장 자리에 앉으면 노양부 상인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어요.

원령은 나이도 어리고, 저희 집안을 생각해야 하니 앞으로는 백부님께 기대야지요.”

이는 비호를 부탁한다는 뜻이었다. 노수의와 부씨 가문은 원래 사이가 좋았고 이번에는 부원령의 도움을 받았다. 이 아가씨에 대한 호감도는 쭉 올라갔다.

“조카, 안심하게. 그런데 내가 듣기에 평녕백부에서 친자 확인을 하러 왔다던데.....”

이 일은 또 평녕백부와 얽혀 있었다. 이번에 부원령은 육탄의 약점을 막 손에 쥔 참이었다.

‘만약 평녕백부와 부원령이 정말 관계가 있다면, 이건.....’

“백부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쪽에서 친자 확인을 하러 왔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거 같아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분명히 종매인을 두고 정식으로 혼인하셨고 이 일을 노양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야 당연하지. 그 혼사를 치를 적에 혼수 행렬만 십 리를 이어졌는데. 아직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 아닌가.”

“그런데 평녕백부에서는 자기네 백야가 밖에 둔 외실을 찾으러 왔대요. 저희 집이랑은 무관하죠.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본 거 같아요.”

14화 미안했소

노수익은 그 말을 듣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당장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외실을 찾는데 왜 자네 집에 간단 말인가. 지금 집안에 어른이 없다고 부씨 가문 재산을 눈독 들이는 속셈이 아니고서야, 정말이지 뻔뻔하기 짝이 없군!”

노수의를 말을 마치자마자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는 부원령을 보며 조금 망설였지만, 그래도 이 아가씨의 성격을 생각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조카, 내가 너무 솔직하다고 탓하지 마시게. 당시에 모친께서 부친의 사정에 대해 말해 준 적이 없는가? 최소한 이름은 말한 적이 있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니 백부님께 여쭙 게 있어요. 옛날 어머니가 혼인하실 적, 혹시 아버지 이름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부원령은 점잖게 웃는 얼굴로 가볍게 말했다.

노수의를 어리둥절하다가 고개를 번쩍 들고 눈앞의 아가씨를 보았다. 많지도 않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침착하고 점잖은 표정이었다. 그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벌써 십여 년이나 지난 일이지는 하지만, 내 기억으로는 아마 성이 부씨고 이름이 가(嘉)라고 했던 것 같네.”

“네. 백부님 기억이 맞아요. 제 아버지 성은 부씨예요. 평녕백부도 부씨라지만, 이름이 다르잖아요. 한 사람은 부가, 한 사람은 부가염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어떻게 제 아버지이겠어요.”

부원령이 웃으면서 말했다.

노수의를 어렴풋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부원령이 딱 잘라

말하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확실히. 이름이 다르구나. 그런데 상경에 있는 백작 가문에서 이런 식으로 친자 확인을 하려 하다니.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큰 웃음거리가 될 거다.”

사실 어머니는 부가라는 이름이 가명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본명이 부가염이라는 사실도 알려 주었다. 그저 아버지가 가명을 쓴 데는 고충이 있어서, 가족들과 싸워서 집을 나온 바람에 남들의 이목을 가리느라 잠시 이름을 바꾼 거라고 했다.

그러니 그녀의 어머니도 부가염이 바로 평녕백부의 백작인 줄은, 그녀의 생부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몰랐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꿈속의 자신도 그렇게 가벼이 부씨 가문에서 온 사람을 따라 상경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 이 일에서만큼은 그녀와 어머니는 똑같이 순진했다. 군자처럼 겉만 번드르르한 인면수심의 사내를 너무 믿어버렸다. 사실은 그와 달랐다.

당시 그는 어머니의 미모에 반했지만, 집에서는 그가 상인 가문의 딸을 맞이하게 할 리가 없음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이런 졸렬한 구실을 대어 사기 혼인을 한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부가가 진짜 이름을 어머니에게 왜 알려 주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나중에는 정말로 조금이나마 감정이 생긴 걸까? 그걸 누가 알아.’

그리고 이러한 일은 꿈속의 그녀가 죽기 전, 적녀 부선의의 입을 통해 확인한 것이었다.

그 시커먼 속셈을 품은 사내는 그녀를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속였다.

그러니 그녀가 어떻게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금, 꿈속의 그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노양부 부씨 가문의 하나뿐인 아가씨였고 자유로운 몸이었다. 그러니 절대로 다시는 상경 부씨 가문이라는 호랑이 굴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평녕백부에서 친자 확인을 하러 왔을 때 저는 당연히 거절했어요. 그저 제 어머니는 중매인을 두고 정식으로 혼인한 정처라고만 했고, 아버지의 이름은 말하지도 않았어요. 양쪽 집안에 서로 여지를 둔 거죠. 이렇게 했으니 평녕백부에서도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부원령은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곧 몸을 일으켰다.

“백부님, 이 일은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어요. 상회에 추천하는 일도 이미 결정했고요. 나머지 일에는 더는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노수희는 이 아가씨가 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에 들었다. 일 처리가 침착하면서도 대범했고,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도 다 이유가 있었다. 말로도 허튼소리를 하지 않았다.

‘왜 우리 집안 자식 중에는 이런 아이가 없을까?’

“조카, 걱정하지 말게. 자네가 상중인 걸 아네. 나머지 일은 내가 자네 몫까지 나설 걸세.”

노수의도 노양부라는 지역에서 이만한 일은 해 줄 수 있을 만큼의 힘은 있었다.

“그러면 백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원령을 몸을 숙여 예를 올리고 나서야 작별 인사를 했다.

돌아가는 마차 안에서 부원령은 눈을 반쯤 감은 채 설을 쉰 뒤 상경으로 가는 일을 자세히 생각했다.

우선 제일 골칫거리는 평녕백부였다.

부씨 가문의 재산을 얻기 위해 부가염은 과거에 자기가 가명을 썼던 일까지 염치 불고하고 인정했다. 게다가 그가 뻔뻔하게도 자신을 친자로 인정하려 든다면, 당시 혼례에 참석했던 사람을 찾아다가 증인으로 내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다.

과거 그 혼사를 위해 부씨 가문에서는 사흘 내내 유수석(流水席 - 자리를 지정하지 않고 오는 대로 앉는 방식)을 차렸고, 그때 부가염을 본 사람이 부지기수였다. 이 사실만큼은 잡아떼 수 없었다.

이름은 바꿀 수 있지만, 그 얼굴은 그대로였으니.

완전히 부인하는 건 불가능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인정할지는 상경 부씨 가문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가 미리 우세를 장악한 만큼, 자기 이익을 최대한 챙겨야만

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원례가 조용히 아가씨를 깨웠다. 마차에 탄 뒤 아가씨의 심기가 불편해 보여서, 그녀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응, 내리자.”

원례가 가림막을 걷고 먼저 마차에서 내려 아가씨가 내리도록 부촉했다.

주종 둘이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문간방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더니 허리를 숙여 절을 했다.

“아가씨, 오늘 상경에서 사람이 왔는데 커다란 상자를 보내왔습니다. 아가씨께 드리는 거랍니다.”

부원령은 무의식적으로 평녕백부를 떠올렸다. 얼굴에는 약간 의외라는 기색이 떠올랐다.

“그 사람은 어디 있지?”

“상자만 놔두고 가 버렸습니다. 제가 쫓아가기는 했는데 따라잡지도 못했습니다.”

문간방 사람은 안절부절못했다. 안 그래도 그 사람과 이 일로 한참 실랑이를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부씨 저택이 호랑이 소굴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었다.

부원령은 어리둥절했다.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세상 모든 사람을

깔보고 비웃는 듯한 초구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물건은?”

그녀는 거의 확신했다. 그 상자는 아마 평녕백부에서 보낸 것이 아니리라.

“아가씨의 분부가 없어 문간방에 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라.”

부원령이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다.

“네.”

원례는 아가씨의 뒤를 따라 내원으로 갔다. 누가 물건을 보냈는지 조금 호기심이 생겨, 발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아가씨, 누가 보낸 물건일까요? 이상하기도 하죠. 누가 물건을 버려두고 도망갔을까요?”

그녀도 부씨 가문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지만, 이런 일은 아직 겪어본 적이 없었다.

“보면 알겠지.”

부원령이 고개를 돌려 원례를 보았다. 늘 침착한 원례가 이렇게 호기심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었다.

원례는 아가씨의 시선에 조금 얼굴이 붉어져 바로 고개를 숙이고 아가씨를 따라 문 안으로 들어갔다. 두씨 어머님과 몇몇 사람이 나

오더니 아가씨가 옷을 갈아입도록 시중을 들었다.

겉에 입고 있던 하늘색 창의를 벗자 사람이 한결 가뿐해 보였다. 추위와 바람을 막기 위한 창의 안은 완전한 여우 가죽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몸에 걸치면 풍채가 좋아 보였다.

그녀가 간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리에 앉자, 문간방 사람이 상자를 들고 왔다.

두씨 어머님이 사람을 시켜 상자를 방 안으로 들이게 하고, 원지와 원신도 구경을 오자 방 안이 떠들썩해졌다.

부원령은 그들의 생기발랄한 얼굴을 보자 기분이 좋아져서 말했다.

“원레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봐.”

원레가 신이 나서 대답하며 상자를 열었다. 그녀는 한번 훑어본 순간 탄성을 지르더니 고개를 돌려 아가씨를 보았다.

부원령과 원레가 눈을 마주쳤다.

“왜 그래?”

“아가씨, 안에 흰여우 갓옷이 들어있어요.”

‘흰여우 갓옷?’

부원은 처음에는 조금 놀라 눈썹 끝이 살짝 치켜 올라갔지만, 마음속으로 짚이는 곳이 있었다.

원지가 순식간에 흰여우 갓옷을 꺼내 원신과 함께 둘이서 한쪽씩 붙잡고 짹 펼쳤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털에는 솔향이 살짝 배어 있었다. 이것처럼 전체가 눈처럼 희고 잡털 한 올 섞이지 않은 여우 갓옷은 정말 구하기 힘들뿐더러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비쌌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옷을 구하더라도 조심스럽게 관리해야만 오래 입을 수 있었다.

“아가씨, 이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어머, 편지인데요.”

두씨 어멈과 원례가 상자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부원령은 편지를 뜯고 두씨 어멈과 원례는 상자를 열어보았다.

얇은 봉투 안에는 달랑 한 장에 간단하게 한마디만 쓰여 있었다.

「미안했소」

힘찬 필적에는 무심하고 제멋대로인 성정이 드러났다. 필체는 그 사람을 나타낸다더니, 역시 그 사람의 눈빛을 고스란히 닮았다.

그렇다. 마차 안에서 그가 그녀의 갓옷에 구토하는 바람에 옷을 망가트렸다.

‘정신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 일을 알고 있을까?’

“아가씨, 이..... 이것 좀 보세요.”

부원령은 유모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순간 삼척이나 되는 홍산호가 눈앞에 나타났다. 색깔이 매우 곱고 모양도 완벽했다.

부씨 저택에도 산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큼 크지도 않았고 색깔도 조금 못했다. 옛날 외할아버지가 그 산호를 사서 선물해 주었을 때도 몇만 냥이 들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 홍산호는 그녀의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비싼 것이었다.

부원령은 초구기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보낼 줄은 몰랐기에 머리가 아팠다. 설령 목숨을 구해준 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가 치고는 너무 많았다.

게다가 구황자 전하 초구기에게는 별명이 있었다. 바로 돈을 뿌리는 손이라는 뜻의 ‘산재수(散財手)’.

이 사람은 돈이 줄줄 새는 팔자를 타고난 덕에 돈을 쥐고 있지 못했다.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의 손에 들어온 돈은 반달 안에 써 버리지 않으면 온갖 사건 사고로 빠져나갈 일이 생기는 사람이었다.

상경에서는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몰래 비웃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줄줄 새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귀중한 물건이 나서 내게 주었을까?’

“아가씨. 이, 이 물건들을 어찌죠?”

두씨 어머님이 미간을 찡그리며 물었다. 이 물건들이 보통 비싼 게 아니다 보니, 이렇게 받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돌려보내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원례는 그 여우 갓옷을 보자마자 마차 안에서의 소동을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짚이는 곳이 있어 살그머니 말했다.

“생각 외로 예의를 아는 사람이었네요.”

“어머, 원례야. 누가 보냈는지 알아?”

원신과 원지가 그녀를 보면서 물었다.

“며칠 전에 아가씨가 장원에 가는 길에 사람 둘을 구했잖아? 그중 한 사람이 아가씨 마차에서 토하는 바람에 아가씨 옷을 더럽혔거든. 이 갓옷으로 그 옷을 물어주려나 봐.”

원례가 설명해 주었다.

이렇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도 생각이 났다. 그 여우 갓옷은 토사물이 묻어 더는 입을 수가 없어서 얼마나 아까웠는지 모른다.

생각지도 못한 일에 두씨 어머님도 아가씨를 보면서 말했다.

“아가씨가 헛수고하신 게 아니었네요. 은혜를 알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갓옷이야 받아 두더라도 별일 없겠지만, 이 홍산호는 어쩐다죠?”

15화 내가 매우 신임하는 사람

이 홍산호는 보통 귀한 게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애물단지처럼 느껴졌다.

부원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홍산호를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지금은 돌려보낼 방법도 없잖아. 게다가 그 사람 성미를 보건대 돌려보내더라도 받지도 않을 거야.”

그가 그 괴팍한 성미를 부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걸 부숴 버릴지도 모른다.

두씨 어멈은 조금 이상하다는 듯 아가씨를 흘끗 보았다.

‘아가씨 말만 들으면 그 사람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원지가 물었다.

“그럼 그냥 받아 둘까요?”

“일단 고방에 넣어 뒀. 설 쇠고 난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

부원령은 설을 쇠고 난 뒤 상경에 가려는 중이었다. 상경이 가면 그를 만날 기회도 있을 테니, 그때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다.

게다가 돈이 줄줄 새는 구황자 전하의 천성을 보자면, 이 물건을 그에게 돌려주더라도 며칠 뒤에는 주인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내가 일단 맡아 두는 거로 하자.’

* * *

부씨 가문은 상중이라 올해 설을 떠들썩하게 보내지 않았고, 부원령도 흥겹게 보낼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저택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자, 온 집안이 즐거운 분위기로 뒤덮였다.

예전 선달그믐은 어머니, 그녀, 외할아버지와 함께 보냈다. 외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모녀 둘이 선달그믐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 혼자 남았다.

이 무렵 꿈속에서는....., 그녀는 평녕백부에 도착해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했다.

꿈속의 그녀는 상중이라 소복을 입고 있었다. 그 바람에 남들에게 불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똑똑히 기억났다. 꿈속에서는 부가염이 나중에 맞이한 처 석씨, 즉 평녕백 부인이 그녀를 대신해 몇 마디 편들어 주었는데, 그때의 그녀는 석씨에게 정말로 감격했다.

지금 생각하니 우스웠다.

그녀가 어머니를 위해 상복을 입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였는데. 만약 지금 누군가 그녀의 앞에서 불길하다느니 따위의 말을 지껄였더라면, 그녀는 응당 호통을 쳤을 것이다.

두씨 어머님은 시녀들과 함께 외실에서 바느질하며 찬합에 든 음식을 먹고 여럿이 북적대느라 방 안 분위기도 흥겨웠다.

반면, 부원령은 혼자 침실 창 앞에 서 있었다.

가랑눈이 조금씩 흘날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손을 뻗었고 손바닥에 떨어진 눈꽃은 순식간에 물로 변해 버렸다.

서늘함이 뺨골까지 스몄다.

* * *

이번 폭설 피해 때문에 노양부는 올해 선달그믐에 불꽃을 터트리지 않았다. 온 성 사람들이 폭설로 인한 재해로 근심 걱정이 가득했다.

부씨 가문 하인들은 오늘 밤도 번갈아 당직을 섰다. 당직을 서지 않는 사람은 관아의 명령에 따라 길에 쌓인 눈을 치우러 나가야 했다. 다행히 밤이 되자 가랑눈도 드디어 멈추었다.

좋은 징조였다.

다음 날이 바로 새해 첫날이었다. 오늘도 바쁜 날이라, 부원령은 일찌감치 일어났다. 그녀는 상중이라 직접 새해 인사를 하러 나갈 수는 없었지만, 배첩은 반드시 친필로 써서 보내야만 했다.

조반을 먹고 자리에 앉아 막 붓을 들었을 때였다. 서둘러 들어온 부현의 양어깨가 밖에 오래 있었던 탓에 흠뻑 젖었다.

부원령은 따뜻한 차를 나오게 하고는 물었다.

“아저씨,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서두르세요?”

“부의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부현은 따뜻한 찻잔을 받아 뜨거운 차가 몸을 데우고 나서야 숨을 돌리고 편지를 내밀었다.

“이렇게 빨리요?”

부원령은 당장 기뻐하며 편지를 받아들고는 부현 앞에서 펼쳐 보

았다.

부현은 요 며칠 동안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뺨까지 움푹 꺼졌다. 사람이 날카로워지다 못해 온몸에서 살기마저 흘렀지만, 아가씨 앞이라서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습이었다.

밖을 다니다 보니, 폭설 때문에 피해를 본 백성 중에서도 이 기회를 틈타 행패를 부리려고 하는 무뢰배가 있었다. 그가 딱딱한 얼굴로 대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제압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부현은 원래 도적 출신이라 무예가 출중했다. 부원령의 외할아버지와 인연이 닿아 부씨 가문에 들어온 그가 부씨 가문의 호위를 맡고선 몇십 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가 얼굴을 내밀고 버티고 있는 덕에 부씨 가문의 피해 수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온갖 종류의 소동이 벌어졌고 그 바람에 그의 몸에서 풍기는 사나운 기운도 점점 강해졌다.

“부의가 뭐랍니까?”

부현은 아가씨가 부의를 상경으로 보낸 일과 그녀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었다. 부의는 왜, 라고 묻곤 했지만, 부현은 부의와 달리 부씨 가문의 주인이 하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랐다.

“부의 아저씨가 적당한 집을 구했대요. 전장이나 점포도 몇 군데 손에 넣었고요. 그리고 좋은 밭 몇백 묘가 눈에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망설이는 모양이에요. 계속 거기를 지켜보느라 설에는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대요.”

부원령은 편지를 보고 나서 부현에게 설명해 주었다.

“부의가 이런 일은 잘하지요.”

부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의의 행동에 만족스러움을 표시했다.

“아가씨는 언제 떠나실 예정입니까?”

부원령은 부현을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현은 평소처럼 딱딱한 표정이었다.

“아가씨가 가시겠다고 하는 때 가는 거지요. 아가씨 말대로 할 겁니다.”

부원령은 가볍게 웃었다. 그렇다. 그들은 줄곧 그녀를 우선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전부 그녀 때문에 하나씩 목숨을 잃었갔다.

그녀는 그들을 볼 낮이 없었다.

다행히 지금은 꿈이 아니었고 그녀 역시 꿈속의 그 바보가 아니었다.

“그래도 상원절(上元節 - 음력 정월 대보름)은 지나고 가야지요. 여기 일도 처리해야 하고요. 상경으로 간다지만 노양부 쪽도 버려둘 수는 없으니까 이쪽 사업과 저택은 누군가가 지키고 있어야죠.”

부원령이 천천히 말했다.

부현은 왕년 도적 출신이다 보니 사업에 관해서는 아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저 부씨 가문 주인의 안위만을 신경 썼다. 그 말을 듣자 바로 이렇게 대답했다.

“아가씨는 결정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분부만 하십시오.”

“확실히 아저씨가 해 주셔야 할 일이 있기는 해요. 지금 새로운 부씨 가문 호위대를 꾸리려고 하거든요. 상단 호위대랑은 다른, 저택 호위대요. 실력이 좋고 출신이 깨끗해야 해요. 부씨 가문에 아예 들어올 수 있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가장 좋아요. 실력이 부족하면 훈련하면 되지만, 충성심이 없어서는 안 돼요.”

부현은 살짝 눈썹을 찡그렸다.

“그런 사람은 찾기 힘들 겁니다.”

부씨 가문의 노비가 될 정도로 충성심이 강하고 실력까지 뛰어난 사람이라니. 이 조건은 조금 까다로웠다.

부원령이라고 어렵다는 것을 왜 모르겠는가. 가볍게 웃으면서 덧 붙였다.

“아저씨, 이 호위들은 출신을 따지지 않을 거예요. 아저씨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도 믿을 수 있어요.”

부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침착하게 웃는 아가씨의 얼굴을 보자,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아가씨.....”

“아저씨, 아저씨는 부씨 가문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전 당연히 아저씨를 믿어요.”

부원령은 과거 부현이 어울렸던 형제들이 아직도 바깥을 떠돌며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외할아버지와 어머니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직한 상인인지라 이러한 도망자들과는 깊이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애초에 부현을 구한 것도 우연이었을 뿐, 부현의 다른 형제들까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하지만 부원령은 달랐다. 지금 그녀의 처지는 그리 좋지 못했다. 겹겹이 포위된 정도가 아니라 곳곳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들 같은 도망자들이야말로 중요한 순간에 목숨을 걸고 그녀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부현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서 떠났다. 마음속으로는 조금 주저하고 있었다. 아가씨가 어째서 이렇게 하는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태도가 단호하다는 것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며칠 전 예전에 의형제를 맺은 석승주(石乘舟)의 편지를 받은 참으로, 편지 내용 대부분이 한탄이었다. 형제들의 지금 처지가 고달프고, 바른길을 가고 싶으나 받아 주는 곳이 없다는 답답함을 구구절절 토로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지도 못한 기회가 생겼다.

아가씨는 인재를 모으려 하고 있었다. 단, 석승주 무리가 부씨 가문의 노비가 되려고 할지는 그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아가씨가 그들에게 내건 조건은 노비로서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 빼고는 다 좋았다. 의식주는 말할 것도 없고, 매달 주는 월급만 해도 그들이 도적질하는 것보다 훨씬 쓸쓸했다.

부현은 하룻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하다, 생각 끝에 그래도 편지 한 통을 썼다.

‘될지 안 될지, 일단 물어보거나 하자.’

부현은 석승주에게 편지를 보냈다.

* * *

한편 부원령은 하평과 척약종을 불러와 둘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한 사람은 그녀를 따라 상경으로 가야 했고, 한 사람은 노양부 본가를 지켜야 했다.

다른 사람은 부원령이 믿을 수가 없었다.

하평과 척약중은 최근 대단히 바빴다. 아가씨의 일련의 행동 이래, 그들은 대관사로 승진했으므로 그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이 곱절로 늘었다. 게다가 아가씨의 사업을 확장하려는 의도 덕에 그들은 더욱 바빠졌다.

그런데 오늘 그 둘을 이러한 용건으로 불렀을 줄은 짐작도 못 했다. 하평과 척약중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둘 다 당장 입을 열지 못했다.

부원령도 재촉하지 않았다. 서쪽 화청 안은 화로를 피운 덕에 훈훈해서, 오늘 그녀는 위아래가 하나로 된 열은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고상함이 더욱 돋보였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해초 무늬 찻잔을 탁자 위에 두고 나서야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보았다.

“내 생각에는 척 관사가 날 따라 상경으로 가고, 하 관사가 남아 주었으면 좋겠네.

척 관사는 상점을 관리하느라 사방으로 뛰어다녀야 보았으니까 상경에 발을 붙이기 더욱 쉽겠지.

하 관사는 전장 관리와 땅을 경작하는 일에 더욱 경험이 풍부하잖나. 노양부의 부씨 저택도 누군가가 살펴주어야 하니, 이 사무들을 인수인계하려면 더욱 번거롭겠지.”

부원령은 여유롭게 입을 열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살짝 변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았다.

하평은 딸린 가족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척약중은 달랐다. 그는 행상을 더욱 좋아했기에 그가 그녀를 따라 상경으로 가면 물고기가 물을 얻은 듯이 활약할 것이다.

“날 따라 상경으로 가든, 노양부에 남아서 저택을 지키든 모두 중요한 일이네. 상경으로 가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아야 하고, 노양부를 지키게 되면 우리의 후방을 책임져야 하니 똑같이 중요해.”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부원령의 표정도 진지해졌다.

“둘은 내가 매우 신임하는 사람이니, 자네들이 아니면 안 되네.”

하평과 척약중은 마음이 흔들렸다. 아가씨가 그들을 이렇게 중시할 줄은 몰랐다. 마음속에서 호기로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기왕 부씨 가문과 계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부씨 가문이 더욱 잘 되기를 바랐다. 그래야 그들도 더욱 잘 될 수 있었다.

16화 진인사대천명

두 사람도 더는 망설이지 않고, 당장 몸을 일으켰다.

“전부 아가씨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절대 두말하지 않을

겁니다.”

부원령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의 아저씨가 설 전에 상경으로 갔네. 척 관사가 사람들을 데리고 먼저 가서 부의 아저씨와 만나 상경의 상점과 전장의 사무를 인계받게. 척 관사 생각은 어떤가?”

척약중은 부의가 새해가 되기도 전에 상경으로 갔을 줄은 몰랐다. 그 말을 듣자 얼굴에 놀라움이 떠오르더니 당장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께서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셨군요. 저야 당연히 그러고 싶습니다. 당장 정리해서 하 관사에게 인수인계하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하평도 마음이 조금 들떴다.

‘우리 아가씨는 정말이지..... 대단하구나.’

그래서 그도 맞장구를 쳤다.

“노양부의 일은 제가 전심전력으로 처리할 겁니다. 아가씨께서 실망하시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아가씨가 동의해 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부원령이 하평을 보았다.

“무슨 일인가?”

“제가 노양부 쪽에 사람을 어찌 배치할 것인가에 관한 일입니다.”

“하 관사가 남겨두고 싶은 사람을 남겨두게. 나머지는 내가 전부 데리고 가지.”

부원령이 선뜻 말했다.

이 말은 상경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뜻이었다. 두 사람도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겼다.

척약중은 솔직히 기뻐다. 상경은 노양부보다 번화하고 부유한 곳이었기에 장사꾼이 상경으로 간다는 것은 더욱 큰 기회를 얻는 셈이었다.

하평은 전장과 땅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양부에 남는 쪽을 좋아했다. 어차피 부씨 가문의 뿌리는 여기였다.

이로 보건대 부원령은 두 사람의 성향을 매우 정확하게 파악한 셈이었다.

하평은 사양하지 않고 몇 사람의 이름을 말했고 부원령은 바로 승낙했다.

“그 사람들 말고도 나는 부씨 저택에 호위를 남기려고 하네. 진원이 통솔하고, 자네가 지휘하게 될 거야.”

하평의 얼굴에 더욱 기쁜 기색이 떠올랐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야 감사할 따름이지요.”

호위대가 있다면 첫째, 아가씨와 연락을 주고받는데 편리했고, 둘째, 그도 일하는 데 믿을 구석이 생겼다. 노양부 상회 쪽이 그다지 조용한 곳은 아니었는데, 그는 일개 관사이다 보니 아무 힘도 없

다면 허리를 제대로 펴고 다니기가 힘들었다.

척약중은 이쪽 일을 하평에게 넘겨야 해서 두 사람은 아가씨와 몇몇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한 뒤에 일어났다.

떠나기 전, 척약중이 말했다.

“그럼 제가 먼저 상경에 가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원령이 웃었다.

“그러게.”

두 사람이 물러가고 나자, 부원령은 느릿하게 한숨을 내쉬었다. 평녕백부에서 노양부로 찾아와 그녀 앞에서 위세를 부릴 때까지 기다려 줄 생각은 없었다. 그들이 여기로 오기 전에 경성에서 제대로 발붙일 곳을 마련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더 많은 힘이 생길 것이다.

* * *

떠나기 전, 중요한 일이 두 가지 더 남아 있었다. 지부 대인과 노

수의를 만나는 일이었다.

유송근은 부원령이 노양부를 떠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게다가 상원절이 지나자마자 바로 떠날 정도로 서두를 줄은 더더욱 몰랐기에 얼굴에 떠오른 놀라움을 당장 감추지도 못하고 부원령을 보며 물었다.

“갑자기 왜 상경에 간다는 겐가? 노양부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부원령은 지부 대인의 말뜻을 알아들었다. 어느 상인 가문에서 부씨 가문을 압박해서, 그녀가 떠날 수밖에 없게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는 아니었지만.

부원령은 유송근이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천성적으로 관리다운 원만함이 있었고 일 처리에서는 선을 지킬 줄 알았다. 게다가 그도 자신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녀는 생각 끝에 솔직히 말하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드러낼 수는 없어서 이렇게만 말했다.

“대인, 평녕백부에서 친자 확인을 위해 왔다는 이야기는 들으셨겠지요.”

“사람을 잘못 찾아온 거라 하지 않았나?”

유송근은 확실히 몇 마디 듣기는 했지만, 폭설로 인한 피해 때문에 바빠서 신경을 쓸 틈이 없었다.

지금 부원령의 표정을 보아하니 이 일에는 자신이 모르는 사정이 있는 모양이었다. 그의 표정이 저절로 심각해졌다.

다른 건 둘째 치고, 부씨 가문에서 내놓은 그 철광산을 조정에 보고했다. 이것만 해도 사소한 일이 아니었다.

“잘 못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부원령은 쓴웃음을 지었다.

“평녕백은 당시 저희 어머니와 종매인을 두고 정식으로 혼인을 했는데 친자 확인을 하러 와서는 제 어머니가 외실이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인정하면 어머니는 어찌며 부씨 가문의 조상님들을 무슨 낮으로 대하겠습니까? 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유송근은 벌컥 화를 냈다.

“세상에 이런 도리가 어디 있단 말인가? 감히 상상도 못 할 짓을 저지르다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군.”

유송근의 얼굴에 떠오른 진심의 분노를 보고, 부원령은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한 일은 역시 틀리지 않았다. 유 대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대인 말씀이 맞습니다. 백작 가문인 평녕백부에는 이미 귀인들이 가득한데, 저 같은 상인 집안 출신이 부귀를 탐하다가는 등골이 쭈어질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수 없고, 꼭 인정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좋아, 기개가 있군. 그 말이 맞네. 평녕백부가 아무리 부귀하더라도, 자네가 조상과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네.”

예전이었더라면 이 소녀가 고아이고 철광산을 바친 것을 보아서라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을 테지만, 이번만큼은 순수하게 그녀의 품성에 대해 감탄했다.

“왕대인과 자당은 모두 의로운 상인이었네. 사업을 하면서도 인의를 베풀 줄 알았지. 자네가 조상의 명성을 더럽혀서는 안 되네.”

“대인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소녀가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원령도 이번엔 조금 감탄했다. 만약 꿈속의 자신이 조금만 더 냉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지부 대인의 이 말을 미리 들었더라면, 그러한 죽음을 맞지 않았을지도 몰랐다.

유송근은 부원령을 보며 원래 드러내지 않으려 했던 일이었지만 몇 마디 슬쩍 흘려 주었다.

“전에 자네가 나라에 바친 철광산 말일세. 내가 그 일에 대한 상주문을 조정에 올렸네.”

부원령은 깜짝 놀랐다. 당시 몰래 철광선을 내놓은 것은 이 공로를 유 대인의 것으로 만들어 줄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설마하니 유 대인이 이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을 줄은 몰랐다.

“대인.....”

유송근은 손을 내저었다.

“이건 사실일세. 비록 당시에는 부씨 가문을 지킬 생각으로 철광산을 내놓았겠지만, 정말 철광산을 내놓는 과감한 행동은 보통 사내들도 좀처럼 하지 못할 일이지.”

유송근의 말은 사실이었다. 상인의 눈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철광산을 내놓았더라면 분명 더욱 많은 조건이 붙었을 테지만 부원령은 그러지 않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은 단 하나, 부씨 가문을 지키는 것뿐이었다. 게다가 부씨 가문에서는 이 철광산으로 얻는 공로가 조금도 필요 없다는 암시까지 했다.

이는 그에게 커다란 공로를 바친 셈이었으나 유송근은 나름대로 선이란 것이 있는 사람이었다. 정말로 그렇게까지 뻔뻔한 짓은 할 수 없었다.

지금 보니 자기의 행동이 옳았다. 이 아가씨는 보통내기가 아니며 일 처리가 과감하고, 총명하면서도 침착했다. 어쩌면 나중에 큰일을 해낼지도 모른다.

부원령은 정중하게 감사 인사를 했다.

“대인, 감사드립니다.”

유송근은 웃었다.

“나도 기왕 터놓고 말했으니 충고도 한마디 하겠네. 이 일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단정할 수 없네. 상부의 명령을 기다릴 뿐이니 마음속으로 알고만 있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부원령도 유 대인의 생각을 알았다. 그녀가 너무 큰 기대를 했다가 실망해서 초심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리라.

“진인사대천명이지요.”

유송근은 다시 한번 아깝다고 느꼈다.

‘만약 사내였으면 이 아이가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모르겠구나.’

유송근은 부원령이 안심하고 상경으로 갈 수 있도록 부씨 가문을 어느 정도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생각 끝에 또 편지 한 통을 써서 주었다.

“이건 상경에 있는 내 벗에게 쓴 편지일세.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찾아가도 되네.”

이건 크게 신세를 지는 일이었기에 부원령은 사양하고 싶었지만, 유송근은 그녀의 손에 억지로 쥐여 주더니 당장 쫓아냈다.

“됐네. 난 이제 바쁘니 자네도 얼른 가게.”

“ ”

* * *

지부 대인과 헤어지고 나자, 부원령은 기쁜 나머지 가슴이 두근댔다. 정말로 조정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큰 경사였다.

최소한 평녕백부에서도 자신을 그들 밥상 위에 올라간 요리처럼
여기 뵈다가 저기 뵈다가 제멋대로 굴지 못할 것이었다.

그녀는 두근대는 가슴을 가라앉히느라 심호흡을 하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노씨 저택으로 갔다.

노수익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어, 몇 마디 인사치레 뒤에 본론으로
들어갔다.

“정말 가기로 했는가?”

“네, 노양부 일은 백부님께서 많이 보살펴 주세요.”

부원령이 말했다.

“그야 당연하지. 안심하게.”

노수익이 이번에 회장이 되는 데 부씨 가문이 큰 힘을 보태 주었
다. 게다가 그는 부원령의 품행과 능력을 대단히 높이 샀다. 큰 문
제가 생기지 않는 한 부씨 가문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노씨 가문과 부씨 가문이 서로를 돕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었다.

“기왕 상경에 간다니 내가 할 이야기가 있네.”

노수익은 정색하고 부원령을 보았다. 이 어린 아가씨와 사업 이야
기를 하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했다.

“백부님,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원령이 데려온 사람들은 모두 화청 밖에서 기다리고, 커다란 화청 안에는 그녀와 노수의 둘뿐이었다.

“가르침이라고 할 만한 건 아닐세. 조카는 조상님의 풍격을 이어 받았으니 나중에 분명 큰일을 하겠지.”

부원령은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얼굴에는 드러내지 않으며 말했다.

“백부님, 과찬이십니다. 원령이 감당하기 부끄럽습니다. 그저 부씨 가문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기만을 바랄 뿐, 나머지는 감히 바라지 않습니다.”

이 소녀는 나이가 어렸지만 수완, 계책, 그리고 마음에 품은 뜻까지도 범상치 않았다. 노씨 가문 딸이 아닌 게 또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그는 마음속의 시샘을 누르고 말했다.

“우리 노씨 가문에서는 몇 년 전 상경으로 건너가서, 그쪽에서도 사업을 제법 관창하게 운영하고 있네. 기왕 조카가 상경으로 간다고 하니, 앞으로 두 가문 사이에 협력할 일이 많겠지.”

“백부님?”

부원령이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설마 노씨 가문에서 도와주겠다는 뜻인가?

“너무 놀랄 필요 없네. 노씨, 부씨는 예전부터 교제가 있었지. 지금 부 어른님과 부 부인이 안 계신다지만, 두 가문의 정은 여전히 남아 있네.

상경은 온갖 세력이 모여드는 곳이라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네.

날 백부님이라 부르는 어린 아가씨가 혼자 북쪽으로 올라간다는 데, 당연히 나도 수수방관할 수야 없지. 게다가 나도 손해 보는 장사를 하는 게 아니야. 조카 능력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서 그러는 걸세.”

17화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부원령은 꿈속의 기억이 있다 보니 상경에 대단히 익숙했다. 사실 겁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수익이 이렇게 나오자 그녀는 감동했다. 기왕 두 가문이 협력하게 되었으니, 그녀도 노씨 가문이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백부님께 감사드립니다.”

노수익은 부원령의 시원시원한 태도가 마음에 들어 크게 웃었다.

“내 큰아들이 지금 상경의 사업을 관리하고 있네. 상경에 가거든 바로 그놈을 찾아가게. 내 편지를 써서 알려 둘 테니 안심하게.”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금 노양부에 눈 피해가 심각하니 상경에서 곡식을 좀 가져와 몇몇 현에 비축해 둘까 해요. 봄이 되면 쓸 데가 많을 것 같아서요. 백부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식간에 화제가 바뀌자, 노수의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다가 부원령의 말을 이해하고 나서는 당황스러웠다.

“일찍부터 곡식을 쟁여 두는 게 남에게 알려지면 좋지 못할 텐데.”

천재지변으로 얻은 돈은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마련이다.

부원령의 눈매가 살짝 휘어졌다.

“백부님께서도 줄곧 너그럽고 의롭게 행동하신 걸 노양부 사람들이 다 압니다. 또 저는 지금 상종이라, 부씨 가문을 위해 덕을 쌓으려는 거고요.

그러니 곡식을 미리 쌓아 두었다가 봄에 파종할 적에 전부 풀어서 백성들이 종자로 쓰게 하려 합니다.”

그녀가 쌓아 두겠다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종자였다.

상인이 사업을 하려면 관리들과도 잘 사귀어 두어야 하는데 이렇게 호감을 쌓을 기회를 어찌 놓치겠는가?

게다가 유송근이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부원령은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이러면 나중에 이부(吏部)에서 공적을 헤아릴 때 승진할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익이 되는 일이었다. 노수익도 호의를 가지고 그녀를 도왔으니, 당연히 그에게 어느 정도는 보답하고 싶어 노씨 가문도 함께하자고 했다.

나이가 지긋한 노수익은 부원령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았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선뜻 나서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금 부원령, 이 어린 아가씨가 이처럼 과감하고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는 걸 보자, 그에게도 호기로운 마음이 일었다.

‘하자!’

두 사람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나서야 부원령이 떠났다.

노수익은 서재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가 붓을 들고 큰아들에게 편지를 또 썼다. 그동안 부원령이 한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그녀의 나이가 어리다고 우습게 보지 말고 잘 교제하라고 신신당부했다.

이때의 부원령은 몰랐지만, 그녀가 상경에 가기도 전부터 상경에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 * *

상원절 날, 부씨 저택은 여전히 바빴다. 다들 주인과 함께 상경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짐을 꾸렸다.

부원령은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일찌감치 모두에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가기 싫은 사람은 남으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이 따라가겠다고 했다.

주방의 송씨 아주머니가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내가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자라셨네. 내가 안 가면 아가씨가 뭘 드신단 말인가? 절대 안 되지.”

침방의 침모들도 따라갈 준비를 했다.

“아가씨가 입은 옷은 전부 우리가 만든 걸세. 아가씨가 좋아하시는 무늬며, 천 재질이며, 옷 모양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딱 맞춰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 반드시 따라가야만 했다. 남아서 뭘 하겠는가. 아가씨가 노양부에 없는데 누구 옷을 만들라고?

두씨 어머님은 웃음기를 띤 눈으로 우스갯소리처럼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가씨는 어릴 적부터 선량했고, 이 저택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아가씨가 자라는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보았다. 아가씨가 혼자 상경에 간다면 저택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택 사람 대부분이 고스란히 옮겨가게 되었다.

상경에 간다고 하더라도 사는 곳이 바뀌는 것뿐이었다. 아가씨의 의식주는 집안사람이 맡아야만 약간의 불편함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야말로 완벽했다.

부원령은 원례를 비롯한 시녀들이 재잘대며 즐겁게 명단을 통계 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마지막에는 과연 누가 남아서 이 집을 지킬지가 걱정되었다.

그녀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지금은 달라.

내 뒤에는 모두가 있어!’

부원령은 상경 행을 크게 떠벌리지 않았다. 떠날 때도 매우 조용히 떠났다.

날이 밝기 전이라 부씨 저택에서는 등불을 켜다. 며칠 전 부현은 진원에게 마차 십여 대를 이끌고 한발 먼저 상경으로 떠나게 했다.

마차는 어젯밤에 모두 준비를 마쳤고, 짐 상자도 전부 실어 두었

다. 이제 아가씨의 출발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문 밖에 선 부씨 가문 호위들은 새 옷차림으로 가슴을 당당히 편 채 양쪽으로 늘어섰다. 진원이 한발 먼저 떠나기는 했지만, 오늘도 십여 대의 마차가 떠나고 이를 수행해야 했다.

부원령과, 부씨 가문 고방에 간직해 두었던 좋은 물건도 옮겨야 했으니 조금도 방심할 수 없었다.

늦겨울 새벽의 싸늘함에 손이 움츠러들었다. 입을 열면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검은색 옷을 입은 부원령은 두씨 어머님과 원례 등 몇몇 시녀를 거느리고 문을 나섰다. 문밖에 당당하게 서 있는 부씨 가문의 호위들이 보였다.

부원령은 맑은 눈으로 그들을 천천히 훑어보고 입을 열었다.

“오늘 길을 떠나게 되어 모두 수고가 많구나. 상경에 도착하거든 노고를 위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마.”

그 말에 사람들은 당장 기분이 좋아졌다. 아가씨는 늘 씩씩이가 후했다. 이번에도 분명 두둑한 상을 받게 되리라. 순식간에 부씨 가문의 마차 행렬이 떠들썩해졌다.

부원령은 얇게 웃더니 두씨 어머님의 부축을 받아 마차에 올랐다.

마차 바깥에서 부현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마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부원령은 마차 안에 단정하게 앉았다.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자세는 반듯했다. 가림막을 걷고 부씨 가문의 옛 저택을 다시 보거나 하지 않았다.

한 번 더 보았다가는 가기 싫어질 것만 같았다.

오늘부터 그녀는 부씨 가문에서 떠받들어 키운 귀한 아가씨가 아니라 부씨 가문의 새로운 장문인이었다. 부씨 가문 수백 명의 기둥이었으며, 부씨 가문의 새로운 희망이었다.

그녀는 이제 꿈속의 미련 많던 사람이 아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목이 말라 자기 뜻을 굽히던 사람도 아니었다.

앞으로는 자신답게 살아갈 뿐이다.

그녀는 부원령이었다.

* * *

마차가 성문 밖으로 나갔다. 성문 위에 있던 유송근은 찻잔을 들어 올리며, 점점 멀어져가는 마차 행렬을 응시했다. 생각이 복잡해졌다.

그는 사실대로 조정에 보고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녀가 자신에게 또 비단길을 깔아줄 줄은 몰랐다.

부원령은 노씨 가문을 끌어들이 곡식을 쌓아 두었다. 봄이 되면 종자로 쓸 수 있었고, 백성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봄에 파종을 한 뒤에도 먹을 게 있었다. 이 또한 그의 공적이 되었다.

내년 상경의 인사이동에서 이변이 없는 한 승진은 확실했다.

아직 만 열다섯 살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은혜와 원한을 분명히 갚을 줄 알았다.

보아하니 그도 상경 평녕백부 쪽에 어느 정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모양이었다.

* * *

노양부에서 상경까지는 약 닷새간의 여정이었다. 일행은 사람도 많고 마차도 많아 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더욱 길었다. 다행히 부원령은 서두르지 않고 여유롭게 움직였다.

길을 떠난 지 사흘이 되던 날, 행렬이 멈추었다. 부현이 다가와서 보고했다.

“아가씨 앞쪽이 풍릉도(風陵渡)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 여기서 야영을 하고 내일 일찍 강을 건너지요.”

‘풍릉도.....’

부원령은 이 익숙한 지명을 듣자 입술을 잠깐 다물었다가 입을 열었다.

“네, 그렇게 해요.”

풍릉도 나루터 반경 십 리 안에는 인가가 없었다. 나중에 풍릉도교(風陵渡橋)가 지어지고 나서야 이 주변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부원령은 원례의 시중을 받아 마차에서 내렸다. 하늘이 조금 어둑어둑했고 공기 중에 섞인 습한 기운이 얼굴에 훅 끼쳤다.

본래는 여기에서도 저 멀리 있는 풍릉도 나루터가 보였지만, 어두침침한 하늘 아래에서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았다.

“아가씨, 날씨가 궂고 춥네요. 일단 마차로 들어가세요.”

원례가 옷을 여미며 아가씨에게 권했다. 이 곳은 날씨에 바깥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다.

부원령은 저 멀리 있는 풍릉도 나루터를 응시했다. 꿈속의 그녀는 삼황자를 따라 이곳에 왔었다. 그때는 여기에 다리가 하나 세워져 있어 지금처럼 횡량하지 않았다.

꿈속, 바로 이곳에서 삼황자는 그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원령, 언젠가는 네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 내가 네 손을 잡고 옥좌가 있는 저 높은 어대(御臺)에 오를 것이야.」

그게 언제 적 일이었더라?

그렇다. 바로 삼황자와 육황자(六皇子)의 다툼이 심해졌을 때였다. 육황자의 뒤에는 곽(郭) 현비가 버티고 있었다. 곽 현비의 친정은 대단히 부유하다 보니 싸움이 길어지자 삼황자 쪽이 불리해졌다.

그때의 그녀는 부씨 가문의 태도가 조금 이상함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터라, 큰돈을 부씨 가문의 손을 거치지 않고 삼황자에게 몰래 건네주었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성의는 개밥으로나 준 꼴이었고, 그 큰돈도 그녀의 목숨을 구해주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삼황자가 돈을 받아 챙긴 다음 부씨 가문에 이 돈에 대해 말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래서 부씨 가문에서 그녀의 목숨을 노린 것이다.

지금 생각하니 정말 우스웠다.

“난 앞쪽을 좀 돌아보고 올게. 너흰 따라올 필요 없어. 일찍 정리하자.”

부원령은 산책이라도 하면서 불쾌한 기분을 날려 버리고 싶었다. 그래서 손을 내저어 원례를 비롯한 시녀들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풍릉도를 향해 걸어갔다.

원례는 조금 걱정스럽게 아가씨의 뒷모습을 보며 망설였으나 쫓아가지는 않았다. 원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가씨가 저녁에 주무실 곳을 정리하러 갔다.

원신이 원례를 잡아끌었다.

“보지 마. 아가씨 성미를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하신 걸 보면 정말 따라오지 말라는 뜻이야. 얼른 정리하자. 빨리 정리해 버리면 아가씨를 빨리 모시러 가도 되잖아.”

부원령은 긴 창의를 걸치고 방한모를 쓴 차림으로 걸어갔다. 헐벗은 강가로 다가갔더니 미처 녹지 않은 얼음이 남아 있었다.

이 며칠 내내 끊임없이 꿈을 꾸고, 길을 재촉하는 터라 원령의 얼굴색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동안 꾸 꿈은 예전에 꿈꿨던 것 같기도 했고 아닌 것 같기도, 사실인지 거짓인지 아득해서 분간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직도 꿈속에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부원령, 당신이 왜 여기에 있지?”

순간 정신이 퍼뜩 들었다. 그녀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물가 저편의 쇠락하고 적막한 숲 가장자리. 옅은 푸른색 장삼에

검은 창의를 걸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나무줄기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이 바싹 마른 숲이 그 푸른빛부터 순식간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특히 저 섬세하면서도 매력적인 이목구비가 머금은 웃음에, 그녀는 더욱 놀라움과 두려움을 느꼈다.

‘초구기!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있지?’

18화 한 끼 얻어먹어도 되겠소?

순간 ‘구황자’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다. 부원령은 허끝을 깨무는 노력 끝에야 이 말을 삼킬 수 있었다.

지금의 그녀는 그의 신분을 몰랐다. 만약 그렇게 불렀다가는 그가 수상하게 여길 것이다.

부원령은 심호흡을 했다. 사실 웃는 얼굴이 도저히 나오지 않아 굳은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죠?”

초구기는 눈썹을 살짝 일그러트리며 부원령이 입고 있는 창의를 노려보더니, 언짢다는 듯 말했다.

“내가 준 옷은 왜 안 입었소? 안 예뻐서 마음에 안 들었나?”

“뭐라고요?”

부원령은 순간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머리가 돌아가고 나서야 자신의 앞으로 온 그 옷이 생각났다.

‘내 추측이 맞았어. 정말로 이 사람이 보낸 거였구나.’

하지만 그가 옷을 보냈다고 해서, 자기가 그걸 매일 입어야 한단 말인가?

이 사람은 어쩔 이렇게 뻔뻔한지, 상경의 소패왕이라는 별명이 부끄럽지 않았다.

초구기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저 이렇게 거리를 두고 부원령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녀가 입은 물빛 창의에 시선이 닿은 순간, 이유 없이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부원령이 정신을 가다듬자 머리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초구기를 보며 일부러 눈썹을 찡그리고는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모르겠소?”

초구기는 혀를 찼다.

“바보요? 당연히 나중에 수소문했소. 여기에 천금을 주고 산 남자 초상화도 있소. 말도 마시오. 그림을 어찌나 똑같이 그렸는지, 첫 눈에 남자가 온 걸 알아봤다니까.”

이 말이 나오자마자 부원령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다. 초구기가 믿음직하지 못한 인간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줄은 몰랐다.

천금을 주고 그녀의 초상화를 샀다니. 이 일이 소문이라도 나면 그녀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는가.

“정말이지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요. 전 호의로 당신을 구해줬는데 내 명예를 더럽히려고 오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구해주지 말았어야 했어요.”

부원령이 화가 나서 말했다.

상경에 가기도 전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 이 일이 퍼져서 부씨 가문에서 알게 되면, 이걸 가지고 그녀를 난처하게 만들 게 뻔했다.

두렵지는 않더라도 성가신 일은 피할 수 없었다.

초구기는 이렇게 욕을 먹고도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화난 모습을 보자 조금 재미있다고 생각하며, 눈썹 끝이 치켜 올라갔다.

마음속으로는 이 아가씨가 제법 총명하다고 생각했다. 말 한마디로 그의 말속에 숨을 뜻을 알아챈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절로 부원령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이 세상에 미인이 많다지만 재미있는 미인은 많지 않다. 재미있고 선량한 미인은 더욱 드물다.’

“정말 고마운 줄도 모르네. 내가 일부러 편지까지 보냈는데 날 이렇게 대하는 거요?”

초구기는 기분이 좋아져, 얼굴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웃음을 띠고 느긋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편지?”

부원령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졌다. 창백한 얼굴색에 푸른 기마저돌아 부드러운 이목구비에 우울한 기색을 덧씌웠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부원령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초구기를 보았다.

“그 말은 상경에 내 초상화를 판 사람이 있다는 거로군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녀는 이번 생엔 아직 상경에 가 본 적도 없었고, 누군가와 원한을 맺은 적도 없었다. 도대체 누가 그녀의 초상화를 팔 수 있을까?

“내가 상경에서 온 건 어떻게 알았소?”

초구기는 마음속으로 더욱 놀랐다.

‘이 아가씨 보통 똑똑한 게 아니로군. 눈치가 대단히 빠르네.’

부원령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하마터면 들통날 뻘했네. 이 사람 왜 이렇게 예리하지?’

“풍릉도는 바로 상경으로 통하지요. 그걸 알아내는 게 뭐가 어렵다고요.”

“아니지, 풍릉도에서 삼십 리를 가면 세 갈림길이 나와. 그중 하나만 상경으로 통하잖소.”

초구기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부원령은 이를 악물었다. 이 사람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로 까다롭고 성가신 상대였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알았더라도 그를 구했을 것이다. 그녀를 살려준 은혜가 있었으니까.

꿈속에서의 일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일이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무시할 수가 없었다.

부원령은 초구기의 잘생겼지만 때려주고 싶은 얼굴을 응시하며 천천히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리고 나서야 목소리를 누그러트리고 말했다.

“제가 상경으로 가는 중이라 그쪽도 상경에서 온 줄 알았네요. 선입견이 무섭군요. 만약 제 착각이었다면 이해하세요.”

초구기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캐물었다가는 그녀가 화가 나서 가 버릴지도 몰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해주었다는 점을 고려해 더는 캐묻지 않기로 했다.

여기까지 생각하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부원령을 바라 보았다.

“낭자의 초상화를 내가 어디서 얻었는지 맞춰 보겠소?”

“모르겠네요.”

부원령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녀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어렴풋이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상경에 가기도 전에 그녀의 초상화가 유출되었다. 이는 좋은 일이 아니다.

초구기는 부원령이 캐물을 줄 알았으나, 쌀쌀맞게 한마디만 했을 뿐 다른 말이 없었다.

‘설마 내 얼굴이 못생겼나?’

설마 나한테 매력이 없는 건가?

설마 내가 무슨 나무토막처럼 보이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래 봐도 초구기가 상경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 잘생긴 얼

굴로 천하를 누비며, 얼마나 많은 아가씨의 마음을 홀렸는지 모른다.

“좋아. 내 목숨을 구해준 걸 봐서라도 알려 주지.”

초구기는 자신이 참 대범하고 너그럽다고 생각했다.

멀리 숲에 숨어 있던 배수는 이 광경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주인은 사소한 일이라도 복수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밴댕이 소갈딱지를 가진 진정한 사나이였다.

부원령은 그 말에 따로 대꾸하지 않았다. 자신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저 사람은 자기 말을 모조리 받아칠 것이다.

초구기는 조금 유감스럽다는 시선으로 부원령을 바라보았다. 이 소녀는 나이도 어린데 어쩔 늙은이처럼 이렇게 침착한지.

“이 초상화는 내가 삼황자부(三皇子府 – 삼황자의 저택)에서 봤소. 상상도 못 했겠지. 놀랍지 않소?”

“삼황자부요?”

부원령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이제 창백함 속에는 푸른 기운이 감돌다 못해 거무스름한 빛까지 떠올랐다.

삼황자부에 그녀의 초상화를 가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당연히 평녕백부였다.

그녀가 상경으로 가기 전인데도 평녕백부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삼황자에게 보내고, 그녀의 얼굴이 봐줄 만해서 삼황자도 혼인에 찬성했다는 게 아닌가?

정말 가소로웠다.

평녕백부가 이 정도로까지 뻔뻔할 줄은, 삼황자가 이렇게까지 가식적인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꿈속에서는 이러한 뒷이야기를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껏 몰랐다.

꿈을 꾸었다고 해서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안색이 왜 그렇게 안 좋지? 괜찮소?”

초구기는 눈앞의 소녀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데다가 얼굴색까지 어두워지자 조금 놀랐다.

‘평범한 아가씨가 자기 초상화가 삼황자부에 있는 걸 알면 놀라고 기뻐하는 게 정상 아닌가?’

그런데 부원령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잖아?’

“괜찮습니다.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원령은 그렇게 말하고 초구기를 보았다.

“서로 얼굴은 아는데 아직도 그쪽 성함을 모르네요.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 난 제구(齊九)라고 하오. 구 오라버니라고 부르시오.”

부원령은 잠시 침묵했다.

“제구 공자.”

부원령의 유난히 정중한 존칭에 초구기는 입술을 앙다물었다.

“남자네는 여기서 야영할 거요?”

그가 화제를 돌리자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날이 저물어 강을 건너기 어려우니 노숙하기로 했어요.”

“우와, 정말 우연이군. 남자에게 소식을 전해주느라 밤새 달려왔더니 온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소. 한 끼 얻어먹어도 되겠소?”

부원령은 침묵했다. 그녀는 구황자의 이러한 모습은 처음 보았다. 꿈속의 그 소패왕은 이렇지가 않았다.

초구기는 부원령의 눈을 마주한 순간, 약간 이상한 기색을 예민하게 알아차렸다. 마치 그녀는 자신의 눈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응시하는 듯했다.

그가 자세히 관찰하려고 하자, 이 소녀의 눈빛은 또 처음처럼 돌아왔다.

분명 고작 열네 살밖에 안 된 소녀인데, 말이나 행동은 어른과 다를 바가 없었다.

하지만 다시 그녀의 신상을 생각해 보자 그다지 이상하게 여겨지

지는 않았다.

어쨌든 부씨 가문이라는 거대한 가문을 지탱하는 사람이었다. 평범한 소녀처럼 성미대로 행동했다면 진작 남들에게 뺏조각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잡아 먹혔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부씨 가문의 가르침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제구 공자께서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셨으니 한 끼 정도는 당연히 대접할 수 있습니다.”

부원령은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돌아갔다. 가는 내내 더는 말하지 않았다.

초구기도 여유롭게 그녀의 뒤를 쫓아갔다. 조금한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는 한가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다가오자 야영을 준비하던 사람은 어리둥절했다. 부원령은 곧바로 부현에게 다가가 말했다.

“아저씨, 식사를 더 준비하세요.”

부현이 대답도 하기 전에 초구기가 바로 말했다.

“이 인분.”

부원령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그를 보았다. 역시, 그가 혼자 올 리가 없었다. 그녀는 부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부현은 식사 준비를 분부하고 나서 물었다.

“아가씨, 이분은 누구신지요?”

부원령은 진지한 태도로 대충 둘러댔다.

“부현 아저씨, 이분은 저번에 녹명산도에서 만난 제구 공자예요.”

부현은 아가씨가 사람을 구했다는 일을 나중에야 전해 들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또 만날 줄이야.

게다가 이 제구 공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라고 생각지 못했었다. 순간 아가씨를 보고, 또 이 제구 공자라는 사람을 보며 부현의 마음속에 경계심이 더욱 솟아났다.

아가씨에게는 지금 웃어른이 없다. 부현은 잠시 생각하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웃는 얼굴로 제구 공자를 보았다.

“여기서 제 공자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전에 다친 건 다 나으셨는지요?”

부원령은 부현 아저씨가 암암리에 초구기를 떠보는 말을 듣자 속으로는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듣지 못한 척, 모닥불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한편으로는 초구기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살폈다.

초구기는 부현 아저씨라고 불린 사람이 이렇게 서슴없이 자신을 떠보자 조금 놀랐다. 하나 부원령 곁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제법 지위가 있어 보이는 자라 언짢은 기색을 조금이나마 감추었다.

“상경에서 왔네. 부 남자가 치료해준 덕에 멀쩡하네.”

초구기도 전혀 움츠리는 기색이 없었다. 냉큼 부원령과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앉더니, 일부러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잔뜩 옮겨가는 걸 보니 상경에 아예 자리를 잡게?”

부현은 초구기를 유심히 살폈다. 차림새로부터 시작해서 말투나 행동까지, 척 봐도 대갓집 출신 공자에, 미간에 서린 그 오만방자한 기운은 부현에게 거리낌과 호기심을 동시에 갖게 했다.

늘 동서남북을 누비느라 견식이 다른 그의 눈으로 봐도, 이 사람의 출신은 범상치 않았다.

아가씨가 입을 열기도 전에 부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 공자께서는 저희가 상경에서 자리 잡으려는 걸 어찌 아셨습니까?”

19화 부러워 죽겠구먼

초구기는 웃는 듯 마는 듯하며 부현을 한번 보고 나서야 느릿느릿 대답했다.

“자네들 아가씨가 방금 상경으로 간다고 하셨네. 게다가 이 많은 마차에, 몇십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지잖나. 아무리 봐도 친척 방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부현은 아가씨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그제야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저희 부씨 가문은 사업을 하거든요. 동서남북 떠도는 거야 늘 있는 일이지요.”

초구기는 아무 말도 못 했다.

부원령은 두 사람이 서로를 떠보는 걸 들으며 조금 재미있다고 여겼지만, 입을 꼭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자기의 초상화에 관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또 골칫거리가 튀어나왔다.

평녕백부에 어떻게 그녀의 초상화가 있는지가 더욱 궁금했다.

이번에는 평녕백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그녀의 얼굴을 보고 그려냈을까?

하지만 평녕백부에서 준비를 하고 왔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터였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적에도 얼굴을 보일 일이 적지 않았고, 암암리에 그녀의 모습을 보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다.

생각할수록 짜증이 났다. 평녕백부는 정말이지 돌팔이가 만든 엉터리 고약처럼 끈질겼다.

“아가씨, 손 좀 녹이세요.”

원례가 백옥을 투각해서 만든 손난로를 가지고 오더니, 일부러 초구기의 옆을 가로막아 그의 시선을 딱 가려 버렸다.

초구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부씨 가문 하인들은 어째 하나하나 이렇게 눈치가 빠르지.’

내가 저런 어린 여자애한테 무슨 마음이 있을 리가 있나. 하하, 재가 내 목숨을 구해주지만 았았더라도.....’

부원령은 손난로를 받아 들었다. 사실 모닥불 앞에 앉아 있으니 그다지 춥지는 았았지만, 원례가 호랑이처럼 노력보는 모습을 보자 얼굴에 얼핏 웃음이 떠올랐다.

바로 이때 배수가 오는 바람에 이 약간 미묘한 분위기가 깨졌다.

배수는 부원령이 꿈속에서 초구기보다 더 자주 본 사람이었다. 꿈속의 배수는 잘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날카로운 칼 같았고, 주인을 믿고 사납게 구는 개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사람들은 배수가 초구기의 옆을 지키는 사나운 개라고 욕했다. 상경의 권문세가나 왕실 귀족 중에도 그를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 사람의 실력이 워낙 뛰어나. 최소한 꿈속에서 그녀가 죽을 때까지만 해도 배수는 멀쩡히 잘 살아 있었다.

“부 낭자, 저번에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배수에게 보답할 만한 건 없으나 나중에 낭자께서 절 쓸 만한 곳이 있다면, 제 주인님이 동의하시는 한 죽음을 마다하지 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더니 허리까지 숙이며 읊했다.

부씨 가문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문이 막혔다.

‘저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야?’

‘은혜를 갚겠다면서 자기 주인님이 동의해야 한다고?’

‘우리 아가씨가 아쉬워할 줄 아나 본데?’

‘꿈도 야무지구먼!’

부씨 가문의 다른 사람들이 배수를 보는 표정은 곱지 않았다. 그러나 부현은 생각에 잠겼다.

부원령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배수는 초구기에 대한 충성심이 뺏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한 것만 해도 대단히 성의를 보인 것이었다.

부원령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쪽 주인님이 이미 사례를 하셨거든요. 매우 후하게 하셨으니 그거로 충분합니다.”

배수는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주인은 주인이고, 그는 그였다.

‘그거랑 그거는 별개지.’

하지만 지금은 나누어서 말한들 소용이 없었다.

장막을 치고 노숙을 하는데, 부씨 가문의 요리사는 조금도 대충하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진한 닭고기 탕을 끓여냈다.

탕을 손에 든 순간, 배수는 아연했다.

“이 탕은 못 해도 네다섯 시진은 끓인 것 같은데요?”

한 입만 먹어도 시간을 들여 폭 고아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진한 맛은 단시간에 낼 수 없었다.

원래는 뱉내고 싶은 걸 자제하는 기색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아가씨가 드실 거를 어떻게 대충 만들어요? 이 닭고기 탕은 길을 오는 내내 송씨 아주머니가 화로를 지펴서 끓인 거예요. 한 다섯 시진 정도는 고았을걸요.”

배수는 탕을 뱉어버릴 뻔하다, 원래의 뱉내는 듯한 눈빛을 보고는 바로 침묵했다.

상상도 못 할 경지였다. 아가씨가 먹을 탕 때문에 길을 달리는 마차 안에서 화로를 지피고 가는 내내 탕을 끓였다니. 정말이지 제대로 된 호사였다.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찢찢, 부러워 죽겠구먼.’

그가 주인을 따라 밖으로 나돌 때면 전부 닥치는 대로 먹을 뿐, 이런 대접은 바라지도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배수의 그 비분 속에 부러움이 섞인 눈빛을 그다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원령은 이해했다.

초구기, 이 산재동자(散財童子 – 돈 뿌리는 동자라는 뜻으로 돈을 잘 쓰는 사람을 일컫는 표현)라는 손에 돈을 쥐고 있지 못하는 사람이 밖에서 호사를 누릴 수 있겠는가?

어림도 없다. 풍찬노숙하지 않는 것만 해도 매우 다행한 일이었다.

배수는 닭고기 탕을 꿀꺽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다.

‘부 남자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 닭고기 탕만이 아니었다. 송씨 아주머니는 손님이 온 걸 알자, 아가씨의 체면을 위해 특별히 몇 가지 요리를 더 내놓았다.

이 추운 날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돼지 넓적다리고기를 얹은 화퇴 조림은 짭조름하면서도 연했다. 깨물 때는 바삭바삭했지만 입안에서는 바로 녹아 버렸다. 평소였더라면 기름지고 느끼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이런 날씨에는 한 입 먹는 것만으로도 뱃속이 뜨끈해졌다.

‘냄새도 좋고 따끈따끈하고. 최고네.’

마지막으로는 얇은 피로 만든 작은 만두를 육수에 넣고 끓인 혼돈 한 그릇이 나왔다. 둥근 만두가 국물 안에 푸짐하게 떠 있고, 연듯 빛 파와 참기름 몇 방울을 얹은 것이었다.

혼돈을 한 입 깨물자 돼지고기와 죽순의 신선한 향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이 황량한 바깥에서 따듯한 국물만 있어도 감지덕지였는데, 이 정도는 마치 혀가 녹아 버릴 듯한 진수성찬이었다.

배수가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정말이지 너무 맛있는 저녁이었다.

밤이 되자 부원령은 마차 안에서 휴식을 취했다. 부씨 가문은 사업을 하느라 늘 바깥을 돌아다녀야 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부터 어머니까지 모두 특별히 만든 마차를 탔다. 평소에는 마차로 쓰고, 밤에는 침상으로 쓸 수 있어서 매우 편했다.

원지는 마차 안쪽에 숨겨져 있던 널빤지를 내리고 그 위에 비단 요를 두겹게 깔았다. 또 안에 뜨거운 물이 담긴 탕파를 넣었다. 이불 안이 따뜻해야 나중에 아가씨가 누웠을 때 편히 쉴 수 있었다.

원례는 한쪽에서 수면을 돕는 안신향(安神香)을 피웠다. 그리고 마차 가림막을 한 번 더 살펴본 다음, 원지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밤에는 네가 번을 서.”

원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원신이가 내일 아침 나와 교대해 주면 돼. 너는 종일 아가씨 옆에 붙어 있어야 하니까 밤에는 번을 서지 마.”

원례는 알았다고 대답한 후 가림막을 살펴보고 아무 문제가 없자 말했다.

“내가 아가씨를 모셔 올게.”

마차에서 내려온 원례는 원신이 아가씨를 모시고 제구 주종과 이야기를 하고 있자, 발걸음을 늦추고 천천히 다가갔다. 어째서인지 몰라도 이 주종은 수상해 보였다. 그들의 눈빛을 마주칠 때마다

간이 철렁해지곤 했다.

한편 초구기는 부원령과 노양부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눈 피해를 보았으니 당연히 조정에서도 구휼할 거요. 그렇게 뭐가 있느니, 뭐가 없느니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소? 어린 아가씨는 집안일이나 신경 쓰면 되지.”

부원령은 초구기의 말속에 섞인 조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아니었다. 어떻게 그녀의 어려움을 알겠는가. 그래서 이렇게만 말했다.

“유 지부는 좋은 관리입니다. 노양부 상인들은 늘 그분의 비호를 받았으니 이러한 재난이 닥쳤을 때 자연히 돈이든 힘이든 보태야지요.”

“관리와 상인의 결탁인가?”

초구기는 눈꼬리를 치켜세우며 의미를 알 수 없는 가벼운 웃음소리를 냈다.

“댁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원신이 언짢아서 쏘아붙였다.

“관리와 상인의 결탁이라니요? 관리가 청렴하니 백성들이 자연히 존경하는 거지요.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배수는 고개를 숙이고 못 들은 척하며, 자기 주인의 뒤로 몸을 숨겼다.

초구기는 그 말을 듣고 화도 내지 않고 대신 부원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 얘기는 그만두지. 나는 낭자가 평녕백부와 무슨 관계인지 궁금하오. 내가 듣기로 그 초상화는 평녕백부에서 삼황자부로 보낸 거라던데.”

부원령은 고개를 살짝 떨궜다. 긴 속눈썹이 눈 속에 서린 싸늘함을 감추었다.

“제구 공자. 그 일은 공자와 무관한 듯하군요. 날이 저물었으니 일찍 쉬시지요.”

이 사람은 뻔뻔하게 밥 한 끼를 얻어먹은 거로도 모자라 막사에까지 빌붙더니 또 그녀의 비밀을 캐내려고 했다. 너무 심심해서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다.

부원령은 말을 마치고 몸을 일으켰다. 마침 원례가 다가와 아가씨를 부르더니 그녀의 손을 붙들고 멀리 가 버렸다.

원신은 한발 늦게 고개를 돌려 그 주종을 한 번 흘겨보고 나서야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떠나고 나자 배수가 말했다.

“주인님, 왜 그러셨습니까.”

초구기가 피식 웃었다.

“멍청한 놈, 네가 뭘 알아.”

배수는 이해가 안 됐다. 그의 주인은 분명 사전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 알아본 뒤였다. 그런데 대놓고 말하는 대신 왜 말을 빙빙 돌리고 있는 걸까.

보아하니 상대에게 단단히 미움을 사기로 작정한 모양이었다.

이날 밤 부원령은 제대로 자지 못했다. 꿈속에서는 부씨 가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표정이 떠올랐다. 차가운 표정, 따뜻한 표정, 우는 표정, 웃는 표정, 괴상야릇한 표정.....

이 온갖 표정에 짓눌리는 바람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날이 밝기도 전에 깨어나 반쯤 일어나 앉았다. 작은 나무 평상 옆, 마차 바닥 위에서는 원지가 달게 자고 있었다.

한참 조용히 앉아 있으려니 바깥에서 누군가의 인기척이 계속 들렸다. 말소리도 어렵פות이 들려오자 원지가 당장 깨어났다.

원지는 아가씨가 이미 일어나 있는 것을 보곤 깜짝 놀라 서둘러 몸을 일으켰다.

“아가씨, 언제 일어나셨어요? 왜 깨우지 않으셨어요?”

“방금 일어났어.”

부원령은 가슴속의 뒤숭숭함을 억누르며 말했다.

원지는 서둘러 자기가 썼던 이불을 개고 재빨리 마차 밖으로 나갔다가 아가씨의 시중을 듣기 위해 곧 돌아왔다.

부원령은 스스로 옷을 다 챙겨 입은 뒤였다. 원지가 들어오자 그녀가 말했다.

“원신이한테 오라고 하고 너는 가서 자. 하룻밤을 꼬박 새웠으니 날이 밝기 전에 눈이라도 붙여.”

원지가 그러겠다고 할 리 없었다. 자신이 깊이 잠든 나머지 아가씨가 스스로 일어나시게 한 것은 그녀의 실책이었다.

“제가 아가씨 세수 시중을 들고 난 다음에 가도 늦지 않아요.”

원례와 원신도 구리 세숫대야, 물 주전자, 수건을 들고 왔다. 여기는 집처럼 넓지 않아서 마차 안에서 시중을 들 수 있는 건 한 사람 뿐리라, 나머지는 물건을 들고 마차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한편 배수는 막사 밖으로 나왔다가 먼발치서 부원령의 마차 쪽을 보았다. 절로 혀 차는 소리가 나왔다.

‘상경의 귀족 여인네들도 저만큼 대단하지는 않을걸?’

20화 드디어 도착했구나

조반을 들고 나서도 초구기 주종은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도리어 남들이 싫어하는 기색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척, 뻔뻔하게도 부씨 가문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배수는 무뚝뚝한 표정을 지었다.

초구기는 선택적으로 무시했다.

풍릉도를 지나고, 부원령은 마차에서도 나오지 않고 길을 서둘렀다. 점심때도 잠깐 멈춰서 간단하게 요기했을 뿐이었다.

배수는 부씨 가문 사람들이 말하는 간단함이란 그가 상상하는 간단함과는 조금 다르다고 느꼈다.

‘간단하게, 라는 게 반찬 네 개에 탕 하나라면, 간단하지 않은 건 어떨다는 거야?’

그는 몇십 대나 되는 부씨 가문의 마차를 흘끔 바라보았다.

‘저 마차 안에는 죄다 먹을 것만 실려 있는 건 아닐까?’

날이 저물기 전, 일행은 운 좋게 마을에 도착했다. 여기서는 객잔을 찾아 머무를 수 있을 것이었다.

부원령이 부현을 불렀다.

“부현 아저씨. 저는 저녁 식사는 나가서 하지 않을 테니, 다른 사람들은 아저씨가 지휘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제구 주종은 마음대로 하게 두세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부현은 아가씨의 말투가 조금 담담하다고 느끼고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 주종은 보통내기가 아닙니다. 우리와는 같은 부류가 아닐 겁니다. 서로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부현 아저씨의 눈썰미는 이렇게 예리했다. 부원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상경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헤어지겠죠. 아저씨도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 저들이 뭐라고 묻거든, 말할 수 있는 건 그냥 대답해 주면 돼요.”

부현은 살짝 눈썹을 찡그렸다.

“아가씨.....”

부원령은 손을 내저었다.

“아가씨, 저들이 보통내기가 아닌 걸 아시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적이 될 필요도 없어요.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사람 나름이죠.”

초구기 주종 같은 성미의 소유자는 서로 엮이지 않는 편이 좋았다.

초구기는 저녁을 먹을 때도 부원령을 보지 못했다. 배수는 자기 주인님의 좋지 못한 표정을 보고는 속으로 혀를 찼다.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다. 주인에게 벌을 받고 싶지 않다

면 솔직한 감상 따위는 자기만 알고 있으면 그만이다.

부원령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날 날이 밝기도 전에 초구기는 배수를 데리고 떠났다. 덕분에 그녀도 한시름 놓았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그 홍산호가 문득 떠올랐다. 화가 난 나머지 그에게 돌려주는 것을 깜빡했다.

“아가씨, 오늘 상경에 도착하면 부의가 우리를 마중 나올 겁니다.”

부현이 입에서 김을 내뿜으며 말했다.

며칠 내내 길을 달렸더니 다들 조금 지쳐 있었다. 곧 상경에 도착한다는 말을 듣자 모두의 표정에 흥분이 떠올랐다. 어쨌든 이 곳은 날씨는 견디기 힘들었다.

부원령은 살짝 아득해졌다.

‘드디어 도착했구나.’

* * *

다시 한번 상경의 성문 앞에 서자, 부원령의 눈이 아련해졌다. 꿈 속에서 이미 본 것인데도 지금 다시 보니 예전과 마찬가지로 웅장했다. 거대한 성벽이 위압감을 주었지만, 예전에 느꼈던 경외감은 없었다.

부의는 일찌감치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부씨 가문의 마차 행렬을 보자 당장 사람들을 거느리고 달려오더니, 마차 밖에서 아가씨에게 인사를 올렸다.

부원령은 가림막을 걷어 올리고 조금 여윈 부의를 향해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니 우선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부의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요. 일단 집으로 가십시오. 제가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부현은 부의와 함께 통행증을 가지고 성문의 관리들과 교섭했다. 부원령을 태운 마차 행렬은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섰다.

상경은 나라의 수도이니 만큼 매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성을 드나드는지 모른다. 그들이 일찍 오기는 했으나 이 시각 성문 앞에는 벌써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원례와 원신은 마차 가림막을 걷어 올려 살그머니 바깥을 내다보

고는 감탄했다.

“여기가 상경이구나. 사람 정말 많다. 노양부보다 훨씬 많아.”

“어떻게 노양부랑 상경이랑 비교하니.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 옷차림 좀 봐. 노양부에서 저렇게 입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

원례가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웃으면서 재잘댔다. 반면 부원령은 굳은 얼굴로 한쪽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꿈속에서 보았던 장면이 또 펼쳐지고 있었다.

처음 상경에 도착했을 때, 그녀도 매우 놀라워하며 무엇을 보든 흥미를 느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눈에서 나온 반짝이는 눈빛이 평녕백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우습게 보일지도 모르고 말이다.

다행히 지금 여기에는 평녕백부 사람이 없었다. 웃고 싶으면 웃고, 보고 싶으면 보고,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도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아무 흥미도 일지 않았다.

이미 상경에서 십 년을 살았다. 이제 여기는 너무나 익숙했다. 눈을 감으면 머릿속으로 상경의 모든 거리를 떠올릴 수 있었다.

상경성 거리 전체는 마치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로 교차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동성(東城)과 서성(西城)이 가장 번화했다.

동성은 대부분 고관대작의 저택이었고, 서성은 대부분 상인이나

부호의 저택이었다. 그 경계가 뚜렷했고 구분도 엄격했다.

꿈속에서 그녀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러했다.

「만약 평녕백부에서 널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네가 어디 동성에 발을 디딜 수나 있었겠니.」

그때의 눈빛과 말투를 생각하자 마음속이 조용히 불편해졌다.

성문의 검문소를 지나자 마차가 성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떠들썩하고 풍요로운 분위기가 확 느껴졌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사람이 있었다. 양쪽 길가에 늘어선 각양각색의 상점에는 좋은 물건이 가득했다.

대건국(大乾國)은 여인들에게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거리 어디서든 젊은 여인들이 혼자 또는 하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기쁘고 즐거운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시녀들은 이 모습에 모두 얼이 빠졌다. 원신이 크게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돌려 아가씨를 보았다.

“아가씨, 여긴 정말 좋네요. 앞으로 우리도 아가씨를 모시고 거리에 나갈 수 있겠어요.”

노양부에 있을 적에는 집안의 웃어른이 안 계셨고, 남들도 부씨가문의 내력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아가씨가 길에 나서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경에 왔으니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는 그들의 신상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아가씨도 매사 조심하며 행동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정말 잘됐어.’

부원령은 기쁨이 떠오른 원신의 눈을 보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러게.”

앞으로 그들은 더욱 잘 되고, 더욱 잘 살 것이다.

마차는 변화한 거리를 지나 서대가(西大街)로 들어갔다. 인파가 점점 줄어들었지만 길은 여전히 넓고 반듯했고 양쪽에 늘어선 민가는 더 호화스러워졌다.

잠시 후, 작은 골목으로 꺾어 들어가더니 마차가 멈추었다.

부의가 재빨리 다가와 웃는 얼굴로 부원령을 보며 말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부원령은 부의가 상경에 다섯 구획짜리 대저택을 마련했을 줄은 몰랐다. 부원령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랬다.

상경이 어떤 곳인데, 이 사람 많고 땅 귀한 곳에서 이만한 대저택을 구했던 말인가.

부현은 사람들에게 결문을 열고 마차를 안으로 들어 말을 풀게 했다. 부원령은 부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갔다.

두 짝짜리 대문은 조금 작았지만 매우 호방한 분위기로 지어져 있었다. 유리기와를 올린 지붕이 햇빛 아래 번쩍이며 시선을 끌었다.

문 처마 밑에 가로질러 놓은 나무판인 문첩에는 다복을 뜻하는 박쥐와 만(卍) 자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곳곳에도 좋은 뜻이 깃든 아름다운 무늬가 조각되어 있어 눈이 즐거웠다.

저택의 중앙로에는 청석(靑石)을 깔아 가지런하고 깔끔하게 관리했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될 무렵이라 뜰에는 이미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푸릇푸릇한 기운이 보였다.

“제가 볼 때 전원의 정방(正房 - 주인이 거처하는 곳)은 아가씨가 당분간은 쓰시지 못할 것 같아서 일단 정리한 다음 봉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재 쪽은 준비가 끝났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까?”

부의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아가씨의 표정을 보니 이 저택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하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제야 마음속으로 한시름 놓았다.

부원령은 서둘러 서재로 가는 대신 이렇게 말했다.

“일단 후원(後院 - 정방 뒤쪽의 구획으로 보통 여성 가족이 거주함)부터 가 봐야겠어요. 이 저택은 어떻게 사셨어요? 이런 곳이라

면 저택을 찾는 게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사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부의는 아가씨의 말을 듣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집의 규모나 건축 자재만 보아도, 애초 이 집을 지을 적에는 대대로 물려줄 생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세상일이 어디 마음대로 된답니까. 이 저택 주인의 못난 아들이 상경에서 사고를 쳐서 사람을 빼내느라 돈을 많이 들어가다 보니 집까지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됐군요. 이런 좋은 일이 우리 손에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텐데요.”

부원령이 발걸음을 멈추고 부의를 보았다.

“아저씨,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가씨가 복이 많은 걸 둘째 치더라도, 이 일이 정말 공교롭습니다.

예전에 고대용이 솜을 사들여 서북 교씨 가문을 조금 돕지 않았습니까? 교씨 가문 사람이 우리가 집을 사려는 걸 알고는 이 거래를 알선해 주었습니다. 만약 교씨 가문의 이름이 아니었더라면 저희가 이 집을 사지는 못했을 겁니다.”

부의가 말했다.

‘서북 교씨 가문?’

부원령은 어리둥절했다. 전에 고대용이 교씨의 숨을 사주고 약을 보탠 적이 있었지만, 여기에 이런 관계가 얹혀 있을 줄은 몰랐다.

“그건 정말 의외네요. 교씨 가문에서..... 우리가 상경에 오는 걸 어떻게 알았지요?”

아무래도 이 소식은 너무 빨리 퍼진 것 같았다.

부원령은 꿈속에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은 덕분에 지금은 모든 일을 대단히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교씨 가문과 왕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빈번한 편은 아니었으므로 친구라고도 할 수 없는 사이였다.

애초에 도움을 준 것도 어쩌다 그랬을 뿐이다. 그런데 이걸 보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컸다.

그녀로서는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부의는 이 말을 듣자 표정이 조금 수상해졌다. 그는 헛기침하더니 말했다.

“처음에 이 집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보러 왔을 때, 교씨 가문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교씨 가문은 바로 요 앞에 우리와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웃인 셈이지요.”

부원령은 생각에 잠겼다.

‘이건 정말....., 너무 공교로운데.’

그녀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부의를 보며 물었다.

“상경에 있는 교씨 가문 사람은 어느 분이신가요?”

“교씨 가문 장남 일가의 장손 교안이(喬安易), 교 대공자입니다.”

부원령은 깜짝 놀랐다.

“왜 그 사람이죠?”

꿈속의 교안이는 교씨 가문을 대표해 상경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에 따르면 교안이가 정식으로 등장하는 건 몇 년 뒤의 일이었다.

‘사실 그 사람이 일찌감치 상경에 와 있었고, 내가 몰랐던 것뿐일까?’

아니면 그사이에 무슨 변고가 있었던 걸까?’

“네, 원래 교씨 가문의 차남이신 교 이야(二爺)가 계셨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교 대야(大爺)로 바뀌었습니다.”

부익이 말했다.

“제가 몰래 수소문해도 구체적인 소식은 알아내지 못했으나, 그분이 경성에서 무슨 실수를 하는 바람에 교씨 가문에서 서복으로 불러들였답니다.”

이번에 교 대공자가 나오면서 모친인 교씨 가문의 대부인(大夫人)까지 오셨다는군요. 이번에 힘써 주신 분은 교 대부인입니다.”

다음 권에 계속